

第273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5月13日(火)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협상결과 관련)

審査된案件

-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협상결과 관련) .....6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웅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통합민주당 강창일 위원과 윤호중 위원, 최재천 위원, 김재윤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국정을 논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지난 6일 보임되었으나 아직 인사를 못하신 김종률 위원님과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인사 먼저 하고 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종률 위원입니다.

17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FTA라고 하는 중한 사안을 놓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마지막까지 잘 모시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 윤호중 위원입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김원웅 위원장님을 모시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7대 국회를 마감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 문제로 대단히 국민의 위협이, 근심이 높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FTA를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로서의 마지막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마감하겠습니다. 말씀드릴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저는 원래 통외통위 위원입니다. 일부 신문이 갑자기 저를 배치한 것처럼 쓰시던데 대신 때 잠시 차출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몽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잠깐, 진영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 위원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다마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그 사이에 한미 FTA가 협상되고, 체결되고, 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2년여에 걸쳐 꾸준히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간담회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께서 한미 FTA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이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열흘 정도를 남겨 놓고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인데 정동채 위원이 서갑원 위원님으로, 한명숙 위원이 김종률 위원으로, 김원기 위원님이 강창일 위원으로, 임종석 위원이 윤호중 위원으로, 이강래 위원이 최재천 위원으로, 배기선 위원이 김재운 위원으로 여섯 분이 사·보임되었습니다.

이 열흘 새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사·보임된 데 대해서 그 이유를 의아해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보임에 관한 국회법을 보면, 제4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항을 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상임위를 계속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취지로 볼 때는 회기 중에는 개선하지 말라는 게 우리 국회법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제가 그 여섯 분의 위원들이 몸이 아프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섯 분이 사·보임된 데 대해서 혹시 이 FTA를 저지하려는 지도부의 뜻을 가지고 위원들을 사·보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

고, 특히 오늘은 FTA 내용에 관한 청문회고 내일은 피해 대책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물론 쇠고기 청문회는 이미 저희가 했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갑자기 쇠고기 청문회로 바꾸어서 FTA 진행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FTA가 빨리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 이화영 간사께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여섯 분의 위원들이 사·보임이 되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화영 위원 통합민주당 간사 이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17대 국회 통의통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을 사·보임했습니다.

FTA가 국회에서 신속하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정부가 행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재협상이 이루어져야만 FTA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임하신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잘 분위기와 이론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지하시고 우리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오늘 청문회 결과를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우리 정몽준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몽준 위원 오랜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을 뵈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영 간사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좀 국회법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회법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정이 있으시니까 오셨겠다 해서 저희들이 짐작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김원웅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하셨다는 보도를 제가 봤고요, 우리 김원웅 위원장께서도 전화로 화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 새로 오신 것은 저희들이 아주 충심으로 환영을 하는데요, 여러 분이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좀 미리 알았으면 또 대통령께서 여러 분들한테 미리 전화도 하고 부탁을 했을 텐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우리 서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갑원 위원 서갑원입니다.

우리 정몽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진영 한나라당 간사님께 사과 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보입된 것은 정상적인 국회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FTA를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하는데, 저는 외통위 오기 전에 산자위에서 활동을 지난 4년 동안 했습니다.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고 또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촌·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들, 또 중소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해서……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또 피해를 보는 분야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FTA가 되어야 되겠다 늘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을 특정한 오해를 가지고 매도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진영 위원님께서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고 또 저희 지역구민들에 대한 예의고 또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17대 국회 4년 동안 통외통위를 지켜 왔던 최성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떻든 한미 FTA 청문회를 앞두고 동료 위원들께서 사·보입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문제 제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한나라당 17대 국회 과정 동안 보여준 이를테면 국회법을 무시한 본회의장에서의 여러 가지 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늘은 온 국민들이 한미 FTA와 더불어서 한미 FTA 비준동의와 직결되어 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의 선결조건이 아니었느냐는 우리 통외통위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미국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의 도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보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의혹이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 속에서 통외통위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혹이 이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지금 몇 달도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이런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쇠고기협상과 별개인 한미 FTA다라는 이런 논리는 이미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조차 쇠고기 수입의 허용 없이 한미 FTA 비준동의는 없다고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합의한 이후에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는 모든 장애물이 걸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진정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광우병 우려가 있는 이 쇠고기의 도입이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대미협상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것인가, 더구나 우리 통외통위가 그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 민주당 위원님들 경우는 어지간하면 국익적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는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다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우려 속에서 혹여 그 이면에, 한미간에 의혹 어린 그러한 합의가 또는 밀약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계속 보던 차에 이번에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참으로 한심한,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이번 쇠고기협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만약에 국회법에 어긋난 사·보입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거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닌 거라면 정치적 시비는 이

제 중단하고 곧바로 청문회를 재개해서 한미 FTA와 쇄고기협상이 과연 별개인가 아니면 직접 연관되어 있는가를 국민 앞에서 당당히 청문회를 제안하고 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고흥길 위원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고흥길 위원의 발언을 끝으로 해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사과는 하셔야 됩니다.

○**고흥길 위원** 오늘도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통외위의 FTA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 우리 한나라당 간사께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한 사항은 아주 적절하고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한 신문의 사실을 인용하겠습니다. 신문을 읽는 게 아니고 한마디를 인용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은 FTA청문회를 쇄고기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통외통위 상임위원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긍정적인 위원 대신 강경 반 FTA파로 교체하기까지 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보고 우리 진 간사께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 간사도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우려와 지적이 있다는 그런 간곡한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하라느니 이런 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란을 여기서 하고 회의로 들어가는데 다만 위원장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쇄고기청문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FTA 청문회인 만큼 그 논의가, 그 진행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강창일 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일단 서서 인사드리고요.

건교위원회에서 통외통위로 온 강창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와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왔는데 너무 쌀쌀하네, 진영 위원님.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좀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요. 같이 일해 나갑시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통외통위에서 전부 해 가지고 상임위 강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행법안 2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통외통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우리 국회 자체의 제도, 법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통외통위가 비준안을 먼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여기 많이 왔겠지요. 그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권영세 위원** 의장님 승인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됐습니다.

지금 정몽준 위원님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본인에게 한미 FTA 처리에 대한 전화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지난 4월 29일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화로 한미 FTA 처리를 당부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국익에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국익에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로 오늘 저희들이 청문회를 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원웅** 예.

○**김광원 위원** 아까 진영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사실 국회에 대해서 어느 특정 중요한 사안이 어느 상위에 계류되었다 그럴 경우에 전원 다 바꾸고 하면 사실 상임위를 하나하나, 특정 위원들의 활동무대로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규정을 만들어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런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6명이나 교체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회에 무슨 중요한 법안이 있다, 다 바꿔 버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국회가 난장판이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당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교체대상

인 위원들이 진짜로 무슨 병중이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가부를 판단해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이것은 사실 위원회 제도 자체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이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제가 신상발언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아니, 한미 FTA 비준 청문회 하는데 웬 이명박 대통령이 통외통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며 또 존경하는 정몽준 위원께서는 험난하는 식으로 ‘새로운 위원들이 오면 전화를 해 줬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통외통위에 전화할 시간 있으면 부시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이래야지 지금 한미 FTA 비준동의 청문회를 하는데, 무슨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해서 열린 청문회입니까? 이 무슨……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굴욕적인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와 연결해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된 이 비준동의 청문회에 대해서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 전화 운운하는 이런 발상이나 논의들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남경필 위원님.

○남경필 위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FTA 문제를 열일곱 차례 또 청문회를 통해서 몇 차례 해서 수십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보임이 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한나라당이나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교계를 해 왔는데 갑자기 결혼식 앞두고 이제 표결해야 되는데 신부가 뒤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보임 돼서 나가신 분들도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셨어도 저는 그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뭐 훌륭한 위원님들이 오셨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다시 FTA 문제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때는 의장님의 허락하에 원래 그동안 한 2년 동안 FTA 문제를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원래 그 위원님들이 특별한 사정, 뭐 정말 편찮으셔서 못 오신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장님의 허락하에 다시 보임돼서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표결하시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윤호중 위원.

○金武星 委員 위원장님! 청문회 합시다. 뭐 하는 짓입니까!

○金容甲 委員 위원장님!

○윤호중 위원 발언권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갑 위원님.

지금 저희 새로 보임되어 온 위원들을 일종의 FTA 비준을 막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표현이 되고 그것을 또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벌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께서도 산업자원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FTA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만큼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고 잘 협상이 이루어진 그런 협상은 아마 한미 외교사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저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쇠고기 검역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그 균형이 무너지고 한미 FTA의 좋게 이루어져 왔던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해서 새로 보임된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시기도 전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미리 간주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김광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위원장께서 판단을 해 달라, 사·보임에 대해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법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장 판단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판단하실 사항이고 그리고 또 남경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표결 시에는 이전에 계시던 위원님들로 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임이 돼서 들어온 저희들이 일부러 아파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오늘 이렇게,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 委員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위원장 김원웅 다 마지막이 되니까 좀…… 김용갑 위원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金容甲 委員 우리 진영 위원의 걱정도 있고 한나라당 위원들의 걱정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죽 보니까, 이번에 보임한 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따질 것은 충분히 따지고 결국 FTA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뭐가 국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게 옳은가 다 알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FTA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또 쇠고기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사·보임에 관한 논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보임에 관한 국회법 규정은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임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증인 한 분이 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위원님들께 의사 진행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증인이 도착했으므로 청문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협상결과 관련)**

(10시37분)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먼저 증인들의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를 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기관보고를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증인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석이 요구된 증인은 8명으로 모두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 청문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증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신원 확인은 관례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미리 본인 확인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했을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증인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원웅 의사진행 나중에 하세요.

○김종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원웅 나중에 선서 끝나고 해요.

○김종률 위원 증인 선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선서 끝나고 하자고요.

○김종률 위원 끝나고 하면 이중 절차가 돼서

그됩니다.

○**위원장 김원웅** 증인 선서해 주시지요.

○**증인 김종훈** “선서, 본인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실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증인 김종훈

증인 배종하

증인 최병일

증인 이홍식

증인 정태인

증인 이해영

증인 박석운

증인 우석균

○**위원장 김원웅** 이어서 기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기관보고 전에 간단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김종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률 위원** 지금 외교통상부장관께서 기관보고를 하게 돼 있으신데 오늘 FTA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FTA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구나 지금 중요한 청문회와 관련된, FTA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동의를 하면 증인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관 본인 이.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무장관으로서 이 청문회 계속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지난번에 합의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김종률 위원** 한미 FTA 청문회를 하면서 주무장관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증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성 위원** 아니, 속기록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김종률 위원** 이것 잘못 처리된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최성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지?

○**위원장 김원웅** 우리 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위원** 그 증인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외교부장관은 내일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하려면 전에 의결할 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미 뭐 다 간사 간합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김종률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마침 기관보고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본인이 동의를 하면 증인 선서하고 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 위원** 아, 있지마는 우선 우리 위원끼리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종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한테 제가 확인하고 촉구하는 거니까……

○**진영 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겁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의사진행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저도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웅** 우리 이화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영 위원** 그날 회의에서 속기록을 다시 보면 “외교통상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밝히시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날짜를 특정하신 바가 없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신 바가 없어서 우리 당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청문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당에서 보고된 자료를 보더라도 오늘 증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청문회에 임했는데 상임위원회에 와 보니까 증인에서 배제돼 게시거든요? 그 해석도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게 바람직하겠고 만약에 김종률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청문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장관에게 권고

하는 것이 필요한 순서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회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웅** 지금 간사 회의를 통해서 지난 5월 6일 2차 위원회에서의 회의록을 검토를 했습니다. 회의 속기록을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대로 외교부장관은 둘째 날, 내일로만 증인으로 채택한 걸로 합의를 해서 그때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날은 논란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일부 혼동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대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김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상 외교부장관 본인이 여기서 증인 채택을 했을 경우에 계속 해 주겠다는, 증인으로서 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가 확인이 되면 그런 조치는 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야 증인을 할 사람한테 증인을 하겠냐 얘기를 묻는 거지, 여기서 합의가 안 됐는데 그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원장 김원웅** 맞아요, 그러면 우선 보고를 받고 그다음 절차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외교부 유명환 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 경과, 주요 협상 결과, 기대효과, 그리고 17대 국회 내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포해 드린 한미 FTA 협상 결과 보고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 출범 이후 여덟 차례의 공식 협상, 그리고 수석대표 간 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고 6월 30일 서명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7일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올해 2월 13일 통외통위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상의 주요 결과입니다.

한미 FTA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모든 공산품과 임수산물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특히 공산품의 9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섬유와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 시장접근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약가적정화 방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개선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우리 측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협정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 가능성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투자 분야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고 법률 회계 방송 통신 등 선택적 분야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일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고 신금융서비스 시장을 일정 요건하에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신 부문에서 정부의 정당한 기술 선택의 정책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고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조달 분야에서 입찰 낙찰 시 자국내 조달실적 요건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그 외 동의명령제 도입, 지적권 보호 강화, 입법예고기간 연장 등 우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국회에 보고된 11개 국책연구기관의 합동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우리 공산품의 87%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어 연평균 25억 5000만 불의 대미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자동차는 10억 9000만 불의 증가, 전자제품은 6억 2000만 불의 증가, 섬유는 2억 3000만 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연간 4700만 불에 달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그리고 통관절차 신속화 및 간소화, 투자 보호 강화 등으로 미국 시장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취약 분야인 농업에서는 대미 수입이 3억 7000만 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FTA는 경제성장, 수출, 고용, 투자, 소비자 후생, 외국인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한미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할 때 실질 GDP는 6.0%, 약 80조 원이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대미 흑자 46억 불, 대세계 흑자 200억 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자리는 34만 개가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은 약 20조 원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는 약 230억 불에서 320억 불가량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제고되고 경제시스템의 개방화와 투명화를 통한 제도 선진화는 물론, 자유로운 시장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준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가 연내 비준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분위기입니다만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등이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노동계 표를 의식해서 한미 FT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업계에서도 한미 FTA의 성공적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FTA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콜롬비아 FTA 동향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8일 의회와의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 하원은 4월 10일 미·콜롬비아 FTA에 대해 무역촉진권한법상 처리 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가 상당히 경색된 상황입니다만, 금번 TPA 적용 배제 결의안은 미·콜롬비아 FTA에만 국한되고, 또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콜롬비아 FTA

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의회, 행정부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도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인준 추진 전략을 세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협상 추이가 한미 FTA 인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 처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이 금년 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 행정부 측과 계속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내 비준동의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는 17대 국회에서 협상 출범부터 서명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통외통위에 열여덟 번, 한미FTA체결대책특위에서 스물여덟 번 또 청문회 세 번, 기타 상임위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만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한미 FTA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게 되어 시간 소모가 우려됩니다.

둘째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들의 심의도 가능합니다. 한미 FTA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이행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미 의회의 조속한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 의회 관계자도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 의회로서도 인준 지연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로 최근 유가, 곡물가, 환율 등이 동반 상승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도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한미 FTA가 비준되면 EU, 캐나다 등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 진전 및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FTA 추진 정책에도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는 철저한 국내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바 이 문제는 명일 청문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만, 정부는 이미 작년 6월 28일 한미 FTA와 관련한 종합적인 국내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일 위원 자료……

○위원장 김원웅 예, 강창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창일 위원 장관님! 장관님!

이 자료 문제 가지고 좀……

2페이지에 말이지요, 2쪽에 주요 협상 결과, 농업 부문의 셋째 줄 ‘현행관세 유지’ 해서 ‘오렌지(수확기)’ 이렇게 해 놔는데, 그것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게 자료가 잘못되면 호도하는 게 된다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잘 모르지요? 끝까지 현행관세가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거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질문하시는……

○강창일 위원 2페이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2쪽에 농업 부문의 세 번째 ‘현행관세 유지’ 해서 ‘오렌지(수확기)’ 이렇게 해서 현행관세가 FTA 체결되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이 자료에 명기해 놔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종훈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수확기가 9월부터 2월까지로 해 가지고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현행관세는 끝까지 갑니다. 다만 그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는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감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강창일 위원 그렇지, 어떻게 정확하게……

○증인 김종훈 아닙니다. 확실히 합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지.

○증인 김종훈 아니,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가 유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것 관세 30% 적용해서, 그리고 7년 후에는 철폐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김종훈 예, 그것은 비수확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청문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원웅 예, 자료만 요구해 주세요.

○서갑원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 또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또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외통위 의결을 거쳐서 이 자료들을, 많은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주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부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문서화된 회의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적인 협상 입장을 포함하는 관계 장관 결재자료 요구했더니 ‘대외비다’ 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 그리고 한미 FTA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방미에 따른 사전 보고자료 또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외비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FTA 및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부처간, 청와대의 주미대사관 등을 포함해서 주고받은 공문을 요청했는데 외교통상부에서도 역시 ‘대외비다’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언론에 공개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고 협상 과정 전반에 걸친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를 무력화시키자는 행태고 입법부의 권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거부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김원웅 최재천 위원, 내용이?

○최재천 위원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말씀하세요.

○최재천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2007년 국감 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당시 간사들 사이에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통외통위에 대외비나 특별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는 분명히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해 놓은 문건이 있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돌아와 보니까 똑같은, 이것을 작태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작태에 불과한 것이지요. 똑같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외비라고 핑계 대고, 절차를 핑계 대고……

이런 청문회 뭐 합니까? 청문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라는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해 놓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각종 문서를 공무원들 자기들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문서가 공무원들 것입니까? 국가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왜 대외비라고 묶어 놓고, 왜 비밀로 묶어 놓고 제출하지 않아요? 이런 청문회 뭐 하러 합니까? 자료 없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아무런 이야기도 못한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 새로운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자료를 당장 제출하세요. 실질적인 의미의 청문회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목소리만 높이는 청문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당장 정회를 하고 양당 간사 사이에 합의를 한 다음에 문서를 제출해 주고 그 문서를 근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 신문에 나는 이야기 되풀이하면 뭐 합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2007년 합의한 사항을 지켜 주세요. 위원장은 분명히 책임지시고 양당 간사 서명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지키고 그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밀자료 등을 이유로 제출불가 답변을 한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님실에서 요청한 38건 중에 3건은, 기타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충분히 자료 답변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통상부는 보다 효과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제공 중입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고 협상 관련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상대국과의 신뢰관계 손상이 추후 협상력 약화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외교력 저하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갑원 위원** 제가 외국과의 협상 과정을 자료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협상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 부처 간에 오고 간 공문이라든지 각종 회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회의자료가 대외비라는 것 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외교부로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많은 자료가 어제 요청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물리적으로 준비를 하는 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갑원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하느냐는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거짓말한 바는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장관님, 당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위원장 김원웅**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2007년 가을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책임자셨습니다, 사실상. 당시의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분명히 합의하셨고, 그때 똑같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셔 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한 이야기와 왜 다릅니까? 그때 약속과 왜 다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외교부로서도 여러 가지 국제관계 관행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장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 경우 외에는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교통상부에서는 3건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미 자료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대통령실에서는 1건의 사항에 대해서 아무 소명도 없이 지금 서류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소명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서류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성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하고 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김재운 위원께서 오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국제회의 참석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정말 한미 FTA가 진정 국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논의되는 이 공청회가 진정 국가와 국민에 이익이 되는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신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서는 나중에 추가로 시간을 드리겠으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신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시간제한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수원 영통의 김진표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기관보고를 하신 주무장관께 몇 가지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아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부장관으로서 가장 한미 통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는 FTA의 비준 통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 FTA 비준 통과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리 국회의 동의와 함께 미국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인데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나중에 증인으로 되신 김종훈 실장께 시간이 되면 묻기로 하고 미국 의회의 비준의 여건을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 ‘미 행정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미국 의회 동향도 대체적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경제계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 의회의 동의 여건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셨는데 지금 미국이 대선 과정에 있지요?

미국 대선과정 때문에 미국 의회는 실제로 언제까지 회기가 되도록 단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금년 9월입니다.

**○김진표 위원** 9월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진표 위원**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의 유력한 두 대선후보가 모두 다 한미 FTA에 관해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발언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미국 하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성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공화당 198명, 민주당 234명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상원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상원은 공화당이 49대 49로 지금……

**○김진표 위원** 동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진표 위원** 그런데 오늘 국회에 보고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미 의회의 동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개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미국 의원들의 발표된 것을 보면, 하원에 있어서 중요한 주무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세입세출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 위원장이 란젤 위원장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찰스 란젤 민주당 뉴욕주 출신……

**○김진표 위원** 또 레빈 무역소위원회, 후버

원내대표, 아니 호이어 원내대표, 펠로시 의장 모두 다 지금까지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왔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진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 의회가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의회의 정당 구성을 봐도 그렇고 또 주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그렇고 또 미국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가 모두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보셨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금년이 선거의 해이고 대선의 해이고, 또 지금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하고 오바마 후보하고 아주 박빙의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노동자 표를 의식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미국 의회에서 FTA가 부결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FTA가 미국 국익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점을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에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톤으로 이 자료가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아무런 특수사정 없이……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수한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봐도 굉장히 불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 중에서도 미국 의회의 FTA 비준 동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은 쇠고기 협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반대하던 맥스 보커스 의원 같은 분이 FTA 찬성으로 중요한 입장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바로 여기에 저는 외교부나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맥스 보커스 상원 재정위원장이나 또 쉐더 레빈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모두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

니까 상원·하원의 주무 위원장들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 비준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해 온 분들인데,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의회에 아직 쇠고기 비준 동의안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쇠고기 비준 동의안이 9월 말, 회기 말부터 시작해서 90일 내로 소급해보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제출돼야 할 거고, 그러면 쇠고기 협상은 6월경에 타결되어야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특히 참여정부가 쇠고기 수입 협상에 있어서 지켜온 그런 포지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안 한다. 30개월 미만도 SRM 제거해야 된다.’ 이 포지션을 지렛대로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6월에 이 문제가 협의가 되고 제대로 타결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4월 18일로 협상을 앞당겼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쇠고기 수입 문제는 시장 개방의 문제가 아니고 검역의 문제이고 그것은 국민 건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FTA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결을 했지만 저희들이 쇠고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역,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것을 위해서 양보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검역에 필요한 국제기준, OIE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초해서 기술 전문가들의 협의이기 때문에 그 외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동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님, 증인께 한 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협상이 가능하나 안 하나 하는 것에 대한 국제법적 관행과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증인께서 TV에 출연해서 토론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 봤는데 이해영 교수 생각은 요번에 타결된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 자체가 이것이 OIE의 검역 기준이 바뀜으로써 된 재협상이다, 따라서 사정과 여건이 바뀔 수 있으면 재협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전 국민의 80%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의 악화를 계기로 대통령

과 총리와 해당 주무 장관이 한미 간의 쇠고기 검역 기준 협상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이상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한 이해영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이해영** 방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 관계의 관행으로 보더라도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측에서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까지 합의된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이번 한미 간의 합의 역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OIE 조건이 바뀌면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을 했고, 다시 말씀드려서 재협상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번 합의문 자체에도 그 협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국 어느 한쪽이라도 어떤 사안이든지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7일 내에 그 상대국에서 협의에 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무는 아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사정 변경의 원칙을 들어서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청을 하고 그 재협상을, 뭐 이름을 달리 불러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쨌든 국민 여론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委員** 우리 대한민국이 20세기에 동족 간에 전쟁을 치러서 폐허가 되고 그리고 또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세계 경제의 열세 번째 그런 대국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 판단에는 한미 간의 군사동맹, 한미 군사동맹이 사실상 뒷받침이 되어서 그런 경제발전이, 경제개발이 가능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방위조약은 20세기 한국의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디딤돌이 됐는데 21세기 우리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저는 경제 도약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한미 FTA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미 FTA는 단순히

양국 간의 경제협약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서는 21세기 한국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양국 간의 경제동맹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 FTA는 기필코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비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장관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7대 국회가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사실상 오늘 열리는 청문회도 과연 필요한 그런 절차인가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쪼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꼭 이것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쇠고기 협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한미 FTA 청문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이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5.1%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80.8%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에만 매달리느라고 소위 검역주권이니 국민건강권 같은 것을 도외시한 채 서둘러 시장을 개방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 바탕을 두어서 야당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분명히 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17대 국회에서는 협상 출범부터 서명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우리 통외통위원회가 열여덟 번, 또 특위에서 또 다른 상임위에서 또 청문회 등을 통해서 매우 활발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우리 협상팀의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한미 FTA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어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하고 한미 FTA 조기 비준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한 기존의 우리 정부 입장에 변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증인 김종훈**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렇죠?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받은 게 작년 5월이었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쇠고기 협상을 해 왔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과 이 쇠고기 협상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김종훈** 시기적으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소비를 한 것은 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한 3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다가 한때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입중단조치를 한 적도 있고 그러한 수입중단조치가 GATT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패소를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급기야 2003년 소해면상뇌증, BSE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발생되기 직전까지는 한때 우리 소비의 한 40%가 넘는 양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러한 병이 발병된 이후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수입을 중단한 지 이미 5년이 돼 갑니다. 따라서 5년 동안에 계속 계속된 오래된 한미 간의 현안이고요. 그 현안에 무슨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냐, 그간에 미국의 노력이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병이 발생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金德龍 委員** 그렇죠?

○**증인 김종훈** 예.

○**金德龍 委員** 분명히 이번에 합의된 쇠고기 협상 내용은 전적으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런데 지난 4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OIE의 권고를 존중해서 합리적인 기간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었지요?

○**증인 김종훈** 예.

○**金德龍 委員** 그래서 미국이 OIE로부터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던 지난 5월 그때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차를 9월경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발표한 일도 있었지요?

○**증인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의하기가 매우 쉬운 일은 아닙니까마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합리적 기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두고 딱 부러지게 합리적인 기간의 정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대방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해결되기를 강하게 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金德龍 委員**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이 새 정부 들어와서 변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증인 김종훈** 그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제일 기본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라 하는데 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확립된 OIE 기준이 확고하게 제시된 이상 이것을 협상의 기초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러니까 OIE로부터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예, 다소간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한 원칙을 뒤엎는 새로운 과학적인 기준 내지 발견이 나오

지 않는 이상 그 기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저  
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가 한미  
FTA 때문에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바꾸어서 대폭 양보한 것이다라고 일부에서 주장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  
지요?

○**증인 김종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위  
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착실히 알리는 그러한 노력이 부  
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좀 아쉽  
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德龍 委員** 마지막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시키려고 했는가? 예를 들어서 쇠고  
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과 FTA  
체결 못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미국이 전달한  
일이 있는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종훈** 그 부분은 미국 행정부하고 의회  
의 입장에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  
별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언론  
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측에 아주  
명백하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미 행정부라  
기보다는 미 의회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고요. 결  
국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협상 자체가 아니고  
끝난 협상을 어떻게 비준 동의하느냐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미 의회가 그  
것을 명백히 조건화하고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사실은 익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오래전부  
터 많이 전달이 되어 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 김  
종률 위원입니다.

오늘 한미 FTA 청문회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쇠고기 협상, 지금까지 증인들 증  
언을 보면 마치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FTA와는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 공식 공문이라든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의  
증언을 들어 보니까 상당 부분 정직하지 못합니  
다.

한미 간의 쇠고기 문제는 한미 간의 중요한 통  
상 현안이라는 점은…… 주무장관,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 드렸습니다. 그 공문을 보시면서 답변  
을 하시지요.

자료 두 번째 미 무역대표부 공식 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한미 FTA의 중요한 방해물  
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표시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  
다.

○**김종률 위원** 무역대표부 공문 그것 인정합니  
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USTR News Letter  
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리고 미 의회 등은 그간 한 번  
도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한미 FTA 인준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일관  
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이명박 대통  
령이 ‘쇠고기협상 타결로 한미 FTA 비준의 걸림  
돌이 사라졌다.’ 이렇게 두 사안의 연관성을 스스  
로 인정하는 발언했던 사실 알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김종률 위원** 그렇게 발언한 것 알고 있습니  
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지금…… 물론  
미국 측의 입장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돼야만 FTA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하고 우리가 양보했  
다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종률 위원** 지금 그걸 묻지 않았잖아요!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답변을 해 드리  
는 것입니다.

○**김종률 위원** 지금 그것을 물었습니까?

이번 쇠고기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에 시한을 맞  
추다 보니까 총체적 부실 협상으로 연결된 것 지  
금 물으려고 그래요.

우선 긴급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겠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가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이렇게 자화자찬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국민을 속인 결과가 됐습니다.

장관, 이번 쇠고기협상 결과는 1단계·2단계 이렇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단계적 개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료 첫 번째 것 보세요. 4월 25일 날 연방 관보에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 공표하는 시점 이전에 벌써 ‘완전 개방’이라고 이렇게, ‘소의 연령, 월령 관계없이 완전 개방했다’ 이렇게 게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국민한테 공표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이게 최대한 협상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그나마 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대폭 완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취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광우병 소라고 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도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교차위험 막을 수도 없고 국민 건강에 큰 핑크가 나게 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제가 그에 대해서……

○김종률 위원 문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2일 날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 사료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 위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국민 속인 결과가 됐지요, 의도가 있든 없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농수산부에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가 아니라 최대 패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김종률 위원 그러면 문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답변을 하고……

○김종률 위원 이번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강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었는데 미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어리버리 넘어간 겁니까? 또 아니면 알았지만 협상 시한을 맞추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겁니까, 어느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화된 사료 금지라는 것은, 뭘 먹이느냐, 먹일 수 없느냐가 강화·완화가 아니고 강화된 사료 금지라는 그 말 자체가 교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

○김종률 위원 교차감염, 결과적으로 방지됩니까, 안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조치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률 위원 추가된 조치로서 당초 약속한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은 2005년에 고시한 내용이 왜 바뀌었느냐 하면 그 후에 작년엔 OIE에서 새로운 규정이 통제국의 지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김종률 위원 장관의 지금 답변은 말이지요. 미국 무역대표부 공식 공문에도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문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쇠고기협상 공문 고시 5조의 애드벌스 체인지(adverse change) 이 표현을 처음에는 이 체인지를 ‘부정적 영향’ 이렇게 번역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 답변하세요.

○김종률 위원 나중에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처음에 그렇게 부정적 영향으로 번역했던 것?

○증인 김종훈 처음 번역 초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률 위원** 그런데 이런 엉터리 번역한 것 지적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엉터리 번역한 의도가 하도 미국 정부한테 양보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된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부정적 변경’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당초 얘기된 것과 다른 완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제가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만 얘기해주세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증인 김종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률 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김종률 위원** 그러면 대단히, 제대로 협상 과정에서 잘못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증인 김종훈** 그것은 이미 농림부에서 그것을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설명 자료를 드릴……

○**김종률 위원** 그런데 처음 마지막 타결되기 직전까지 이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정부는 공표가 아니라 시행을, 그것도 1년 뒤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김종훈** 그 문제가 어디에 혼선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에 설명 자료를 드리는 초기에 잠깐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증인 김종훈** 예.

○**김종률 위원** 그다음에, 시간 제약 때문에 그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좀더 묻기로 하고요.

저는 이런 협상을 보면서 졸속적으로 시한을 맞추다 보니까……

○**증인 김종훈** 위원장님, 제가 김종률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김종률 위원님의 시간을 제가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부 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종률 위원** 이 시간은 좀 빼 주세요.

○**위원장 김원웅** 예.

○**김종률 위원** 즉각적인 쇠고기협상만이 지금 예상되는 피할 수 없는 한미 간의 더 큰 통상전쟁을 저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은 말이지요.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해명하고 정부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 김종훈** 해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률 위원** 지금 증인은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해명하고 그러는 기회가 아닙니다.

○**증인 김종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중단조치 취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제통상법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만약에 모른다면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여론 무마용, 국민 눈속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국제법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종률 위원**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광우병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수입중단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 국제법 몰라도 한참 모르는 위험천만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무총리께서 담화를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미국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궁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GATT 20조에 의해서……

○**김종률 위원** 그러면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오늘 오전에 나와 있는 그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간에 타결되어 있다는 이 한미 쇠고기협상, 다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재협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재협상 합의문 고시 보면 정면으로 충돌되고 모순되잖아요. 그것 인정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재협상을 할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요. 광우병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생길 하나의 가상적인 문제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김종률 위원** 그러면 지금 있지도 않고 개연성도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 자리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개연성에 대해

서, 그래서 그런 광우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면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종률 위원** 장관, 이번에 한미 쇠고기 합의 문하고 또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 하겠다고 하는 그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GATT 20조하고 또 WTO 위생검역 협정 제5조7항 명문 비교해 본 사실 있어요, 없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것을 수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률 위원** 비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지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률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양 조문을 비교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필 알고 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GATT 및 WTO 조항에 의해서……

○**김종률 위원** 서로 충돌되지요? 우리 정부가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가 어떻게 충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마무리를 하게 시간을 더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가 어떻게 충돌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WTO 규정이나 GATT 규정은 말이지요. 그 말 그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고, 그리고 사실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자간 협정이고 이미 한미 사이에 이와 같이 당사국 간에 개별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것에 의해서 무역 중단한 사례가 없습니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번에 우리가 한미 간에 체결한 수입위생조건

은 국제법적으로 행정부 간에 체결된 하나의 양해각서입니다. MOU입니다. 그것은 GATT나 WTO의 하위 법안이기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법상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률 위원** 장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원웅** 김종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해서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측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김종률 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그것이 일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일반 조약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 협정에 당연히 이와 같이 새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그래서 재협상하는 것을 오히려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논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원웅** 김종훈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 김종훈** 1분만 쓰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요.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예.

○**서갑원 위원** 이 청문회는 지금 청문회입니다.

증인은 청문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지, 지금 정부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여기는 청문회지, 국정에 관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웅** 서갑원 위원!

○**서갑원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까 김종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종률 위원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답변을 안 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서갑원 위원** 다른 것을 해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간단하게 김종훈 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종훈** 저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간단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이 발동된 사례가 있느냐?’, 사례 있습니다. 90년 이래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나다마는 한 10건 정도 발동된 사례

가 있습니다. 발동이라는 것은 정확히 하면 이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툼이 있기 전에, 다툼으로 가기 전에 양자 간에 어떤 협의의 거처서 원만하게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례가 있었냐고 묻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GATT라는 것은 다자협정인데 양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권리와 의무는 각각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서 한쪽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그것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권적인 권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열 가지의 사례가 양측이 합의해서 그 조항을 쓰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발동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국이 이것을 주권적으로 판단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률 위원** 이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고 중대한 사실 확인 문제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그것을 짚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말이지요, 지금 사례를 거론하셨는데 결과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우회적으로 수출 중단……

**○서갑원 위원**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김종률 위원**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위원장 김원웅** 마이크 넣어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요.

**○김종률 위원** 더 제가 하지 않겠다고……

**○위원장 김원웅** 다른 위원들한테 형평의 문제가 제기돼요.

**○김종률 위원** 그러면 김종훈 본부장 증인의 얘기로 본 위원의 질의가 퇴색되고 의미가 사실과 다르게 되는데……

**○위원장 김원웅**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김종률 위원** 그것을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지요.

.....

**○위원장 김원웅**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통외통위원회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 오시다 보니까 확실히 그동안의 통외통위원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질의 방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FTA 비준과 관련해서 한미 FTA가 국익에 부합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대표이신 손학규 대표께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한미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비준을 한 다음에 24개의 법안을 개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미국은 그냥 이행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FTA가 비준되는 마지막 시점은 어느쯤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순한다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썽요, 우리 국회로서는 24개의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이것을 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입법절차를 시작해야 금년 하반기에 관련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지금이 안 된다면 6월 국회가 새로 개원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여야간의 개원협상 이런 것들 또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다면 17대 국회, 지금 국회가 최적기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린 겁니다.

**○남경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쇠고기 문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FTA 문제는 FTA

문제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문제 때문에 FTA를 처리 못하겠다 하는 것은 백 보 양보해서 야당 입장대로 쇠고기 문제가 정말 무지하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정치적인 공세로 들리는데 쇠고기 문제는 쇠고기 문제대로, FTA 문제는 FTA 문제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좋습니다.

FTA와 쇠고기 문제가 문건으로 별개의 문건이지만 그러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또 소해면상뇌증, 광우병이라 알려진 BSE에 대한 오해, 또 진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이 FTA 비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노력을 지금 범정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종훈 증인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도 시민단체에서 입장을 밝히려는 요청을 받고 30개월 미만 빼 없는 쇠고기만 살코기만 수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이런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대개 협상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남는 장사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밀지는 장사를 할 때가 있는데 한미 FTA 협상은 우리가 좀 남는 장사를 한 것이었고요,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은 결과적으로 밀지는 장사를 했다고 보는데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저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경필 위원 현재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못한다라는 검역주권의 논란이 있고요. 하나는 동물사료 강화조치가 고시되는 올해 4월 25일이 아닌 1년 뒤인 내년에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재협상을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재협상을 요청할 사정변경이 있는지, 재협상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김종훈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 부분 비등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기 때문에 잘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과학과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뒤엎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발견이 생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 전문가들이 이것을 아무리 따져 봐도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립해서 OIE가 결정을 한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재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1%의 국방이 위험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역도 국방과 마찬가지로 1%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광우병, BSE에 대한 과학적 영역의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의 논란은 이제 정부가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가장 됐던 게 검역주권의 논란의 핵심인 제5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지자 농림부장관께서 무역 보복이 예상되더라도 발생할 때는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문제를 좀 인정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위반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하고

고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종훈** 양 국가 간의 합의는 그 합의의 법률적인 형식이 조약이든 MOU든 약식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잘 지켜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그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이, 지금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것 그 사실만으로 수입중단조치가 충분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예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기왕에 되어 있는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우병이 새롭게 발생되었다고 해서 일본은 수입중단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한 정도로 보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를 GATT를 원용해서 하겠다고 한 것에는 우리 정부의 아주 강한 그런 정책 의지는 이미 표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이해가 되지만, 대놓고 합의문 위반하자는 것이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미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런 합의서를 가지고 수입 재개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빼고 하는 것이 미국 쪽 입장에서 좋겠다라는 설득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검역주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노력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와 협상의 묘미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으로 쇠고기 관련된 한국조사단이 갔습니다. 귀국한 이후에 고시를 해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늦는 것이 아니다, 꼭 20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꼭 60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말씀드린 그 규

정을 삭제하고 드러내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꼭 15일이 고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일단 지금 의견들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의견이 어느 정도, 어떤 의견이 들어오는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경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텐데요, 답변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물사료 강화조치와 관련해서 ‘강화된 것이다’ ‘아닌 것이다’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강화된 것인지, 완화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 김종훈** 한 1분만 제가 쓰겠습니다.

분명히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화는 그러면 뭐냐, 이게 반추동물에서 반추동물로 가는 것은 기왕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반추에서 반추로 직접 가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비반추동물을 통해서 먹이가 가는 것을 막아 달라’ 우리도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림부가 협상을 해서 받아 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반추에서 반추로 가는 것이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규제를 하게 됐기 때문에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에서 광우병이 생긴 이래 SRM이라는 위해물질을 끊어 내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우려는 99%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1%도 이 반추에서 반추로 가는 사료금지조치로서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도 막지 않은 것이고요.

그 혼선이 왜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수로, 2005년에 공고됐던 그것을 따서 일정부분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혼선이 전달된 것이고요.

그리고 2005년은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미국이 새로운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위에 따라서 위해물질의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입니다. 거기에 아마 혼선이 생겼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다음에 새롭게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완전히 딱 부러지게 BSE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온 소는 3년 전에 공고될 때는 거기에 명시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고시를 보면 BSE 양성 소는 무조건 전체가, 살코기든 뼈든 육골이든 주면 안 된다고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김원웅** 저희들 증인에 대한 신문이, 특히 유명환 장관과 김종훈 본부장님께만 집중이 되는 것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갑원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지금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김종훈 본부장께서 조금 전 답변에 ‘OIE가 정한 국제기준을 뒤집을 과학적 근거가 없이는 재협상이 안 된다’, 그리고 ‘국내 여론만으로는 재협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이해영 증인이나 누구 있으면,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해영** 기본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 특히 말씀하신 게 과학적인 과학의 바탕에서 이런 OIE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이른바 글로벌스탠더드를 뒤집을 그런 과학적 기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OIE가 이야기한 그 과학 이것은 USTR 보고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과학과 국제기준, 즉 ‘Science and International standard’라고 하는 이 기준을 USTR이 정한 거지요.

그런데 OIE가 이야기하는 그 과학적 기준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왜냐하면 OIE에 미국의 영향력이 실제로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5단계에서 작년엔 3단계로 완화가 된 거지요. 완화가 되면서 광우병의 발병 여부와 교역의 여부,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교역은 가능하게끔 미국 축산업계의 이해관계가 고스

란히 반영이 된 그 결과가 지금 미국이 이야기한 과학이고 국제기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국제기준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까 GATT 이야기도 나오고, WTO SPS 협정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OIE의 상급기관이 WTO입니다. 그래서 WTO의 SPS협정에 따르면 OIE의 권고(recommendation)에도 불구하고 혹은 국제기준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제기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하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당장 미국과의 재협상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냐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 어떤 국제법도 혹은 규범도 이를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증인 박석운** 위원장님!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장 김원웅** 박석운 증인, 좀……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정의용 위원님 이전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하고 나서, 정의용 위원 얘기하고.

정의용 위원님 바로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 위원장님!

○**정의용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정 위원님께 발언을 드렸으니까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가급적 조기에 발효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고 믿고 있고 또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한미FTA특위 또 우리 상임위원회, 여타 토론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다시 상세하게 되풀이하지는 않겠

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결과를 놓고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더 어렵게 되고 있는 그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우리가 1980년대 초 무역에서 출초를 이루고 난 다음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개방 압력을 받았고, 불가피하게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87년도 담배 시장 개방이라든지 91년도에 열대 과일 시장 개방이라든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93년도 UR 협상 이후 쌀 시장의 부분적 개방이라든지. 이러한 개방 고비마다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컸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의 쇠고기 문제는 물론 국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같이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개방의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장관께, 증인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표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 의회의 비준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위 현재의 110차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행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금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계속 다수당으로 남아 있는 한 비준동의안 처리가 내년 들어가면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미 의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가정할 경우 우리 국회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미 의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우리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 의회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불확실성 때

문에 우리가 우리 국회의 비준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연관성이 좀 미약하고, 차라리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 국회를 압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의용 위원** 오늘 장관께서 보고하시면서 미 의회 관계자도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 의회도 비준 지연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미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양국 의회가 서로 자국의 국익에 바탕을 두고 검토할 문제지 그러한 책임을 우리 국회가 먼저 해 주면 미 의회 처리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회에서의 입장 표명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그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미 의회의 처리 당위성에 관해서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정의용 위원** 한미 FTA와 쇠고기 시장 재개방, 이게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별도 트랙으로 한미 간에 협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미 FTA 협정을 비준하는 데는 사실 쇠고기 문제가 직접 연결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용 위원** 우리 국내 정치 현실로 볼 때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 한미 FTA를 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썬, 이 문제가 현 정부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작년 4월에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서 지난 정부에서도 위생·검역의 조건은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 문제는 FTA 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지난 정부에서도 방침을 세웠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용 위원** 저는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면서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응에 대



해서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친북·반미·좌파 세력에 의해서 날조된 괴담을 인터넷으로 유포했다든지……

사실은 보면 국민들이 삶의 질이라든지 소위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민감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괴담’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참여정부가 해놓은 것을 우리가 설거지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표현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쇠고기 시장개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서도 처리하지 않고 물러나서 우리 정부는 그냥 설거지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표현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계시죠?

○증인 김종훈 예.

○정의용 위원 전 정부의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입장과 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증인 김종훈 예.

○정의용 위원 며칠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미국은 조건을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조건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그러합니다.

참여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공표 시점이 아니라 이행 시점에서의 단계적 개방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했는데 현 정부가 전면개방 쪽으로 사실상 합의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더욱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에서 노대통령이 절대로 30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미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력히 저희가 결론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종훈 우선 ‘전면 개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면 수입개방이 이 협상을 통해서 나왔느냐, 그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이 OIE에서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받고 바로 내놓은 이야기가 올 컷츠 올 에이지(all cuts all age)입니다. 그게 바로 전면적으로

다 받아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정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며칠날 합의를 했습니까? 4월 18일인가요?

○증인 김종훈 4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4월 18일날 합의를 발표하면서 ‘단계적 개방’이라고 발표를 했죠?

○증인 김종훈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정의용 위원 그러나 미국이 바로 1주일 후에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개방 쪽으로 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예, 설명해 드릴까요?

○정의용 위원 예.

○증인 김종훈 올 컷츠 올 에이지라고 그랬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죽……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단계로 해야겠다’, 단계로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공감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30개월 미만부터 가자. 30개월 이상은 어떤 조건을 붙이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이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를 강화를 하라.’ 그런데 그것을 미 업계가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을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놔라’,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했고요, 저쪽에서 내놓겠다고 하는 단계가 오면서, 그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표를 할 것이냐, 이행을 할 것이냐? 이행 때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미국이 기술적으로 공표하고 이행하는 데는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쓰레기 처리가 되는 것이, 제대로 쓰레기가 되려면 환경오염, 이런 웨이트 처리가 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행을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조치의 과학적인 효과가 0.001%에 해당되는 것을 또 캐치 올(catch all)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표로써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믿어 주고 나머지는 가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협상이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본부장의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훈 지금까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위생검역은 많은 부분 국제 사례를 보면 어떤, 교묘하게 교역장벽을 쌓기 위해서 발동을 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 WTO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WTO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다른 증인께서 어떤 국가도 그것보다 앞서는 그것보다 더 나가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국제기준보다 더 나갈 때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할 때는 그걸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어떤 자의적인 추가적인 장벽을 쌓는다고 하면 상대방에서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장된 장벽이라고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요.

따라서 이 SPS 부분은 굉장히 분쟁이, 과학을 논거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론상 우려가 있는 부분과 그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는 것을 면밀히 따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로 보면 이미 광우병은 상당 부분 통제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추가적인 과학적 근거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 발견되면 당연히 개정을 하거나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로서 판단한다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정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길 위원 한나라당 성남의 분당갑 출신 고흥길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 이 청문회는 한미 FTA를 매듭짓는, 종결짓는다는 차원에서 소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FTA보다는 오히려 쇠고기 문제로 변질되어 가지고 한미 FTA와는 별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FTA를 논의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미 FTA 청문회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산업들에 대해 짚어 보고 또 지원대책이 효과적으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증인들께서 나오셨습니다. 청문회에 대비해서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증인들에 대한 질의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장관과 통상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문회에서 따져야 될 것, 특히 오늘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대개 저는 몇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과연 이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결국은 쇠고기 협상이 FTA 타결의 전제조건이냐, 미국 비준의……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협상이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방미에 맞추어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국익을 저버린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연일 계속되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과연 순수하게 국익적 차원에서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정략적인 요소는 개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일 계속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나 우리 여당으로서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다면 이러한 촛불시위는 오지 않았나 하는 데서 반성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야당의 이런 끈질긴 주장과 일부 촛불시위에 결국은 밀려서 쇠고기 협상을 재협상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신의상 불가하니까 우선 FTA를 우리 국회에서 비준해 놓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몇 가지 전제들을 우리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통상본부장께 묻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정 속에서 미측이 쇠고기 수입 검역절차에 대한 문제를 연계하고자 하는 요청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증인 김종훈 미측에서 협상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

리는 이것이 국민건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의 감축 문제는 다룰 수 있되 그것은 별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을 오늘 현재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본 위원이 작년 3월에 워싱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몇 분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미국 의회 측의 의견은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사실상 미국 의회에서의 비준 동의는 어렵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확신이랄까 이것을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쇠고기 협상과 FTA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고 사실상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후에 미국 의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외교통상부 유 장관께서도 미국 의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과거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도 찬성으로 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문제는 서로 양측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세간에서 지금 쇠고기 협의에 대해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한미FTA 협상과 이번 쇠고기 협의와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우선 사안의 성격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좀 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취득한 제 짧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뒤의 과학적인 논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지식의 배경이 있는 분야야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국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사례, 실정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마는 한미FTA에서의 관세 문제를 다루고 개방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검역의 문제는 그 본질상 이것이 굉장히 미세한 과학에 근거를 두고 다루는 그런 전문성 있는 협상이다, 따라서 그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전문가들이 동원된 그런 기

술 협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흥길 위원** 본 위원도 흡사한 생각입니다.

사실 쇠고기 협의는 통상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검역 절차에 관한 기술적 협의라고 봅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MOU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협상, 국가 간의 이것보다는 오히려 MOU 정도로 조금 격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TA와 쇠고기 문제가 분리가 되는 문제로, 통상의 문제이고 하나는 검역의 문제라고 명백히 구별을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혼동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게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게 부수적인 것인지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국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더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실 경제계에서는 쇠고기 문제로 한미FTA가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섬유업계는 한미FTA로 대미 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준이 되지 않으니까 신규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하소연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승용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기계 분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 검역 절차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한미 FTA 처리 지연의 핑계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략적 결정을 할 경우 우리 경제에 줄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종훈**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조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돌이켜 보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바로 지난 주말 이후에 열심히 그런 홍보 노력을 더 하자는 그런 정부 안의 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는 별도로, 조금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 마는 과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의 말씀, 그런 분들의 말을 조금 더 경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이 우리의 우려하고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번복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을 제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흥길 위원** 하여간 안타까운 것은 이 쇠고기 협상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잘 해결을 했으면 이러한 혼란이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정부 자체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또는 야당이라든가 또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상세한,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우리 권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가 파행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지금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님께 주로 질의가 집중되고 있고 또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주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증인으로 출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증인으로서 발언하는 것과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법적 책임의 문제도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청문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증인의 입장에서 발언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는 오후 회의를 우리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오전 회의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증인인지 또는 나아가서 참고인인지 하는 것이 규정되지 않고 발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답은 너무 명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지난번 청문회 일정 합의할 때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날짜를 확정해서 외교부장관의 증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속기록이나 또 중계가 되었으니까 국회방송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외통부장관을 증인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오늘 외통부장관이나 또는 김종훈 본부장의 답변을 들으면 여러 가지,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도 오히려 강화되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은 물론이고, 더욱더 강한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 증인이시고, 오늘 실제 모든 답변을 외통부장관이 하는데 그러면 외통부장관이 여기에서 증인으로 굳이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장관 입장에서도, 이명박정부 입장에서도 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전 회의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장관께서 여기에서 증인을 수락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부도 굳이 사소한, 내일 증인으로 채택되어 계시는데 오늘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는 권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청문회를 하는데 가장 주된 답변대상자는 증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의가 가지 않는 이런 기형적 상황은 국민 입장에서

나 또는 청문회의 본래 목적에서 훼손되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여기서 바로 수용하셔서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허락해 주신다면, 사실 소고기 문제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보고 때문에 나왔는데 그 기회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소고기 문제의 협상 주무부서의 장은 아닙니다.

○**최성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소고기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한미 FTA 비준동의 청문회를 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그 주무장관께서 증인을 하지 않겠다는 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소고기 질의로만 지금 한정이 되기 때문에……

○**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분께 하시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성 위원** 한미 FTA 청문회니까 그 부분들은 수용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부분은 의회,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유 장관님, 절차에 관한 것은 유 장관님이 지금 답변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제가 필요하면 유 장관님의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진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진영 위원** 그 문제는 지금 한 두세 시간 전, 오전에 이미 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합의한 대로, 원래 합의한 대로 진행하기로 다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권영길 위원님이 안 계셨는지는 몰라도, 다시 그것이 제기가 됐는데요. 내일 어차피 증인으로 나오시게 되어 있고, 오늘은 이 청문회가 FTA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김종훈 증인이 나와 있고 해서, 특히 소고기에 관해서 증인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일, 내일 다 장관들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질의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유명

환 외교부장관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합의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원웅**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님께서, 아침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문제를 마무리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 청문회 의결을 할 때 외교부장관 증인 채택 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그때의 속기록에, 외교부장관은 증인에 넣는 것으로 하되 둘째 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하고 그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화영 간사도 오늘 아침에 지금 최성 위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천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을 확인한 이후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증인 채택 여부는 권영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되고, 합의가 있을 경우에 또 본인이, 우리가 1주일 전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바로 지금 증인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간사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다음 단계인 유명환 장관에게의 동의 여부는 그래서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한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양당 간사들이 어떤 입장인가 하는 데 대해서만 여기에서 답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듣는 것으로 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영길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전은 제가 다 못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전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질의는 우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리고 간헐적으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한두 분에게만 질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도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외교통상부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장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기 앉아 계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뭐가 걸려 가지고 같은 답변하는데 증인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거부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만약 유 장관께서 증인으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민주당 한나라당 두 간사께서 해아려 주시고 우리 장관께서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웅 진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영 위원 증인으로 하느냐 그냥 장관으로서 답변하느냐에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지금 본질적인 소고기를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환 장관에 대한 질의는 그냥 장관으로서 성실히 답변을 할 것이고요, 증인 선서를 안 했다고 그래서 거짓말할 것은 아닐 테니까요.

합의한 사항을 자꾸 이렇게 뒤집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의한 대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 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할 게 있어서요, 간단하게.

○위원장 김원웅 저것 받고 나서 하시지요. 권영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본 위원의 제안에 한나라당 진영 간사께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고 위원장께서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지 않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선 선서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빼 주시고 다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시간 다시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외교통상 담당자들, 의회 지도

자들은 미국의 국익 즉 자국 축산농의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지렛대로 삼아서 쇠고기 협상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통상은 통상이고 검역은 검역이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미국산 쇠고기 한 점 들어오기 전에 이미 3명의 농민이 자살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조공외교에 건강권을 빼앗겼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께서 속 편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장도를 만나서 앞주머니에서 1만 원 빼앗기고 뒷주머니에서 1만 원 빼앗기면 1만 원씩 별도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닐 겁니까.

국민들은 하나로 보고 있는데 정부만 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유발 위험이 있는 뺏조각이 발견되는 등 미국 쪽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 장관, 그랬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뺏조각하고 위험하고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권영길 위원 아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뺏조각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 후 4월 11일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을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거론된 것이 미국이 사료사용 금지조치를 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강화라는 말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재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라는 것하고 용어에 있어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권영길 위원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장난을 하시고 계시면……

한미 양국이 서명한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에 따르면 미국이 사료 금지조치 강화에 대한 법규 제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2005년 미국의 강화된 사료사용 금지조치 입법예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길 위원 그런데 그 쇠고기 협상이 합의된 이후 농림부가 입법예고와 함께, 즉 입법예고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개정 입안예고입니다. 입안예고와 함께 설명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이해한 기준은 미국이 2005년 10월 입법예고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말한 마지막 단계를 2005년 입법예고로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예, 그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합의 이후에 농수산부가 이렇게…… 농수산부도 정부니까 발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말장난하다 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준의 차이가 오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시 묻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5년 입법예고한 것, 그다음에 2008년 4월 미국 관보에 된 것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길 위원 그 핵심적인 것은 2008년 4월 25일 미국 연방 관보와 2005년 10월 6일 미국 연방 관보에 실린 것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2005년은 도축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식용 부적합 처리되는 소가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체 전부에 대해서는 이를 동물사료로 줄 수 없다.' 핵심은 '동물사료로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8년 4월 25일 관보의 핵심은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30개월 미만의 소일지라도 뇌와 척수의 제거와 상관없이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05년은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2008년 관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관보의 차이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유는 설명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권영길 위원 아니,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오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오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 사실을 며칠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8년 4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것의 강화된 점은, BSE 양성인 소의 도체 전부를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은 강화된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OIE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아니요,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질의에만.

차이가 있다는 거 인정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만 국민……

○권영길 위원 아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제가 답변을 안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위원장께 요청을 하세요.

아까 2008년 부분과 2005년 부분의 차이점, 사료로 줄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잖아,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관보에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 합의되고 나서는 2005년 부분을 설명했다고 하고 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2005년 입법예고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아, 그것 알고 있었는데 오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실무 담당은 농수산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상세한 걸 알게 됐습니다.

○권영길 위원 외교통상부장관은 모든 통상을 관장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상에 관한 시장·수입 개방의 문제는 저희 부서가 담당이지만 이것은 검역에 관한 실무 기술적인 협의는 외교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관여를 안 하셨는데, 모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답변을 하시고 뭘 가지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아는……

○권영길 위원 알고 있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뭘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 그러면 저는 여기 있을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권영길 위원 불거진 다음에 알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 그러니까 묻는 대로만 답하세요.

2005년 입법예고와, 관보와 2008년의 부분에 관한 것에 차이가 있다, 핵심적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로 쓸 수 있다, 없다 이 차이를 합의되고 난 다음에 아셨습니까? 금방 그러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리고 나서 아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권영길 위원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협상하면서 그 후의 협상 과정에서도 일절 설명이 없었습니

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후에 알았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 후에 알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하면서 어쨌든…… 장관께서는 검역은 검역이고 통상은 통상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고, 이게 건강권을 팔아 넘기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모르고 계시고 합의된 다음에 아셨다면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우리 정부는 뭐 하는 정부입니까?

아까 장관께서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모르고 계시고 합의된 이후에 아셨다고 그러면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은 2005년 입법예고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즉 실제적으로는 2008년 연방관보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를 기망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속아 넘어간 겁니다. 기망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정에 의해서 다시 재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교적 기망이 있거나 착오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재협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해영증인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이해영 기본적으로 비엔나조약법에 따르면 의도적인 기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입증된 다면 충분히 이것은 원천무효화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길 위원 원천무효화되는 것이지요?

○증인 이해영 예.

○권영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천무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가 속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망한 겁니다.

당연히 5월 15일 농림부장관의 고시는 무기한 연기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책임자도 문책해야 합니다.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무능과 미국 정부의 거짓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임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그리고 우리 우석균 증인, 이대로 지금 실제적으로 실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증인 우석균 미국은 중추계 증상을 보이거나 기립 불능 소를 2004년 1월부터 식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도축 불가능한 소도 사료로 쓸 수 있다는 소를 식육에서 제외하였다라는 것은 그 소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동물성 사료로 주고 그것을 다시 인간이 먹게 됨으로써 2005년의 사료 조치보다 명백히 후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후퇴 조치로 인한 쇠고기의 위험성이 명백히 증가하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지만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전에 김종훈 증인께서는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모르고 있었다, 합의 이후에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증인 김종훈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권영길 위원 아니, 각자 다르기 때문에……

○증인 김종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

○권영길 위원 장관님,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증인 김종훈 장관께 물으시는 겁니까?

○권영길 위원 두 분 다 답변하십시오. 각자 답변이 다르거든요.

○증인 김종훈 그러면 저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권영길 위원 우선 오전에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증인 김종훈 2005년 10월에 그런 입법예고가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증인 김종훈 뭐라고요? 아니요, 제가 알았다는 것은 아까……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 보시면 2005년 10월은, 그것은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그런 입법예고가 있었던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2005년 10월에 냈던 그 조치에 대해서

미 축산업계가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효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 대신 돈은 엄청나게 든다는 그런 저항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이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강하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새롭게 내놓은 것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농림수산부에서 합의의 결과라고 발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서야 그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권영길 위원 관보의 2005년과 2008년의 차이점을 알고 계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증인 김종훈 그 차이점은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합의된 것은 합의되고서야 나온 겁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요.

○권영길 위원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는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 김종훈 아니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합의되기 전 것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외교부장관께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퇴장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의 해명을 들어야지요.

○위원장 김원웅 아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장관께서 우리 권영길 위원님의 상임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퇴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국민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좀 더 겸허한 자세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위원장 김원웅 그리고 자료 요구……

우리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장관님,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호중** 위원 그 당시 공식수행원, 비공식수행원은 필요 없고요, 공식수행원 명단을 오늘 중에……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서갑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갑원** 위원 서갑원입니다.

김중훈 본부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개별협상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GATT 20조에 대해서 수입이 중단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증인 김종훈** 예.

○**서갑원** 위원 그 사례들을 오늘 중으로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드리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정부가 ‘오역’ ‘사소한 실수’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잘 됐다’ ‘강화했다’ 이러는데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일인 줄 잘 알지요, 솔직히? 지금 오늘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왜냐하면 지난 4월 18일 농림수산물식품부가 낸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 합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의 사료 금지조치 강화 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겠다 해 가지고 조건부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 냈고 여기서 말하는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의 내용은 참고자료로 맨 뒤에다 붙여 냈어요.

거기에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어떤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어떻게 입법예고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의 내용인데 이것을 뻔히 놔두고 이걸 발표해 놓고 이제 강화됐다……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국민을 무시합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순간 여기서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게 이긴 겁니까? 그게 정부 각료입니까? 기분 나쁘면 나가겠다 이게 관료예요?

그다음에요, 어떻게 통상하고 검역하고 구분합니까?

그러면 이렇시다. 미국에서 죽은 쇠고기가 헤엄쳐 들어왔는데 바닷가에서 건져먹으면 그건 검역 문제예요. 그런데 쇠고기를 공짜로 줍니까? 사고팔고의 문제잖아요. 통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쇠고기 수입 문제가 검역의 문제입니까? 통상의 일환이고, 통상의 마지막 단계가 검역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미 쇠고기 문제는 2001년에 수입이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할 때까지 물경 20만t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이 생겼기 때문에 수입이 중단된 것이지 검역의 문제로는……

○**최재천** 위원 자, 들으세요. 증인으로 선서를 하든지 들으세요. 말하고 싶으면 증인선서 하세요.

한미 FTA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다 통상으로 포함을 시켰잖아요? 왜 쇠고기는 통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수입을 확대하는 게 왜 통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반증을 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문제된 것은 검역에 관한 기술적 협의의 문제라고……

○**최재천** 위원 검역에 대한 기술적 협의가 결국은 통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액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범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왜 이게 통상이 아닙니까? 말을 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재천** 위원 계속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그러니까 국민과 어긋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나라 주인이 누구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국제 기준이, 우리도 자유통상을 하는 국가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왜 GATT를 근거로 막습니까, 통상의 문제가 아니고 검역의 문제인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GATT 조항을 원용하게 되는 겁니다.

○**최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러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들이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쇠고기 검역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과 검역에 대한 권한을 차용했거나 대리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OIE 기준을 가지고도 캐나다산은 거부를 해요. 계속 협상하면서 미뤄요. 그런데 미국산은 딱 받아들여요.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거절해요. 협상의 상대방은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요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일 어업협정 때 쌍끌이는 재협상하러 쫓아갔어요, 빠졌다니까. 쌍끌이 재협상 아시지요? 협상하러 쫓아갔어요, 하도 국민들이 빗발치니까. 이걸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촛불시위에 든 아이들이 일본과 대만을 응원하고 있어요. 일본 잘해라, 대만 잘해라 그래요. 왜? 일본 대만이 잘해야 우리도 협상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은 안 들으니까. 우리 정부를 그렇게 응원해 주고, 그렇게 밀어 주고, 그렇게 성원해 줘도 “나 협상 못해, 나 미국 못 가, 미국 가면 맞아 죽어” 이런 식이에요. 마치 중국 축구가 공한중에 걸리듯이 대미 협상에 있어서는 이상한 공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요구는 거절하면서, 일본이 하면 하겠다…… 제발 국민들을 좀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는 이번 협상 실패의 책임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미 선결과제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공동책임이고, 두 번째는 한미정상회담이에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결과제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반분해야 될 책임이고,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급속하게 서두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굳이 따지면 25%는 참여정부 책임이고, 75%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라고 봅니다.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증인에게 물을게요.

통상교섭본부 직제령을 보면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통상교섭 및 그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실무조정회의 의장을 통상교섭본부장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번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이런 총괄조정기능과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상교섭본부장이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종훈 실무조정회의를 연 적은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실무조정회의를 연 적은 없고, 그러면 그런 회의의 형식 말고 별도로 고위급 정책조정회의를 연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종훈 한 번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한 번 있습니까? 몇 월 며칠 어디입니까?

○증인 김종훈 제 기억에 11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작년?

○증인 김종훈 예.

○최재천 위원 그러면 이 정권 들어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김종훈 이번 정권 들어서는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농림식품부가 알아서 한 일입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가 책임지면 끝나는 일입니까, 권한과 책임은?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외자가 관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슈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다시요.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총괄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못합니까?

○증인 김종훈 물론 이것이 나중에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자른다, 수입 중단조치를 한다 하면 그런 때는 충분히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MBC에도 제보가 되고 저한테도 제보가 된 문건이고 PD수첩에 나온 건데, 통상교섭본부장이 2008년 4월 7일 한미정상회담을 맞이해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웠고 “이것은 미 의회가 선결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OIE 기준에 따라 미산 쇠고기 수입 허용하자” 이런 문건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종훈 예,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있지요?

○증인 김종훈 예.

○최재천 위원 이것 인정하지요? 정상회담 의제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들었고, 방미 전에 쇠고기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고, OIE 기준에 따른 미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자, 만든 적 있지요?

○증인 김종훈 예, 그런데 그것이……

○최재천 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다음질의 때 하세요. 또 물을게요.

그런데 이 문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 김남기 외무관이 못 주겠다, 교섭본부장이 못 주게 했다 이렇게 오늘 낮에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종훈 그 요구를 정식으로 하셨습니까?

○최재천 위원 했습니다.

○증인 김종훈 어떤 경로로 하셨습니까?

○최재천 위원 청문회 위원으로 다시 선임이 돼서 서면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했어요.

○증인 김종훈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래서 안 졌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최재천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게 하십시오.

○최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정태인 증인께 좀 물을게요.

김종훈 본부장이 2006년 4월 24일날 국회 한미 FTA 첫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이 한미 FTA와 관련 있다는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적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기억하시지요? 김종훈 본부장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종훈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재천 위원 정부 문건 중에서 4대 선결조건, 쇠고기나 약가 적정화 방안이나 스크린쿼터나 이런 것들이 한미 FTA와 관련 있다는 그런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 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증인 김종훈 언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재천 위원 2006년 4월 24일.

○증인 김종훈 2006년 4월이요? 2년 전이네요?

○최재천 위원 기억 안 납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2년 전 날짜까지……

○최재천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때 찾아 드릴게요.

○증인 김종훈 다른 증인께서는 아마 그분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최재천 위원 다른 증인, 다른 속기록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증인 김종훈 예.

○최재천 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2006년 7월에 “실제로 정부 공문서에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으나” 이런 말을 했고, 2006년 8월 “선결조건이나, 4대 현안조건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FTA에 도움됐다” 이런 말 한 적도 있고, 김현종 당시 본부장은 2006년 7월에 “미국이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적도 있고, 저도 2007년 4월에 그렇게 기고한 적 있고, 2005년 9월에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자료로 선결요건이라는, 선결조건이라는 문서를 다 사용을 해 가지고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국정조사 때도 이야기됐고, 2005년 6월에 로버트 포트만 대표도 4대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 2006년 2월에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4대 선결조건에 대해서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도 없었다” 이런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선결조건이라는 문건이 공문서에도 있고, 전임 통상교섭본부장도 간접 시인했고, 대통령도 인정했고, 정부 공문서도 있고, 그때 김종훈 본부장은 이런 게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책임을 안 졌습니까?

○증인 김종훈 2006년 4월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최재천 위원 예.

○증인 김종훈 제가 협상수석대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 3월 2일입니다. 한 달 뒤 이야기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런데 그때 협상대표인 것은 맞지요?

○증인 김종훈 그때 대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아마 이런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것을 한 달 된 사람에게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그때 당시 판단에는 들은 적이 없

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최재천 위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한미 FTA와 관련이 있다는 게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증인 김중훈** 아마 그 뒤에, 이렇게 코트(quote)를 해 줘서 고마운데요, 그 뒤에 제가 했던 발언을 또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차차 이 업무가 파악이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는 ‘이런 이런 경위가 있었을 것이다’고 발언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제발 순간, 이 순간을 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최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이해봉 위원입니다.

우선 외교통상부장관한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각계에서 아시다시피 재협상이라든지 추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까라는 특히 쇠고기 파동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까지 떨어지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이런 아주 대단히 심각한 지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관료들의, 특히 농림수산부가 표적이 됩니까라는 이런 안이한 자세 이런 것이 한 가지, 한 요인이 되겠습니까라는 또 우리 정부 관료들이 지시에만 순응하는 이런 관습적인 태도 여기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서에 보면,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쇠고기

협상이 너무 성급하게 합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꼭 반드시 해야 될, ‘한미 FTA 처리 문제에 연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계가 되면서 아주 어렵게 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 의회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FTA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러면 또 말을 얹어 가지고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해 줄 의의가 있느냐, 의회는 의회대로 장악이 되어 있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민주당이 되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FTA 문제가 바로 쇠고기 걸림돌에 의해서 대단히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새 보면 인터넷 피담에 이어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이게 도대체 한미 FTA로 주제가 되어 있는지 쇠고기 문제로 주제가 되어 있는지 이게 완전히 전도가 되어 있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쇠고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금년 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국에서 통과될 것이냐, 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비판들이 많이 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위에 나서고 있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소위 반미 시위에 기반을 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모습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까라는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문제의식을 더 가지고…… 물론 그 부분은 아주 극소수고 부분적으로는 반미 시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실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5월 15일 날 확정고시 해 버리면, 발효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보다도 더 아주 고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감당을 해 낼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정부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GATT 20조를 인정한다는 이야기하고 한승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이 그 말을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달이 됐고 이렇게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 추가 협상을 해라 하는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해서 쇠고기 문제도 해결되고 또 FTA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반론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해 주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쇠고기협상 이후에 국민 홍보에서 좀 미흡했다는 점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마치 괴담 수준의 비슷한 그런 잘못된 것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당장 먹으면 죽는다든가 무슨 청산가리보다도 못하다든가 광우병이 마치 전염병인 것 같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전염병이 맞습니다마는 한 소가 걸리면 옆의 소가 따라서 걸리는 이런 식으로 AI 같은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무 부처인 농수산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이 문제가 쇠고기 문제하고 한미 FTA를 연계해야 된다, 이런 외교통상부 1월달 보고가 있었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빨리 협상을 하라 이런 축구의 이야기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농수산부에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외교부 입장으로서 이것이 오랜 현안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대외무역에 우리 GDP의 거의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자유무역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 오랜 한미 간의 통상현안인 쇠고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김종훈 본부장,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2일 날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부위, 모든 연령을 다 받아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GATT 20조, GATT 20조가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라고 그러니까, 농림수산부가 몰랐죠? 우리 김종훈 본부장이 외교전문가로서 자문해 준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증인 김종훈 그건 외교부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해봉 위원 제시해 줬죠?

○증인 김종훈 예.

○이해봉 위원 그런데 이걸 농림부장관 보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이게 외교부뿐만 아니고 이런 큰 협상을 하는 부처라면 특히 농림부도 외국하고 관계가 많습시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도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그게 전문성 문제에서도 벌써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위에서 지시하기 전에 누가 촉구하기 전에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꼭 누가 지시가 떨어져야 사람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내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김종훈 본부장이 그걸 자문해 준 게 맞다 이런 이야기죠?

○증인 김종훈 예, 자문을 했고요, 농림수산물부에서도 그것 외에도 SPS에도 그런 규정이 있다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항이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해봉 위원 그런데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를 안심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GATT 20조 인정한다 또 그리고 한승수 총리의 국민대담 그 문제에 대해서 수용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까지도 이야기에 같이 나섰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 대표부 대표 이 사람 말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쇠고기 수입조치에 대해서 중단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지 그로 인해서 무역보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이 양반이 지금 아직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인

데 쇠고기 문제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우선은 쇠고기 수입 중단한다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무역 보복이라든지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예.

○**이해봉 위원** 그러면 우리와 같이 무역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만약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정부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쇠고기 문제 하나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무역적자라든지 무역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종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GATT 20조를 원용해서 어떤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는 있는 것으로 그 당 위성은 다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측도 인정을 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발동된 예외적인 조치가 합당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문에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분쟁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예외조치가 원용이 돼서 발동이 됐을 때 발동이 끝까지 가기 전에 어떤 협의로써 해결된 사례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 해결로 갔던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한 10건 정도가 90년 이래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미국이 전 부위를 받으라고 할 때 제가 답변을 통해서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미 측이 올 컷츠 올 에이지(all cuts all age)라고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아무리 올 컷츠 올 에이지지만 위해물질은, 위해 부분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까지도 넣어 가지고 올 컷츠 올 에이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장관과 본부장께 집중되는데 특히 이 쇠고기 협상 문

제가 통상 문제나 위생검역 문제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입장은 이것이 통상 문제가 아니라 위생검역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또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것이 통상 문제가 아니고 위생검역만이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정부가, 특히 이번 문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된 외국과의 협약이 단순히 장관의 고시로만 효력이 발휘되는 이런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이 안 되고 또 헌법 제60조와도 이게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태인 증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전문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증인 정태인** 예.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령 그렇다면 WTO의 SPS 협정(위생검역 협정)은 통상교섭본부의 권한 밖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미 FTA 협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협정문에도 645페이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위원회, 국제수역사 무국……

○**위원장 김원웅** 마이크를 가깝게 줘 해 주세요.

○**증인 정태인** 모두 이 한미 FTA 협정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단순히 농수산식품부의 문제이고 그것을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장관이 몰랐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석운 증인, 뭐 입장 있습니까?

○**증인 박석운** 예, 그 문제와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외교부장관께서는 아마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밝혀져야 재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

MOU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한미 FTA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4월 2일 날 타결되고 나서 미국에서 재협상 요구해 가지고 재협상 했지요? 한미 FTA도 타결되고 나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재협상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보다 더 하위인 MOU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조약도 재협상을 했는데 MOU에 불과한 그런 위생검역협정을 재협상을 못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바로 작년에 FTA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 말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종훈 작년 이야기라 분명히, 기억이 아직 새롭습니다. 4월 2일 날 내용을 실질적으로 타결하고 6월 말에 서명하기 전까지 노동·환경 챗터에 대해서 새롭게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 서명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협상이 되고서야 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술적 이유로 따진다면 이번 것은 좀 수위가 낮은 양측 간의 합의긴 합니다마는 기왕에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사항입니다. 이미 서명이 되어서 그것으로써 법적으로 완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때도 재협상했으니 이번에도 하자, 그건 조금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증인 박석운 당시에 협정문 초안에 서명했었던 거든요, 4월 2일날. 서명한 것에 대해서 재협상을 했고요. 그때도 노동·환경만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 투자자의 권리가 미국 투자자의 권리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도 들어갔고요. 영토 조항도 변경이 있었고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재협상을 했고, 그 당시에 아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또 통상교섭수석대표께서도 재협상은 없다라고 수차례 4월 초에 공언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그 뒤에 가서 다 재협상 했거든요. 위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지금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종훈 지금 다른 증인께서 발언권 없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발언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이렇게 하지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지금 증인들끼리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앞으로는 증인들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증인 김종훈 예.

○김재운 위원 4월 2일 협정문 초안에 서명하셨습니다?

○증인 김종훈 작년 이야기시지요?

○김재운 위원 예, 작년입니다.

○증인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협정문 초안에 서명? 서명은 아닙니다.

○김재운 위원 서명 안 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서명은 6월 30일 했지요.

○김재운 위원 그전에 초안에 서명 안 했나요?

○증인 김종훈 초안에 이니셜이라는 게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없었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 했지요, 서명하기 전에?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협상하고 난 다음에 서명했지요?

○증인 김종훈 예.

○김재운 위원 거기에 쇠고기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쇠고기는 관세는 이미 그전에 들어가 있지요. 관세 40%를 15년 동안에……

○김재운 위원 그 협상 안에 쇠고기도 포함돼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협상한 것은 재협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쇠고기 협상 재협상입니까, 아닙니까? 6월 30일날 한미 FTA에 서명 다 해서 끝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예.

○김재운 위원 이것 대통령이 가 가지고 새로운 내용을 변경한 거지요, 맞지요?

○증인 김종훈 지금……

○김재운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지요.



○증인 김종훈 아니, 아니요. 다릅니다.

○김재윤 위원 어떻습니까?

○증인 김종훈 지금 질문의 취지가 지난번에 6월 30일 서명을 하고 다 끝난 것을 이번에 왜 또 했냐, 이렇게 들리는데요. 지난번 6월 30일 서명할 때 쇠고기 검역 문제를 다음에 처리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경우는……

○증인 김종훈 쇠고기에 대해서는……

○김재윤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부장님. 없는 경우는 협상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새로 가 가지고 새로운 협상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재협상인 겁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우리 미국 쇠고기 물밑듯이 들어오지요? 미국 쇠고기, 쇠고기 물밑듯이 우리 들어오잖아요, 수입하죠?

○증인 김종훈 2003년에 20만t 들어왔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미국 쇠고기 우리나라에 수입되지요?

○증인 김종훈 지금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앞으로 들어오겠……

○김재윤 위원 우리나라 쇠고기 미국에 수출됩니까?

○증인 김종훈 이번에 한우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근거 뭐, 마련한 게 뭐가 있나요? 근거 제출하세요.

○증인 김종훈 그것…… 예, 그건 농림부에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윤 위원 안 돼요.

미국 오렌지 수입하지요?

○증인 김종훈 수입하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미국 오렌지 수입 지금도 하고 있어요, 관세만 낮추는 거지.

○증인 김종훈 예.

○김재윤 위원 아니, 통상본부장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증인 김종훈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요.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요, 수입한…… 제주도 감귤 미국에 수출됩니까?

○증인 김종훈 제주도 감귤, 일정 부분 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수출 안 되지요. 어떻게 통상본부장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증인 김종훈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김재윤 위원 안 돼요.

○증인 김종훈 안 되는 이유가 저쪽에서 막아서 그런가요?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요 미국 쇠고기 수입되고 우리나라 쇠고기 수출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오렌지 수입되고 우리 제주도 감귤 수출 안 됩니다. 미국……

○증인 김종훈 우리 제주도 감귤이 다른……

○김재윤 위원 잠깐만요.

○증인 김종훈 미국 주 중에 일정 부분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증인 김종훈 알래스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배종하 증인 맞나요?

○증인 배종하 예, 지금 알래스카……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배종하 전역에는……

○김재윤 위원 한 특정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전체…… 미국 쇠고기가 그러면 제주도에만 들어옵니까? 미국 쇠고기 제주도만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알래스카주만 가지고,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증인 김종훈 김 위원님……

○김재윤 위원 본부장님, 얘기 들으세요. 미국 반덤핑 제도 개선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김종훈 어떤 병이요?

○김재윤 위원 미국의 반덤핑 제도 개선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지요?

○증인 김종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김재윤 위원 현재는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증인 김종훈 발효가 되……

○김재윤 위원 안 이루어진 것만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종훈 발효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김재윤 위원 자동차 재협상하자고 하면 응할 겁니까?

○증인 김종훈 응하지 않을 겁니다.

○김재윤 위원 우석균 증인에게 물겠습니다.

정부가 가끔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다 그러는

데 광우병, 전염병이 아닙니까?

○**증인 우석균** 광우병은 정부가 지정한 지정 전염병입니다.

○**김재윤 위원** 전염병 맞지요?

○**증인 우석균** 예.

○**김재윤 위원** 미국의 검역 시스템, 어떻습니까? 믿을 만합니까?

○**증인 우석균**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는 캘리포니아 리콜 사태에서 보이듯이 도축 소, 기립불능 소를 도축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대로 도축해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1년 수입량의 3분의 1 정도가 리콜되는, 즉 6만t 이상이 리콜되는 정도로 도축 시스템에……

○**김재윤 위원** 문제가 많지요?

○**증인 우석균** 문제가 많습니다.

○**김재윤 위원** 우리 정부가 광우병 발병률 1억분의 1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정말 걱정 없습니까?

○**증인 우석균** 1억분의 1이라는 것도 사실은 미국 측 주장이고요, 그런 확률론에 의해서 건강, 방지할 수 있는 위험을 확률론에 의해서 방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전 예방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자, 들어 보십시오.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먼저 미국 쇠고기 먹겠다’ 이것 부시 대통령 발언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증인 우석균** 예.

○**김재윤 위원** 부시 대통령이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발언입니다.

‘세계인이 즐겨 먹는 미국 쇠고기’ 이것 미국 정부에서 광고한 거겠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겁니다.

납득이 갑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 고등학생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지도 않았는데 피해는 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합니까? 0교시로 아침 굶기려던 사람이 점심·저녁까지 굶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SBS에서의 인터넷 설문 내용 들어 볼까요?

“전 3일 있으면 호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가족, 친구들 불

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때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투표에 이제 우리 국민들 피눈물 흘릴 겁니다.”

자, 다른 한 분 또……

“국민들 건강 걱정된다면 당연히 협상 무효 시켜야겠죠.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국민들 설득하려고 진땀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보면서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 끝까지 우습게 보이십니까? 국민들 보호해 주겠다고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생하게 되면 그 도축장이나 의심 소 벌써 우리 식탁에 들어왔을 텐데 정말로 한국에서 광우병 걸린 사람 나와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저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제발 재협상해 주세요.”

자, 오늘 석간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 보십시오, 이거.

‘쇠고기 협상 잘못된 협상이다’ 국민의 84.2%, ‘쇠고기 재협상 필요하다’ 국민의 84.9%, ‘장관고시 연기해야 한다’ 81.2%, ‘미국 소 안전하지 않다’ 75.2%……

장관님! 재협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의 책임자 누구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위원님께서……

○**김재윤 위원** 국민이 이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장관님은 미국 장관 아니시잖아요?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아니시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지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사료 금지조치, 이것 완전 오역이 오점 남기고 오욕을 낳은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관련 문답 자료, 우리 정부가 잘못했지요?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오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모르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

○**김재윤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의 사료용으로 사용 금지해 사료에 의한 광우병 추가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 4월 25일자 연방관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관님?

이미 도축 검사에 불합격한 소도 30개월 미만의 소는 또 광우병 걸린 의심이 되는 소라 할지라도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결국 도착하면 차단할 수 없지요?

장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질의가 나와서……

○김재윤 위원 지금 청와대가 사과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세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 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미국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협상은 무효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정부가 알고 있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제대로 해석 못 하는데 이 FTA 방만한 자료, 제대로 번역이나 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제대로 번역하셨나요?

○증인 **김종훈** 예. 그것 한 3000페이지 되는 것, 국·영문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하드카피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뭐 특별히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번에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에 관련해서 변경된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증인 **김종훈** 분명히 강화가 됐습니다.

○김재윤 위원 예?

○증인 **김종훈** 분명히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김재윤 위원 뭐가 강화가 된 겁니까? 뭐가 강화가 된 겁니까?

이것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왜곡하세요?

○증인 **김종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재윤 위원 그러면 지금 30개월 미만의 소 광우병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도축검사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동물성 사료로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김종훈** 김 위원님, 사실을 좀 알고 이야

기해 주시면 저도 참 답변하기가 좋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저 알고 있어요, 잘 압니다! 본부장님 못지않게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하고 싶은 것,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증인 **김종훈** 아니, 제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 대신 하십니까?

○김재윤 위원 제 말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해 보세요.

○증인 **김종훈** 강화되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어떻게 강화되었어요?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종훈** 지금 말씀이 BSE 우려되는 소도 쥐도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번에 발표된 4월 25일 관보의 제1번이 BSE 양성인 소는 도축 전부가 살코기든 뼈든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윤 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증인 **김종훈** 아, 보십시오!

○김재윤 위원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종훈** 어휴……

○김재윤 위원 그런데 왜 청와대가 사과합니까? 청와대가 사과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종훈** 그러니까요, 같은 말이라도……

○김재윤 위원 청와대는 사과를 하고 본부장님은 BSE가 강화되었다고 하시는 거지요? 청와대가 잘못된 겁니까? 청와대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러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 안 한 거예요?

○증인 **김종훈** 제가 강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반추에서 반추로 넘어가는 것이 간접적으로 가는 것도 금지가 되니까 분명히 강화되었다는 것이지요.

○김재윤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증인 **김종훈** 예.

○김재윤 위원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간접적이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돼지나 닭고기를 갈아서 소에게 먹이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쇠고기는

소에게 못 먹이게 하는 거지요. 다만 광우병 걸린 소를 쇠고기를 갈아 가지고 소나 돼지에게 먹이로 쓰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아, 김 위원님!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잘 들어 보세요!

○증인 김종훈 광우병에 양성인 소는 도체 전체를 먹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잘 들어 보세요! 30개월 미만의 소……

○증인 김종훈 (뒤를 돌아보며)

그 자료 좀 갖다 드려요.

○김재윤 위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 김종훈 한번 봅시다.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기에 그렇게 자료가……

○김재윤 위원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쇠고기를 광우병이 의심되거나 검역에 실패한 소를 갈아 가지고……

○증인 김종훈 알겠습니다, 무슨 오해가 계신지. 광우병에 걸린 소나 도축에 불합격한 소 이렇게 지금 혼동을 하시는데요.

○김재윤 위원 광우병 소라고 했나요?

○증인 김종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잘 들어 보세요, 제 말을.

검역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광우병 의심되는 소라 할지라도 30개월 미만의 소는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돼지라든가 닭에게 줄 수 있게 한 거예요. 인정하지요?

○증인 김종훈 아, 이제야 좀 파악을……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게요.

답변할까요?

○김재윤 위원 하세요. 제대로 질의한 요지를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증인 김종훈 지금 속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장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김재윤 위원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의심이 되는 소, 그리고 검역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종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광우병에 걸렸지 안 걸렸지 조사를 하면 양성 반응이나 음성 반응이나 이겁니다. 양성이나 오면 무조건 못 씁니다. 못 쓰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도축에서 불합격한 소, 그것은 또 정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소 등등 해 가지고요. 그것은 OIE에서 새롭게 위험통제국에 준 그 유해물질 그대로 뇌·척수는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괜찮다, 30개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증인 김종훈 아니, 자꾸 광우병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지요.

○김재윤 위원 광우병 걸리면 당연히 폐기처분하지요.

○증인 김종훈 예. 그러면 뭐 지금 이야기가 됐네요.

○김재윤 위원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내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야지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러면 두 번째 질의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축소가 되었느냐, 이게 예고가 될 때는 2005년 지금부터 2년 전 이야기고요, 1년 전에 그것보다 더 최근에 통제국가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범위가 줄어든 겁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OIE가 권고한 것보다도 더 미국이 완화 조치한 거예요.

○증인 김종훈 김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도요 반추동물에서 반추동물로 가는 것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은 그것으로 부족하니 반추에서 비반추로 가는 것도 막아라……

○김재윤 위원 잠깐만요, 대한민국 한우가 광우병 걸렸습니까?

○증인 김종훈 아직 없지요.

○김재윤 위원 대한민국 한우가 광우병 걸렸나고요.

○증인 김종훈 아직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미국은 광우병 걸렸잖아요.

○증인 김종훈 예, 1억 마리 중에 두 마리 있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요. 왜 우리나라랑 비교합니까?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맞습니까?

○**증인 김종훈** 맞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꾸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요. 우리나라 한우 소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증인 김종훈** 저한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지요.

○**김재윤 위원** 제대로 하세요.

○**증인 김종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우리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어도 지금 수출을 못하잖아요?

○**증인 김종훈** 청정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재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배종하 실장님, 안 되어 있나요?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증인 배종하** ……

○**김재윤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나요? 본부장님!

○**위원장 김원웅** 김재윤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증인 김종훈** 대한민국은 지금 OIE에서의 지위가 언디터민드(undetermined)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종훈 본부장도 회의진행을 하는 데에 좀……

지금 우리 김재윤 위원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또 김종훈 본부장의 답변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실장이신 우리 배종하 증인과 또 보건의료연합의 정책실장이신 우리 우석균 증인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배종하 실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배종하** 제가 이 쇠고기 협상에서는 저는 지금 현재 수산정책실장으로 있고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은 대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사료 금지 강화조치 문제는 현재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행 중인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2005년에 입안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계의 반대가 워낙 심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우리 배종하 실장, 압축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미국 정부의 지금 새로운 조치가 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됐느냐, 약화하는 방향으로 됐느냐 하는 입장과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수입하기로 한 그런 협약의 내용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쇠고기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두 가지만 압축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화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좀 추가해서요……

○**위원장 김원웅** 예.

○**이화영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쟁점이 사람의 식용을 위한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라도 30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뇌와 척수마저도 동물사료로 그거 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 강화된 겁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해석을 두 증인께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김종훈 본부장님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증인 배종하** 그 부분은 현재는 없는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이 이행하고 있는 조치보다는 강화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2005년에 입안예고하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조치보다는 그 부분은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행하고 있는 조치보다는 강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위원장 김원웅** 그다음에 우석균 실장!

○**증인 우석균** 2003년 12월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2004년 1월에 미국에서 다운너(downer) 밴(ban)이라고 기립 불능 소나 중추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광우병 고위험 소를 식육에서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육에서 배제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30개월 미만이든 그 이상이든 간에 위험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2005년에 발표한 사료 제한조치에서는 30개월 미만이라도 주저앉는 소라도 이런 도축 불가능 소는 사료로 주지 말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다시 입법예고한 조치는 이런 도축 불가능 소나 주저앉는 소라도 사료로 줄 수 있다는 조치이기 때문에 2005년 조치보다는 완화된 조치임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OIE 권고를 말씀하시는데 OIE 권고사항은 사료에서 모든 SRM을 제거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OIE 권고사항보다 미국의 이번 사료조치는 매우 모자란 조치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박진 위원입니다.

오늘은 FTA 대책 청문회를 하는 날인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미래가 달린 FTA 대책을 위해서 청문회를 우리 야당이 주장을 해서 개최를 했는데, 물론 그동안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이 완화된 것이냐, 강화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강화된 면도 있고 또 완화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원본을 보니까요, 4월 25일에 나왔다고 하는 그 예고된 내용 원본을 보니까 아까 김종훈 본부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광우병, 말하자면 BSE의 양성으로 판정이 된 소의 도체에 대해서는, 일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동물에게 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볼 때에는 기존의 입장에서 강화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종훈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종훈** 전에 입안예고 됐을 때는 딱 부러지게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게 딱 부러지게 들어갔기 때문에 보다 명쾌하고 강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그전에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또 도축검사 중 생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소의 뇌와 척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BSE의 양성인 소의 도체의 전부’, 이것은 신설된 거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그런 의미에서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월령이 30개월이

안 되는 소의 경우에는 ‘이것은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사료로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들어갔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그것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 그 부분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05년 10월에는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되고 미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OIE에서 미국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던 그때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굉장히 강한 조치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2007년 5월에, 이게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는 지위를 받은 것이 바로 작년이었고 그사이에 그러면 지위가 격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30개월의 뇌와 척수,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SRM의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진 위원** 예.

○**증인 김종훈** 따라서 이것은 동물의 사료로 공해도 좋다는 것이 OIE의 판단……

○**박진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우병 양성소의 도체 전부를 사료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신설된 조항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고, 지금 30개월 미만의 뇌와 척수는 특정위험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서 완화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요, 하나를 제가 꼭 덧붙이고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강화’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반추동물에서 반추동물로 가는 그 조치로서 끝이 아니고 간접경로로 가는 것도 막겠다는 그 자체가 강화된 것입니다.

○**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와 척수는 애당초 특정위험물질이 아니었습니까? 소위 SRM의 범주에 처음서부터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이것은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더라는 판단을 식약청에서 한 것입니까?

○**증인 김종훈** OIE의 기준에 위험통제국가가 제거해야 될 위험물질, SRM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 30개월 미만에는 두 가지입니다, 편도와 회장원위부. 따라서 반대해석을 하면 뇌와 척수는 위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진 위원 그렇다면 OIE 기준상에, OIE가 권고한 내용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그것은 편도와 회장원위부의 경우에는 특정위험물질이지만 뇌와 척수의 경우에는 30개월 미만일지라도 SRM에 집어넣을 수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증인 김종훈 예.

○박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자꾸만 논란만 계속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고 또 미국 내 쇠고기 생산이나 도축이나 또 유통이나 소비 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FTA도 물론입니다마는 부연해서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장 재협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뢰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신중하게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은 쇠고기의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검역주권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

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습니다.

○박진 위원 이번에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대표가, 어젠가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하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광우병이 발생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 우리가 전수검사를 하고 또 검역관을 파견하고 또 위험이 있을 경우 수입 중단한다는 내용을 국무총리께서 담화를 발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미 측도 그것을 수용하고 지지한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어떤 식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역주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USTR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미국 쇠고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은 당연한 주권적인 권리의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그다음에 미국의 FTA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를 연내에 비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 미국의 대선일정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의 입장 또 하원 지도부의 입장 이것이 다 지금 상당히 어렵고 부정적인 입장들입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도 반대를 하고 있고 경기도 침체되고 있어서 연내 한미 FTA 비준 동의는 미국 의회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이 안 하는데 왜 우리

가 먼저 하느냐 이런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미 FTA 협정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대선정국과 관련해서 민주당 양 후보가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곧 후보가 결정되면 국가 전체이익에서 보기 때문에 많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FTA로 이익을 보는 제조업 쪽의 많은 쪽에서 또 상공회의소가 적극적으로 지지성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국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 부시 대통령이 확약을 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김종훈 본부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수입재개 합의를 하셨는데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가 어떤 쇠고기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종훈** 30개월 이상, 미만을 맛으로나 이런 것으로 구분할 만큼 저는 그런 미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윤호중 위원** 대개 미국인들은 95% 이상 20개월 미만된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려져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된 소라는 것은 대개 젓소나 육우의 암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13~14개월 정도 된 소부터 암소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두 번 새끼를 낳으면 한 3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종훈** 예.

○**윤호중 위원** 그리고 그렇게 새끼를 낳는 암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를 미국에서는 20개월 미만에 다 도축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그 퍼센티지는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윤호중 위원**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미국에 있는 약 1억 두 정도의 소 중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가 약 3000만 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증인 김종훈** 예.

○**윤호중 위원** 지금까지 그 3000만 두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해 왔습니까?

○**증인 김종훈** 식용으로도 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호중 위원** 식용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실제로 사료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강화된 사료조치나, 완화된 사료조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료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가 바로 30개월 이상된 암컷 소, 이런 소들이 주로 30개월 이상된 소입니다. 물론 종우도 있어요. 수컷 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암컷 소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자신들은 먹지도 않고 실제로 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소를 우리가 지금 식용으로 수입해서 먹겠다는 그런 합의를 하신 거 알고 있지요?

○**증인 김종훈** 글썽요, 도축검사에 합격이 되면 그 30개월 이상도 식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30개월 미만보다는 많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은……

○**윤호중 위원** 30개월 미만 된 소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해 들이면 미국 내의 소비 물량이 달립니다.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소가 그런 것이고 도축 현장에서는 실제로 30개월 이상 된 국내 젓소들, 암컷 젓소들이 전기충격에 의해 가지고 근육을 해체해 가지고 연한 소고기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미국의 30개월 이상 된 소, 아무리 도축 과정에서 검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던 소를 갖다가 우리가 갖다가 먹겠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값 싸고 질 좋은 소를 우리가 수입하는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료용 쇠고기를 수입 협상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값 싸고 질 좋은 소고기 먹게 됐다고 이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답변을 원하십니까?

○**윤호중 위원** 답변할 게 없으시겠지요.

○**증인 김종훈** 할 게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김종훈** 상당히 언성을 높이고 하시는데요, 미국의 여러 가지 검역시스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알고 계신 듯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보다 더 앞서 가지고 국내용과 수출용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포장에 수출용이 될 때……

○**윤호중 위원** 30개월 이상 된 것은 국내용으로 거의 소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자, 됐고요.

유명환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했지요?

유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윤호중 위원**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측의 요구였지요? 희망한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윤호중 위원** 2월 25일날 받으셨지요? 대통령 취임식 하던 날.

라이스 장관이 특사로 와서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유 장관, 당시의 내정자입니다. 후보자 자격으로 두 분이 면담하신 사실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있습니다.

그 전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결정돼서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라이스 특사가 취임 축하방문을, 축하차 한국을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접견을 하는 그 시점에 미국 국무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이스 장관이 와서, 그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했던 유

장관께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제안한 사실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한미 관계를 위해서 매우 좋았던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위로 어떻게 전달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윤호중 위원** 후보자 시절도 취임 전에 해당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예.

유 장관께서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하고 2월 25일 첫 회동 이후에 워싱턴으로 가서 3월 26일 날 정상회담 의제조율 등 방미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 사실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 자리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비롯해서 그 회담의 전제조건이 될 만한 FTA 상호 비준 문제와 또 쇠고기 협상에 관한 사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FTA가 중요하다는 점은 얘기했습니다만 쇠고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주요 양국 간의 FTA 비준 문제에 있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 쪽에서는 물론 그 얘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윤호중 위원** 미국 측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윤호중 위원**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윤호중 위원** 귀국 후에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직접 대면보고는 안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라이스 장관은 ‘한국보다 더 좋은 우방은 없다.’ 최상의 관계를 자랑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거하고 쇠고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쇠고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면 전략적 동맹 관계를 논의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전략적 동맹 관계가, 미친 쇠고기도 같이 먹는 게 전략적 동맹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민을 오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 국내에서도 오래 살았습니다만 연령을 구분해서 수퍼마켓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브랜드를 위해서 그렇게 표시하는……

○**윤호중 위원** 연령 표시가 안 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30개월 이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윤호중 위원**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돼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 국내에 소비하는 것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소비하게 될 쇠고기와 미국 수퍼마켓에서 구입하는 쇠고기가 똑같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연령을 표시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어느 도축업자는 판매, 브랜드 네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할지는 몰라도 일반 대중이 소비하는 쇠고기는 연령 표시를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4월 17일 자정 워싱턴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심야 대책 회의가 있었지요?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대책 회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해서 매일 저녁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날 일정과 회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회담을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날 따라 길어져서 한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회의가 길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이, 지금 증인 입장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답변을 하신

다고 거짓 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증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쇠고기 협상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협상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윤호중 위원** 보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하는 기술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 쇠고기 협상을 농수산부, 그것도 7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상 대표들한테 전부 위임했다 말씀이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세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저는 지금 유 장관의 답변이 대단히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과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검역 위생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그렇게 값싸게 그것을 갖다가 주고 뭘 했다는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호중 위원** 여기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위급 기술협의 결과보고’라는 3장짜리 문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협상에 임했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에게 이메일로 4월 18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30분에 최초로 보고한 문건이예요. 왜 청와대에다가 이 보고를 합니까? 민동석 정책관은 당연히 협상을 마치면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또 더 할 것이 있으면 여기 증인으로 참석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협상 타결해서 사인한 것도 아니고 ‘입장 조율이 끝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왜 청와대에다가 먼저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건의 존재를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 문건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이것이 바로 워싱턴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 상공 회의소 CEO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을 자랑하고 박수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결과를 보고받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윤호중 위원** 이것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보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청와대에다가 제일 먼저 보고하고 그리고 이것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이 중요한 통상 현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그렇게 중요한 통상 현안이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김종훈 증인!

○**증인 김종훈** 예.

○**윤호중 위원** 조금 아까 통상과 관련 없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유명환 장관은 주요 통상 현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이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통상 현안이지만 어떤 조건으로 타결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개인으로 그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여서 질의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훈 증인,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언성을 높이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엄정하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재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조금 전에 윤호중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미국 슈퍼마켓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거기서도 다 먹으니까 우리도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관료가, 미국의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먹으니까 미국 사람도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이런 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님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책임 있는 분들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이시고 그래서 국적 있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데 허락해 주시면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마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100% 수출만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이번 청문회는 한미 FTA 국회 기준을 앞두고 협상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인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파악을 위한 청문회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서 중국과 일본의 신밀월시대를 여는 등 우리의 주변국들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협력 증진에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 FTA 발효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먼저 기준을 마련해야 한미 FTA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가 기준에 나서도록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한미 FTA 협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와 함께 협상에 관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수치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통일외통위원회에서 18회, 한미FTA특위에서 28회, 청문회 3회 등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의 한미 FTA 관련 속기록만 검토해 본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은 족히 걸릴 정도로 17대 국회는 한미 FTA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18대에서 이를 다시 처음부터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력의 엄청난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18대 국회 초기에 원 구성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실기하게 되면 한미 FTA가 장기지체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비준이 1년 지연될 때에 15조 2000억 원의 기회비용 상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계는 비준의 지연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데 우려를 현재 한참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대미 시장에서 수익률 1, 2%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한미 FTA를 비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TPA상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 이행법안 통과로 모든 입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반면에 우리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나서도 이행 관련법들을 별도로 제·개정해야 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입법적 조치가 완료되는 데는 추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처리하면 미 의회가 처리 지연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님과 최병일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고 추가 답변할 게 있으면 최병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협상 논란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하는 것 하고요.

질의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17대 국회에서 비준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 전망에 대해서, 한국 측은 우리가 잘 전망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국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 여지와 또 미 의회의 비준 처리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한미 간의 FTA가 실패했을 때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충분히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증인 김종훈 우선 우리가 먼저 비준 동의를 처리를 하면 재협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는 저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오픈된 상태로 유동적인 상태로 둔다면 상대방에서 이것이 결말이 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느끼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측이 먼저 비준 동의를 끝내는 것이 지금 미국 의회 일각에서 나오는 자동차다 이런 부분의 재협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질의하신 가설적인 상정이 되겠습니까 마는 이게 결국 안 될 경우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의이신데요. 일단 부정적인 효과는,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공히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설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꼭 연내에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만약 안 될 경우에 최소한 우리로서 해야 될 것은 우선 첫째, 우리 경제계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경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러한 것이 기회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둘째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 측과의 공정한 경쟁, 균등한 경쟁 이런 것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FTA…… 좋은 예가 EU가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나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상에

상당한 정도의 모멘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나타날 경우에 결국 우리가 성장동력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해외시장에서의 우리의 지속적인 점유율이 하락이 되고 또 국내 내수는 특별히 이렇다 하게 촉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막연하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교역의 확장 또 시장의 개방 그것을 통한 투자유입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장동력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될 걸로 보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의 차질이 초래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대한상에서 상당한 정도의, 액수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라는 아마 상당히 큰 정도의 기회비용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다음 미 측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할 때 꼭 우리 시장만을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북아 전체,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 이런 쪽의 튼튼한 교두보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런 것에 차질이 있다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이런 것에 큰 손상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꼭 연내에 비준 동의가 양국 공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자는 강한 의지가 적어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서로 표명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金武星 委員** 최병일 증인.

○**증인 최병일**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17대 국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재협상 논의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 한미 FTA가 작년 4월 2일에 타결되고 나서 금방 나온 이야기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소고기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오늘 오전에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자동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고기를 한미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라는 여전히 미국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자동차 문제 재협상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비준을 매듭 짓지 못한다면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 두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재협상 논의를 상당 부분 안고 가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17대 국회에서 비준을 할 수 있다면 재협상 논의를 상당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7대 국회가 비준에 실패하는 경우에 미국의 재협상 논의 또 미국 의회에서 비준 논의가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마 소고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FTA와는 굉장히 무관한 수량제한 조치를 계속 협상하자고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 만약 우리가 FTA 비준을 조기에 한다면 미국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비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준 지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

세 번째 질문은 만약의 경우 한미 FTA 비준에 실패하는 경우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끼치느냐 하는 가설적인 질문이셨는데 이렇게 봅니다. 한미 FTA가 되는 경우에 다섯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관세로서 미국 시장에 수출이 증대될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증대돼서 경제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제거가 되겠지요. 또 세 번째로는 제도 개혁, 선진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눈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라는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또 미국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EU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일본, 중국하고 FTA를 연계하는 전략이 가능한데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부의 배종하 실장, 이번에 협상팀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증인 배종하** 저는 한미 FTA 때 농업분과장으로로서……

○**위원장 김원웅** 한미 FTA 때는 그렇고 이번에는……

○**증인 배종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이번에 안 했어요?

○**증인 배종하** 예.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여기 책임 있는 누구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참석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그런데 제가 하나…… 미국이 위생 검역상의

이유로 축산물 수입에서 한국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외 도축장에서 지금 제외시켜 놓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축산물이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해외 도축장으로 해 달라고 하는 미국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를 활용한 적 있습니까?

○**증인 배종하**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이미 우리가 내줄 것인데 주었는데 받아 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아 낼 것을 이런 것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멸균 처리된 삼계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국에서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를 이유로 해서 금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쇠고기 수입하는 카드로써 이것을 풀어라 하는 협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성의를 기울였는지……

○**증인 배종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아마 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불 계획이 있는 거지 우리는 협상할 때 서명하기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영 교수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해영** 기본적으로 지금 USTR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 멕시코산 쇠고기 그다음에 캐나다산 쇠고기(물론 캐나다는 미국 현지에서 100일 이상 사육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경우도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협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계탕 같은 경우에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새로운 신생 이슈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수입 위생조건을 들어서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그다음에 서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갑원 위원** 전남 순천의 서갑원입니다.

유명환 장관님,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4월 10일 날 공문을 통해서 4월 11일 고위급 기술협의를 개최 요구를 했고, 또 4월 12일 미국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자마자 당일 날 농림수산물부에서는 미국 측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문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제가 보고를 받았 습니다.

○**서갑원 위원**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국가 간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하면서 하루 전에 회의를 하자, 회의 개최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충분한 검토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바로 그날 당일 날 그런 회의를 하자, 다음 날 회의를 하자 하고 이렇게 수용하는 게 통상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서갑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 10월에……

○**서갑원 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렇 나, 그렇지 않느냐만 답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작년 10월에 기술협의를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갑원 위원** 작년 10월의 기술협의를 연장선 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 회의를 하는데, 사인 간의 회의도 통상 ‘한번 만나자’ 미팅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2~3일, 일주일 이상 전에 약속합니다. 장관님, 약속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국가 간에 하면서 내일 할 회의를 오늘 통보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여기……

○**서갑원 위원** 장관님 생각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만 작년 말부터 여러 다양한 경로로 수

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2차…… 아까 1차가 작년 10월에 있었고요. 기술협의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4월 9일 총선 이후에 기술협의를 또 요청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서갑원 위원** 됐습니다.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종훈 본부장께서는…… 유 장관이 답변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장관도 그러시고 계속 그런 말들을 금과옥조처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한미 수입 쇠고기 협상하는 과정에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아니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작년 11월 이후에 제가 취임해서는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서갑원 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참석한 기억이 없습니다.

○**서갑원 위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협상입니다. 이 중요한 협상에, 물론 기술적 협의도 중요하고 실무까지 다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경제장관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김종훈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과거에 참여정부 때 이런 회의를 할 때 대외장관회의나 또는 통상장관회의, 명칭은 어떻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참여정부에서 했습니다.

○**서갑원 위원** 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서갑원 위원**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협의거든요. 지난 정부의 입장과 미국 측의 입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히나 정권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장관님 생각이요 또 이명박 정권,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이하 각 장관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혹시 생각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이것을 시장개방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통상교섭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요, 이 회의와 관련되어서 장관님 생각을 내가 묻는 것이지 절차 얘기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혹시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민적으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는, 그래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모두 미국에 맡겨져 버린 이런 졸속협상, 조공협상이라고 불리는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해 왔던 것이고 이게 시장개방의 문제가 아니고……

○**서갑원 위원** 협의를 해 왔다고, 장관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이고 어마어마하게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여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때는……

○**서갑원 위원** 그런 조건들을 발표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장관들, 대외경제장관회의, 관계장관회의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되고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그다음에 검역권까지 다 내주게 되어서 조공협상이라고 불리게까지, 그래서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된 정권이 22%대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설명을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냐고요. 장관님 느낌이 어떠시냐고, 생각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갑원 위원** 짧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장개방의 문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중대한 이슈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것은 이미 방향은 결정된 것이고 기술적인 전문가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갑원 위원**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렇고 협상과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주무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서갑원 위원 통상의 이런 회의가 열리면 장관님께서 참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김종훈 증인, 어떻습니까?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특별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대경장이나 경제장관회의가 열리면 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서갑원 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역할이 없었지요?

○증인 **김종훈** 또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서갑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 정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서갑원 위원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파심에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서갑원 위원 그러면 김종훈 본부장님, 어떠세요. 우리 유 장관님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장관이 보시기에 이렇게 국정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이런 정도로 이런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광우병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이 수입 쇠고기의 문제가 정말 하찮은 어떤 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인지, 정말 부재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를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김종훈** 예, 질문은 상당히 긴데요, 짧게 대답하라니까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 그냥 느낌만, 단편적인 생각만 말씀……

○증인 **김종훈** 일단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 고요.

바로 1년 전 이야기니까 서 위원님께서도 기억해 내시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제기준을 존중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합리적 기간에 해결하겠노라 하고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러나 30개월……

○증인 **김종훈** 그 바로 뒤에, 미국이 바로 한 달 뒤에 OIE로부터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받고 난 다음에는 미 측의 입장이 굉장히 강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강하게 ‘언제쯤이면 합리적 기간이냐?’ ‘이 정도면, 이만큼 기다렸으면 되지 않았느냐?’……

○서갑원 위원 그것은 과정이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증인 **김종훈** 그러한 과정을……

○서갑원 위원 국정 컨트롤 타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김종훈** 그건 제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서갑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겠는데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고 그 다음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동물성 사료 부분들을 강화해서, 그 조건들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다시 논의가 필요 없었던 거지요.

○서갑원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장관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과연 그러면 전 정권이 이것을 제대로 한 것인지…… 전 정권이 모든 일들을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책임을 묻고 검찰수사를 시키고 또 다 뒤집고 있는데 유독 이 문제만큼은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고 전 정권이 했던 것을 금과옥조처럼 믿었던 말입니까? 그것이 잘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종훈** 정부가 바뀌면 국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대외적인 신뢰는 계속 지켜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갑원 위원 이따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서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에는 김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 위원** 제 선거구가 울진·영덕·영양·봉화 촌이라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물쭈물 넘어갔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외통위원회의, 사실은 FTA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17대 마지막에 통합민주당의 상임위원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을 교체했습니다. 이걸 제가 그 사이 잠깐 나가서 대한민국 국회 의회사를 좀 뒤져 봤는데 전 국회에 이런 예가 없어요. 이 제도는 바로 뭐냐 하면 현역에, 그러니까 다수당의 국회의장이 있을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상임위원회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쟁점이 농해수위원회에 있다 그러면 농해수위원회 다 바뀌 가지고 전부 새로 한다 그러면 위원회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회제도를 운영해서 되느냐, 더군다나 바로 18대 국회의원선거를 다 해봤는데 18대 국회 가서 이제 여야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럴 때 국회의장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위원회대로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위원장님의 국회법상의 권한이나 내용 중에서 위원이 아프다든지 출장 갔다든지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아주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아니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회를 매우 위협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 하다가 이 위원회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물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먼저 물어볼 것은 과거 노무현대통령 당시에 협상을 개시해 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권으로 왔지 않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김광원 위원** 과거 정권에서 FTA는 아주 잘한 협상이라고 그랬고 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하고 붙어 가지고 FTA 협상의 득실 이런 것에서 상당히 득이 많

았던 협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FTA 잘된 협상이 쇠고기 파동 때문에 이게 2개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고 지금 현 여당 측에서는 이게 안 되면 FTA도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 현재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건은 빨리 해야 된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우병하고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정부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리하면 안 됩니까?

○**증인 김종훈** 그것을 저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원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종훈** 이것이 굳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재협상이나 돌파구가 없이는 FTA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생각만 바꿔 주시면 충분히 따로 떼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처음부터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원 위원** 두 번째는 5월 6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인기 의장이 발표한 소위 협상 재개 요구입니다. 기자회견문인데요. ‘퍼주기 쇠고기 협상,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5월 2일 정부 담화문 및 5월 6일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부쳐’, 그 내용 세 번째 가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즉각 검역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재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광우병이 생기면 수입 금지조치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요인인 광우병 발생 검역 중단,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GATT하고 뭐 어찌고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증인 김종훈** 예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광원 위원** 예외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김광원 위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발표한 반대 이유가 해소되어 버립니다.

○**증인 김종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권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번에 주관부서인 농림부가 하는 고시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김광원 위원** 바로 제 다음 질의가 그거예요.

농림부 정책실장님께, 그렇다면 15일 발표의 고시 문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 미국의 협상대표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청와대 쪽에서도 그 발표를 했으니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증인 김종훈** 그 부분은 농림부의 의견보다도 이게 국제법 내지는 국내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광원 위원**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종훈** 우선 그 조항의 성격이 반드시 어느 하위 이행을 위한 규범에 포함이 되어야만 발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질의 중에서도 계속 주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권적으로 판단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에 고시에 넣든 아니면 독립된 국제법의 조항을 원용해서 발동을 하든 그것을 발동할 수 있는 당위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발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위장된 내용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의 어느 국민이 수입을 막기 위해서 내 건강이 위협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으면 예외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다음에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이 의심하는 부분 중의 상당 부분이 데이비드 목장인가 별장인가 가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줄속으로 하면서 국민 건강, 검역 주권을 내 준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 가지고 빨리 줄속으로 타결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줄속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수차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죽 지속되어 온 하나의 기술적 전문가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캠프 데이비드

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양보했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과 같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답변드리기가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원 위원** 두 가지, 재협상의 해소, 검역주권하고 문제없다…… 의혹은 상당 부분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 같은데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세 번째가 안전성 문제인데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검역 소고기에 뺏조각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버텨 왔단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원 위원** 그렇게 오다가 지금 와서 SRM 일곱 부위를 제거하느니 두 개 부위를 제거하느니 뭐 30개월 월령이 어찌니 미국 소는 세 마리 밖에 안 걸리는데 하나는 캐나다 소더라 하느니 말이 많은데, 농림부 실장님 소고기 안전성 문제를 한번 쉽게 답변해 보세요. 특히 고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괜찮은 것인지.

○**증인 배종하** 제가 답변드리면 마치 미국 쇠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이 먹었지만 그것이 인간광우병으로 되어서 발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런데 그 점이 우리만 안전하다 해 가지고는 남이 곧이 안 듣거든요. 대만·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종훈 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증인 김종훈** 지금 시행 중에 있는 현행의 합의사항은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대만은 지금 새롭게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남의 나라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로는 협상이 거의 타결에 임박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미국과 했듯이 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쪽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공표가 언제 될지 그것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소위

국제적인 기준 OIE든……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간, 합리적인 절차,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종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광원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의 증폭이 MBC 'PD수첩'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나 같은 사람도, 한림대 의과대학 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동양인이 MM인가, MV, VV가 있는데 MM이 위태롭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날 이후부터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동양인의 광우병에 대한 취약성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소홀했어요. 소홀했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단호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다가, 버나드 쇼 얘기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데 국정시스템의 어디인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께서 말이지요. 적어도 중요한 정책이 나갈 때는 이런 정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의 저항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지금 그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국정에서는 제가 볼 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해서 폐단은 있었습니다만, 제3의 기구 아니면 국정원 같은 데서도 이런 기능에 대한 보고 제도를, 검토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외통부에서도 이런 기능 좀 가지면 안 되겠어요, 외교정책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MM 인자가 뭔지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좀더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 위원** 이상입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김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원웅** 말씀하세요, 김종률 위원님.

○**김종률 위원**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오전에도 사·보임 위원들 문제를 거론했는데 또 거론하면서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이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보임 해당 위원들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한 표현 이상을 넘는 그런 중대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보임이 된 거고요. 더구나 오히려 이번 통외통에 상정, 비준…… 처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한미 FTA 청문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해당 위원들이 사·보임에 적극 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원 위원께서 이번 사·보임이 국회법상 찾아보니까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7대 국회 한 달 남겨 놓고 마지막 날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FTA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17대 국회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임시회기를 소집해 가지고, 이것 누가 소집한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소집한 것 아닙니까? 소집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총선이 있었고 총선에서 떨어지신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FTA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적으로 함께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셨지만, 이거를 개별 위원마다 다 사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FTA가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국익을 위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사·보임에 적극 응한 위원들을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참여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지역구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청문회에서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과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 주시고, 사과를 요청합니다.

○**김광원 위원** 제가 답변을……

○**위원장 김원웅** 김광원 위원님, 짧게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광원 위원** 제가 개별 위원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이런 뜻은 없습니다. 국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4분의 1 이상이 교체되는 이번은 IMF 파동 때 재경위에 제가 임시 차출을 받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두서너 명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은 국회의 효율화에 도움도 안 되고, 소위 국회의 개별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제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종률 위원님을 모독할 생각이나 인격적으로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한미 FTA 청문회를 이유로 오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자세로 발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웅 얘기가 그럼 아주 길어져, 됐어.

○서갑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충분해요. 내가 김종률 위원 1분이 아니라 4분 드렸어요. 됐어, 그만.

○서갑원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원웅 같은 취지라면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다음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제주시갑 강창일 위원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갑갑해요, 갑갑해. 대통령도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말을 참 거칠게 많이들 하시네.

4년 만에 4만 달러가 되면 한우 고급 많이 먹게, 맞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 1억 원짜리 소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광우병에 반대하는 사람은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어저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사에서는 ‘부처님 정신에 따라서 국민을 섬겨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앞뒤가 아주 안 맞아요.

만일에 광우병 소고기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 84% 이상이 반대하는데 한·미 FTA 반대가 84%가 되겠네? 그렇게 하면 국민주권 존중에 따라서 한·미 FTA 그만두어야 되겠네?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해 가지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내뱉는 말이 말이 안 되면 이게 궤변이 되고 참꼬대가 되고 또 소리가 돼요, 소리. ‘소리 성(聲)’자 쓴다고요. 그런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말이 잘 안 돼요.

우선 김종훈 본부장님, 아까 시간 뺏을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자료 얘기했는데……

자꾸 이상한 논리 퍼면서 변명하지 말고 잘 보라고. ‘오렌지 수확기’라고 되어 있어. 감귤 수확기예요. 또 이것도 틀려 버렸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 잘 보라고.

또 감귤 수확기하고 지금 현행 관세가 틀려.

잘 보시고, 답변 안 해도 좋고. 그것은 잘못된 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없고.

다음에 또 김종훈……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재협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국민 주권 모독하는 얘기예요. 국민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모든 정책·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지요.

본래 평소 때 소신은 아닐 거예요, 민주시민인데, 그리고 젠틀맨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까 얘기하다 툭 나와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꾸 ‘과학’, ‘과학’ 얘기하는데 말이지요, 왜 이렇게 독선적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전부 비과학적입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러면 지난 10월에 참여했던 참여정부의 사람들, 소고기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 전부 비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참여정부 사람들 전부 비과학적입니까?

김종훈 본부장 참여했었지요? 비과학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과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 하면서 자꾸 이렇게 호도하면 국민이 더 화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말이지요, 미국의 사례 제한 조치에 대해서 ‘강화다’, ‘완화다’ 해 가지고 계속 논란, 말이 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으로 왔잖아요?

지금 국민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강화된 내용 알고 있어요. 화난 이유는, 분노하는 이유는 완화된 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 호도시킬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 장관님도 말이지요, 아까 ‘한미 FTA가 상반기에 되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미국에서 처리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거지입니까? 주권 국가입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원원이에요, 미국도.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저는 반대입니다마는, 그러면 주고받는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구걸해야 돼?

일국의 외통부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24개 부수 법안, 이거 우리 통외통위에서 꼭 먼저 되어야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24개 법안 각각 다루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통과하자는 논리가 전혀 없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답변하시면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 ‘전염병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이 들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것을 자꾸 괴담 수준으로 몰고 가면…… 선전·선동, 또 흑자들은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런 비판론자들도 있고…… 참, 왜 이래요?

아마 사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고기 협상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짓이라 그래요. 유한한 동물이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국민이 잘못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깊이 본질을 파악하고 정직하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재협상해야지요.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말을 놓고 강변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지금 제가 들어도 늘 그래요. 제가 가능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잘 들어 보려고 했어요. 또 김종훈 본부장하고는 개인적인 인연도 깊고 말이지요. 그래서 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리고 배중하…… 농식품부에서 왔지요?

○증인 배중하 예.

○강창일 위원 어디 미국 수출업자처럼 얘기를 해요?

왜 존재합니까? 농수산부가 왜 존재하냐고요?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소신 가지고 외통부하고 싸움하면서…… 외통부하고 농수산부의 마인드가 달라요. 정책 접근 방법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신 가지고 해야지, 미국 농림부 차관이 왔는지 장관이 왔는지 모르겠네. 어디 사람에게요? 대한민국 농업과 축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 고민하면서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제가 뭐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마는, 봤더니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한미 FTA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문제에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 분이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논리로 보면 소고기 문제하고 FTA 별개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같죠? 선결조건도 좋고, 요건도 좋고, 과제도 좋습니다. 우리 말장난하지 맙시다. 그렇죠? 그것 부정하시겠습니까?

그전 대통령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걸림돌이 다 풀렸다고. 미국 부시 대통령도 전화를 해주었는데.

그래요, 지금 선결조건 뭐 과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타결돼야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잘못된 것 풀어놓고 다시 FTA 얘기해야지. 논리적으로 모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되는가 했더니, 물론 김종훈 본부장님 꼭 통과시키고 싶을 거예요. 몇 년 고생했는데.

그런데 거의 지금 강박돼 있다고. 그거 너무, 풀어 버리세요. 풀어서 흥가분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고민하는 자세였으면 좀 대화가, 이 청문회도 진지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왜 국민이 화났는지 압니까?

첫 번째 본질은 그 논리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안 먹는 30개월 이상 된 젓소, 암소, 종갓소. 미국 사람이 안 먹는 거예요. 이걸 들여온다, 이건 논리 이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지입니까?

다음에 또 광우병 위험이 있다, 이거 더욱더 분노하는 겁니다. 뼈니 사골이니 7개 부위 들어온다 하니까. 왜 그 본질을 잘 모르시냐고?

그러면서 과학이니 OIE니 이런 식으로 근거니 뭐니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니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보세요, 죽 추이를 보세요. 여론 조사 추이. 계속 확산됐어요, 이게.

왜 확산된 줄 압니까? 수습이 돼야 되는데, 확산된 이유는 대통령 이하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 해서 그래요. 대통령은 뭐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잘 보필해야지요. 막말하지 않도록. 그게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먼저 예스맨이 돼야 됩니까? 하라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빨리 하라니까 뭐……

이번 소고기 협상하면서 얻어 낸 게 뭐 있어요? 협상은 주고받는 거에 있는데.

미국 사람이 주장하는 것 그대로 받아 왔잖아요. 그게 뭐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가서 뭐 얘기할 수 있겠어? 농림부에서 말이죠, 민동석이라는 사람 어디 출신이에요? 농림부 출신입니까? 아니죠. 외통부 출신이에요, 외통부 출신.

그 사람 마인드는 외통부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통상정책관인가에 갖다 놓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농민을 위할 수 있겠느냐고요? 됐고요.

박석운 증인이 말을 거의 안 해서……

이거 재협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어떤 근거로 해야 됩니까? 그거 남은 시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증인 박석운** 재협상 문제는 국가 간의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재협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FTA 재협상 경우에도 이미 초안에 대해서 서명한 것을 재협상한 선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 쪽에서 비준을 빨리할 수 있고 또는 재협상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냐하면요 미·페루 FTA 경우에 있어서는 페루 국회에서 이미 다 비준했습니다. 비준한 상태에서 미국 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해 가지고 다시 재협상 처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재협상 어떤지 하지만 말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국민의 80%가 이미 재협상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金容甲 委員** 김용갑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보임하신 6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 사·보임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숫자는 많기는 합니다마는 절차에 의해서 잘 오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쇠고기 문제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FTA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FTA 통과 문제는 좀 협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유명환 장관, 쇠고기 협상 문제가 정부에서는 하등 아무런 의도도 없었지만 타이밍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 협상 내용이 국민건강이라든가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문제 없습니다. 없지만 여하튼 문제를 제기하는 한 타이밍이 좀 오비이락인가, 안 그러면 의도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지요? 외교에도 실용외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제가 실용주의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 쇠고기 협상을 죽 보니까 쇠고기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 의회의 FTA 타결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실용주의라는 것이 그것 하나만 보지 말고 협상을 타결하고 또 국민이 여기에 동의를 해 주고 따라서 FTA 체결에 도움이 되고 이래야 실용주의의 성과를 다 거둔다고 보는데 그전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FTA 협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면 실용주의의 성과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 문제가 FTA 문제에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님 지적하셨듯이 실용주의적인 면에서 좀더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容甲 委員** 이게 결과적으로 누가 어쨌든 간에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만 처리했으면, 또 국민에게 잘만 이해시켰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金容甲 委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FTA 우리 비준 문제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만일에 한미 FTA 비준이 된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 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17대 국회에서 즉 논의를 해 왔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지막 17대 국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전 정부에서 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容甲 委員** 저도 공감하는데, 저는 한미 FTA가 타결되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 이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6·29 선언의 감동을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17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것 장관 기억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김종훈 본부장,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하신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종훈** 타결이 되고 서명이 6월 30일에 되고 바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에 착수해 주십사 하고 정식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별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가급적 빨리 국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제출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고 제출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만큼 검토를 하셨으니 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했고요. 또 정부의 많은 각료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金容甲 委員** 그래서 한미 FTA가 지금 우리가 17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18대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또 다시 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도 9월, 가능하겠습니까?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종훈** 지난 정부 때 제 기억은 원 구성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만약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있다면 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 가서야 논의가 된다 하면 또 새로 의원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좀 봐야겠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다 뒤져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비준동의를 하고 또 필요한 법을 개정해 나가고 하는 데에 거의,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일정 관리가 어려울 그런 전망이 됩니다.

○**金容甲 委員** 제가 17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를 은퇴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고 또 여러분 여기 농촌 출신 국회의원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농촌을 생각하면 한미 FTA 문제를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당의 입장도 여러분이 존중해야 되고 저도 마지막에 FTA를, 우리 지역에서는 늘 반대를 하고 있는데 통과시켜 주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가슴 아픈 일이지는 합니까마는 진정 국가를 위하고 애국하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번 17대에서 어떻게 하든지 FTA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인 한미 FTA를 우리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쇠고기 문제와 별개로 비준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예, 최성입니다.

평소에 장관인 국무위원의 답변이 국회에 나와서 솔직하고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비굴하거나 대충대충 넘어가는 답변보다

는 훨씬 더 당당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한미 FTA 비준 청문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당당하게 답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또 질문할 때 씩씩한 웃음을 짓거나 이런 태도는 결코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적이 억울하시겠지만 왜 장관과 본부장의 답변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태도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스스로가 오늘 청문회장의 답변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한심한 답변을 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쇠고기 협상이 검역이지 통상협상이 아닙니다, 퇴장하겠소라는 태도를 보이셨다가 나중에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와중에서 쇠고기 협상이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것은 통상협상이기 때문에, 더구나 중요한 통상협상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먼저 보고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거 해명을……

○최성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이 그러면 왜 외교통상부장관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다, 이제 되었으니 비준동의하자라고 했으면 그렇게 당당하면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무관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부시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쇠고기 협상이 검역의 문제이지 한미 간의 중요한 통상의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퇴장할 용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장 개방의 문제가 아니고 검역의 문제라고 저는 그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없

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또 오해라고 하시고 사과를 하지 않으시는데, 좋습니다.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교섭본부장님!

오늘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미 정부의 관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까지 이 치명적 실수, 즉 오역인지 의도적인 은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종훈 본부장께서는 “검역이 강화돼 있다. 알고나 질의해라”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그렇게 대단히 전문적인 의견을 왜 청와대가 발표할 때, 왜 농림부가 발표할 때 그동안은 이야기 안 하다가 여기서 아무도 동의하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검역이 강화되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기에 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로 광우병 우려가 있어서 우리의 자식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성 속에서 나오는 이런 분노 어린 질의들을 대신해서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관보의 오역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이것이 검역이 강화된 겁니다’ 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또 농림부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까? 왜 치명적 실수라고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종훈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은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검역이 강화된 것입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정부가 검역이 완화된 거라고 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까?’라고 내부적으로 따졌습니까?

○증인 김종훈 아, 그 부분인데요……

○최성 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따졌습니까?

○증인 김종훈 아니, 그러니까요 실수는 실수고요 강화된 것은 강화된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강화됐다고……

○최성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실 거면 구체적으로 영어 원본을 들고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렇게 한심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협상을 한 주역들에게 항의해야지 국민들이



바라보고 우려하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 답변을 하고 있을 때 위증죄에 몰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질의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알고나 답변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세요.

○**증인 김종훈** 아마 그 자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질의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최성 위원** 자,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때 하고요.

외통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중요한 통상 협상이 있을 때 외통부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전체를 총괄하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는 당연히 쇠고기 협상 문제를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의제를 다루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을 책임지는 책임적 장관입니다. 광우병 우려가 높은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서 굴욕적인 사대 외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비준 동의조차…… 완전한 위증입니다. 우리 국회가 통과시켜 주면 미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장관께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미 의회의 상황이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당이 상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이번 굴욕적인 한미 통상, 특히 광우병 우려가 높은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지고 굴욕적인 대미 사대 외교의 책임을 지고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어떤든 책임을 묻는다 했을 때 농림부장관과 함께 외통부장관 역시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주장과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주무 책임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구태여 안 드려도 저의 입장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이해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장관은 내일 증인 자격으로, 김종

훈 또 증인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자료가 광우병 저지 입법 청원 국민 서명을 한, 3만 2675명의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에서 제발 국회가 좀 광우병을 저지할 수 있는 입법을 해 달라 해서 그 입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벌써 7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정부를 정말 못 믿겠다, 그리고 광우병 우려가 높은 그러한 쇠고기 수입을 17대 국회가 꼭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는 미 의회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말장난으로 한미 FTA의 조기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졸속 처리가 아니라 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광우병 우려 있는 쇠고기의 입법을 저지해 주는 역할을 통외통위가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영 교수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입법이 진정 광우병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이해영** 예, 정부 측에서는 향후에 광우병 발병 시 수입 금지를 뭐 일종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 통상 정책의 안정성이 향후에 매우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방금 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말하자면 수입 위생 조건의 모범이자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상의 검역주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동시에 되찾아 오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예, 좋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지난 참여 정부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위험성을 보도했다고 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민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또 방영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현장 구속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는 담화를 통해서 허위 사실 유포자를 엄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

부의 국무위원들에게조차, 국무위원들이야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자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진정 허위 사실 유포자를 엄단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미국 정부의 관보조차 왜곡 은폐한 국무위원들부터 먼저 책임을 묻고 사법 처리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외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태여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나머지 추가적인 질의 내용은 조금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만, 질의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우리 유명환 장관님이나 김종훈 증인의 답변 시간이 적어서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딱 결론을 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맞은 것은 맞다고 그리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로 그 말씀을 우리 김종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쇠고기 재협상 문제…… 쇠고기를 재협상해야 FTA 비준 동의를 처리하겠다, 이런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재협상을 할 수 있나, 재협상하는 게 우리 국익에 유익한가, 이런 부분을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재협상이라는 것은 양 국가가 하자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두 당사자가 하시라도 만나서 재협상을 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재협상은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대방이 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해야 된다, 요구한다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못 하

겠어요,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적 체면, 우리가 그만큼 신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타당하냐, 국익에 옳으나 하는 것을 판단해 보아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도 받아 주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타당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일부 야당이나 또 시민단체 주장하는 재협상 사유가 되느냐 한번 봐야 되는데 특히 이게 소고기,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관해서 이번 입법 예고안하고 미국 정부가 공포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부분 얘기를 좀, 제가 판단하고 느낀 대로 설명을 할게요.

이번에 협상안을 보면 말이지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항목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인핸스드 피드 밴(enhanced feed ban)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화된”이라는 표현을 써서 항목을 정한 것은 97년 사료금지조치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을 공포하면 우리가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나 강화된 수입조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합의내용에 없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없고 미국이, 어떻게 썼나 하면 “현재 미국 행정 절차법에 따라 법규 제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마지막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표했을 때는, 공포했을 때는 한다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강화된 수입금지조치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미리 구체적으로 여기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안 지켰으면 재협상하자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러나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강화된 수입조치를 하겠다”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떡냐?”는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 완화됐나 강화됐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것 부적절한 용어라고 보는 거예요.

강화된 것은 97년의 사료금지조치를 기준으로 해서 강화됐느냐 완화됐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 더 강화됐느냐 덜 강화됐느냐, 입법예고한 안을 기준으로 봐서 우리의 예상보다 더 강화했느냐 우리의 예상보다 덜 강화했느냐, 2005년 입법예고안에 비해서 더 강화했느냐 덜 강화했느냐 이 용어가 맞는 거지 완화됐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이게.

국민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더 완화했어야 완화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원웅 위원장, 이화영 간사와 사회교대)

다만 정부가 이 부분 설명할 때 잘못된 거요. 그 부분은 인정해야지요. 입법예고안은 어떻게 됐고 앞으로 공포할 안은 어떻게 됐고 현재 시행안은 어떤데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 광우병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한테 이렇게 설명하셨어야지.

그렇게 설명을 못한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가 실수를 했건 어쨌건 간에 진실은 밝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과연 FTA 비준을 막을 것인지 말 것인지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보면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보다 덜 강화된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더 강화된 부분은 좋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

그 입법예고안보다 덜 강화된 부분이 있다면 따져 봐야지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건지 말이지요. 그러나 입법예고안보다 덜 강화된 부분이 뭐냐 하면 30개월령 미만 소, 도축이 허가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 뇌·척수가 원래는 입법예고에서는 사료 금지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빠진 것 아니에요? 사료로 쓸 수 있다고 바뀐 것 아니에요, 공포된 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97년 안은 소에서 소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그대로 지켜지는 거고 소에서 돼지나 닭으로 갔다가 닭·돼지가 다시 소로 갔다 이렇게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고 그 부분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가 입법예고안에서는 금지돼 있다가 지금 풀린 것 아니에요, 사료 금지에서?

그러면 왜 풀렸냐 하면 작년에 OIE에서 발표

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적절하게 광우병을 통제하는 지역이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고 또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가 위험물질이 아니다 판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제외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 맞지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과 공포한 안이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 그런 그 중간에 OIE의 판정이 있어서 그 변화가 된 거고, 우리가 속았거나 국민을 속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완화된 것도 아니고 덜 강화됐느냐 더 강화됐느냐의 문제이고, 정부 판단은 OIE 기준에 의하면 가사 그렇게 덜 강화된 면 그다음에 더 강화된 면에 관계없이 광우병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개월령 이상 소를 수입해도 괜찮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것이 지금 정부 입장 아닙니까?

○증인 김중훈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표현이 정확히 되어야지요, 이게. 완화됐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라고 강화됐다고 다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뭘.

그래서 정부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다만 30개월령 미만 뇌·척수가 원래는 빠지게 되어 있는데 공포된 것에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광우병을 더욱더 촉발할 우려가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부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안전성에서는 걱정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재협상하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개인 간의 교역도 마찬가지지요. 오늘은 다 사고팔기로 도장 찍어 놓고 내일 와서 '이것 또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러나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것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 당연히 받아 줘야지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과연 이것을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할 합리적인 사유가 되느냐,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되면 요구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국가적 체면과 신뢰만 떨어지는 것 아닙

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FTA를 우리가 유보시킬 것이냐 아니면 미룰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과연 지금 FTA가 체결된 게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말씀 안 해 주신 이홍식 인하대 교수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태인 교수님하고 대표적으로 두 분이 간단하게 한번 FTA가 꼭 체결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또 이걸 부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화영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증인 이홍식 인하대학교 이홍식입니다.

먼저 이 청문회를 오전부터 죽 지켜보면서 이 자리가 한미 FTA 타결안을 가지고 과연 독소조항이 뭔지 또 위험요소는 없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고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한미 FTA가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왜 필요한가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FTA 결과를 두고 이것이 과연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평가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미 FTA로 얻는 것은 어떤 상수가 아니고 반드시 변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Z가 될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기업과 국민과 정부가, 다시 말해서 경제주체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시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미 FTA를 마치 우리가 전혀 개방을 하고 있지 않던 어떤 폐쇄경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대문을 연 이런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니깐 이게 ‘모든 것을 다 퍼 준 것이 아니냐.’ ‘어떤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80년대 이전을 보면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가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5공 당시에 개방, 자율, 안정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세계화 선언해서 OECD 가입하고 그 이후 국민의 정부 때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4대 부문 구조조정, 외환자유화 조치 등등 개방을 죽 해 나가면서 참여정부 때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한미 FTA를 하게 되는 이러한 큰 과정의 틀에서 보면 한미 FTA는 지금까지 그러한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가는 관점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죽 개방 정책을 취해 오는 그 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왜 현시점에서 필요하냐 보면 남들이 하지 않으면,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 세계경제 질서가, 대외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쟁상대국이 했을 때 내게 기회비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 멕시코와 FTA를 해서 일본 기업이 멕시코에 들어갈 때는 무관세로 들어가는 데 반해서 우리는 멕시코에 관세를 안고 들어가면 당장 우리가 일본과 경쟁이 안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계경제 질서 자체가 서로 짝짓기를 하는 이런 FTA시대에 우리만 뒤처져 있는 낙오자의 그러한 신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FTA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할 말은 많습시다만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태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서 저는 이렇게 상임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 하나만 하니까 이제 소고기 협상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됐는데, 사실 한미 FTA는 소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에 감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까 강창일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얼마나 협상이 잘못됐는지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있습니다. 제약도 있고 지적재산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ISD 같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신다면, 국회의원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 하나하나를 지금 쇠고기처럼 이렇게 검토한 후에 정말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비준을 하셔도 되지만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쇠고기 하나만 검토된 상태입니다.

다른 분야도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찬반을 결정하시는, 비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서울 중랑갑의 이화영 위원입니다.

증인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한미 FTA 청문회가 쇠고기 협상 청문회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 비준 동의를 해 주고 싶어도 쇠고기 협상을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국민들의 저항이 높아져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지 않는 한 국민의 정서나 국민에게 한미 FTA 비준 동의를 하는 이해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키는 도리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그 키는 무엇이나 하면 15일 장관 고시를 유예하고 재협상할 것이다,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에 기초해서 다시 한미 FTA를 17대 국회에서 마지막에 논의해서 비준 동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80~90%가 잘못된 협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국민의 무지에 의한 것처럼 이렇게 정부 당국자들이 강제하고 강요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야당이 동의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재협상 필요에 관련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석균 증인, 지금 협상 5항에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할 때만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요?

○**증인 우석균** 예.

○**이화영 위원** 이 조항, 대단히 잘못된 협상이라고 판단하시지요?

○**증인 우석균** 실제로 광우병 통제국가라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상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는 모두 통제국가이고 내년……

○**이화영 위원** 잠깐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김중훈 증인, 그래서 김중훈 증인도 GATT의 규정을 예를 들면서 '예외조치로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중훈** 예.

○**이화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GATT의 일반 기준에 반하는 협상이 됐으면 재협상해야 될 요소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6항에 보면, 미국 농무부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에 수출 자격을 부여한 6항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석균 증인, 우리가 상당히 잘못된 협상 아닙니까?

○**증인 우석균** 예.

○**이화영 위원**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어도 우리나라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23항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USTR이 성명을 내서 이것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역관 파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스스로 협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중훈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요.

미국이 오늘 USTR 성명을 통해서 검역 전수조사에 한국 측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협정이 잘못된 것을, 미국 측이 양보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기초해서 재협상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재협상 요구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아까 유명환 장관께서는 MOU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러저러한 지금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미국도 이렇게 인정된 부분이 있고 GATT의 기준도 있고 하면, 제가 다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도만 하더

라도 충분히 재협상 요구를 하는 타당성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그 수출 작업장에 대한 우리의 조사는……

○**이화영 위원** 아니, 그 문제 말고요. 수출 작업장에 대한 문제 말고요, 각론 말고 총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계십시오.

미국 육류 작업장 가운데 표본에 대해서만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 8항, 그런 것도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인정했지요. 치아감별법으로 소 나이를 표시하도록 한 조항 13항 또 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소 구입 기록을 2년 경과 후에 폐기하도록 한 조항 14항,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잘못된 협상이라는 거지요. 전문가의 의견……

우석균 증인,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지요?

○**증인 우석균** 예.

○**이화영 위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모두 그렇게 이해하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당당하게 장관 고시도 유예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위해서라도 미국하고 재협상하겠다, 정부가 이제 발표할 이런 상태에 이른 것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그 답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이화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종훈** 재협상을 해야 될 사유를 몇 가지 나열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선 수출 작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권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에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표본이 얼마나 크냐, 그것은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봐야 되겠다 하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훈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FTA 수석대표 아니셨습니까, 협상의?

○**증인 김종훈** 예.

○**이화영 위원** 김종훈 증인께서 이 쇠고기 협상

의 협상 대표였다면 이렇게 협상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준이?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기준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석대표는 그것을 지켜 나가면서 수시로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미 FTA 협상 과정이 그러했듯이?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대표단은 청와대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농림수산물부장관하고 상의했다? 저희들은 못 들어 봤어요. 그러면 독단적으로 그 대표단이 이 모든 협상을 다 처리했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증인 김종훈** 예.

○**이화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재협상하도록 다시 외교통상부나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청와대 대통령이 재지시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제가 특별히 저한테 질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FTA와 비교해서 어떤 이익의 균형,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이런 형태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한 이 협상은 쇠고기라는 단일 품목의 검역이라는 특정한 이슈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고받고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자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증인 김종훈**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화영 위원** 아니, 이해합니다.

증인, 잠깐만요.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한다든지 부산물…… 실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장관이 15일에 고시를 하게 되면 미국산 소의 부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곱창 같은 부분들이 대거 패키지로 우리 국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역하는 기준도 없고 30개월 이상 된 소가 마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수입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

력을 스스로 판단하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부산물 같은 것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마구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협상 대표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준에 기초해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이…… 지금 김종훈 증인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미국의 검역 기준과 사료기준이 강화됐다, 그것은 미국의 지금까지 기준에서 강화된 거지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는 하나도 강화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절대적 기준은 아까 우리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월 미만의 소에 있어서는 뇌나 척수나 이런 부분을 제거하더라도 30개월 이상 된 소는 사료로 쓰면 안 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원했던 부분이고 정부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우리에게 일차 설명을 하면서 당연히 정부도 그렇게 믿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경위도 석연치가 않지만 이 경위를 정부가 한번 밝혀 봐 가지고 ‘야, 이것 잠깐, 이상하다’ 미국 정부 규칙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 준 흔적이 있다 없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는 도리이지 어떻게 이것을 계속 강화됐다, 미국에서도 강화한 것이고 우리는 그 강화된 조건을 무조건 따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변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입법예고를 한 취지에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맞습니다. 전체 국민의 80~90%가 그 입법고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각 정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입법고시 유예하고…… 입법예고의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국 측에 대해서 미국 측도 USTR 성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재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도리고 그렇게 해야 한미 FTA 비준 동의도 우리에게 하자 말자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 어떻게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한 측이 대단히 무지해서 그런 문제

를 제기하는 것처럼 자꾸 상태를 몰아가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증인 김종훈 예.

○이화영 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제가 박석운 증인에게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박석운 예.

○이화영 위원 최근에 촛불시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 박석운 그렇습니다, 예.

○이화영 위원 그런데 자꾸 배후가 있다 또는 좌파세력이 이렇다 하는데 이런 말이 시중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하고 싸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고생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 박석운 예.

○이화영 위원 이 중고생들에게 무슨 배후가 있습니까?

○증인 박석운 예?

○이화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주도하신 분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증인 박석운 예, 저는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집회에 참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이 촛불집회는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먼저 시작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호응해서, 말하자면 우리 미래세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참여해서 촛불문화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4일이나 지난 뒤에 전국의 1700여 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국민대책회의를 구성을 해서 촛불문화제를 이어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른들이 부끄럽게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책임을 지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한 번이라도 와서 보신 분이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주도해서

의견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발언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도 초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정부 쪽에서 계속 겁을 주니까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최근에 와서는 가족 단위 참여, 부모님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청소년을 데리고 참여하고 있는,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시작해서 지금 어른 세대로 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후라고 굳이 한다면 일반 국민 모두 다 아니냐, 80% 이상이 재협상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협상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 모두가 배후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산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이 배후조종해서 어찌됐다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판단력을 가진 국민이고요. 저는 우리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어른들이 뭘 했느냐 청소년들이 사실은 걱정을 할 때, 집회 현장에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계신 정치인들께서도 부끄러워해야 된다,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청소년들의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방송 탓 이야기하고 괴담 탓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유 장관께서 괴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괴담 내용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괴담이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광우병을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괴담이 돌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현재 우리 실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실정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것을 괴담이라고, 오늘 여기서도 괴담이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증인 박석운 그다음에 강화된 사료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국제기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제기준인 OIE 기준보다 이번에 합의된 사료조치가 더 나쁜 조건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미 우리 우석균 선생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강화된 사료조치라고 강

변하고 있습니다.

또 설거지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설거지한다고 구실은 이야기했지만 독극물이 든 물로 설거지하면서 그릇도 깨고 쪽박도 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거지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잘못 진행된 협상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요. 영어 번역도 잘못된 사람들이 영어로 협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판이 잘못 짜여진 겁니다. 영어 잘못하는 사람은 통역 두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어로 하고 저쪽에 영어로 번역하고 저쪽이 영어로 하면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영어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겁도 없이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쪽박 깬 겁니다.

그다음에 또 잘못 진행된 협상의 핵심이 뭐니까? 총선 다음날 시작해서 정략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끝났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 바로 전날 밤샘하면서 협상 타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이것은 정략적인 목표에 의해서 잘못 진행된 협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조·중·동 등을 등에 업고 미래세대와 싸우는 MB 정권, 이명박 정권은 이미 국민의 분노의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하도록, 빨리 잘못된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도록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 제 발언권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잠깐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제가……

우리 박석운 증인의 답변은 이화영 위원의 질의에 의거해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제가 한 말……

○위원장 김원웅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이화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동시에 김종훈 통상본부장에게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화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원웅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진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세요.

○위원장 김원웅 보충질의는 좀 이따가 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유명환 장관께서는 보충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세요. 왜 자꾸 위원장님 지시에 제어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원웅 아니,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우선 증인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증인은 신문이 있을 때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저는 오늘 증인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원웅 예,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 얘기한 것 쿼트(quote)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그래도 오늘 본질적으로 이게 지금 청문회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가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전염병에 관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아니, 그래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실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원웅 그리고 우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김재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질의에 앞서서 중요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김진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오류를 잡고……

○위원장 김원웅 오류를 잡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김종훈 통상본부장께서 지금 방

송 3사가 생중계하고 그리고 이게 외신에도 보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통상본부장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OIE가 판정한 구제역이 아니라고 우기는 통상본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축산인들의 역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이고요. 정말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될 통상본부장이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겼어요. 이것은 저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해명해야 합니다.

김종훈 통상본부장, 지금도 대한민국이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김재윤 위원 아, 대답하세요.

○위원장 김원웅 답변하십시오.

○증인 김종훈 답변할까요?

○위원장 김원웅 예.

○증인 김종훈 그런데 지금 광우병 이야기를 하시다가 구제역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재윤 위원 아니, 참,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증인 김종훈 아까 구제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재윤 위원 제가 분명히……

속기록 보고 대답하실래요? 위증하실래요?

○증인 김종훈 아니, 아까 구제역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다들 지금 놀라 가지고요. 지금 구제역을 논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제 말 잘 들어 보세요.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잘 듣고 하시라니까. 제가 분명히 OIE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 영어 못 듣습니까?

○증인 김종훈 아니, 지금도 구제역이라고 물어보십니까?

○김재윤 위원 아니, 지금 저희랑 장난하십니까? 증인, 제가 질의할 때 뭐 들었어요!

○증인 김종훈 구제역하고 광우병은 다릅니다.

○김재윤 위원 잘 들어 보세요. 구제역…… 제

가 여기 꼭 광우병 얘기만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대한민국이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냐, 아니냐 이것을 물었어요.

○증인 김종훈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재윤 위원 참,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증인 김종훈 아니, 말씀 조심하십시오. 무슨 사람이라니요?

○김재윤 위원 아니,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까? 짐승입니까?

○증인 김종훈 아니, 저한테 여쭙 때, 물어보실 때……

○김재윤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쭙어요! 속기록 보세요!

○증인 김종훈 우리가 지금까지 광우병을 이야기했고 광우병 지위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질의 아니었습니까?

○김재윤 위원 본부장님!

○증인 김종훈 예.

○김재윤 위원 여기 질문을 꼭 광우병 질문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저는 구제역이라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김재윤 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는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냐 이렇게 물었는데 청정국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자료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OIE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갖다 보십시오.

○증인 김종훈 속기록을 보셔 가지고요, 속기록을 제가 보겠습니다. 봐 가지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구제역이었다면 제가 잘못 들었고요.

○김재윤 위원 잘못 듣다니, 제가 분명히 OIE라고까지 얘기했어요.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냐, 아니다……

○증인 김종훈 광우병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구제역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재윤 위원 아니, 정말 답답하신 분이네. 국회의원이 광우병을 묻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증인 김종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김재윤 위원 그런데 자꾸 광우병만, 국회의원이 광우병에 대해서만 묻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의 말을 속단하세요?

○증인 김종훈 앞뒤의 문맥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광우병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본부장님!

○증인 김종훈 예.

○김재윤 위원 여기 한미 FTA 청문회 아니에요?

○증인 김종훈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윤 위원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도.

○증인 김종훈 어떻게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합니까?

○김재윤 위원 제가 OIE가 판정한 구제역 청정국가냐고 질문했는데 자꾸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증인 김종훈 저는 광우병으로 들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증인 김종훈 그러면 속기록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김재윤 위원 지금 보실까요?

○증인 김종훈 봅시다.

○김재윤 위원 보십시오. 보셔서 제 질문이 맞으면 통상본부장 사퇴하실 거예요?

○증인 김종훈 사퇴가 아니고 제가 사과를 드리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광우병을 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갑원 위원 예.

○위원장 김원웅 서갑원 위원님 하십시오.

○서갑원 위원 위원장님과 김종훈 증인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청문회장입니다. 증인께서 청문위원이 신문하는 과정에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 들어서 본인이 잘못 들은 것을 질책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청문위원을 몰아세우면 도대체 이 나라가 미국 국회입니까? 미국 국회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용정부에서 실용정부의 각료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도 되는 정부가 진정한 실용정부입니까? 실용정부의 각료들의 태도입니까?

김종훈 증인, 설사 백 번을 양보해서 우리 김재윤 위원께서 잘못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에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 청정지역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과거 지난 참여정부 때 김종훈 본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시는 발언과 또 답변의 태도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단계 오르셔서 장관급이 되셔서, 차관급 공직자에서 장관급 공직자로 오르셔서 그런지 아니면 참여정부에서 실용정부로 넘어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원웅** 서갑원 위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서갑원 위원** 대단히 오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엄중하게 주의조치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짧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02년에 구제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OIE에서 우리가 구제역 통제국가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이제 그런 발가라코기를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협조 약속만 해 주고 못 열었던 말이예요.

그런데 같은 2003년 12월에 미국에 광우병이 있었고, OIE가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을 했고, 우리는 그 기준을 쫓아서 수입을 했고, 그 모순점을 지적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인 질의니까 당연히 광우병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구제역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둘을 비교해서 우리는 OIE 기준에 따라 풀어 줬는데 미국은 OIE 기준이 그렇게 나왔는데 풀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지요? 그게 뭐가 문제지요? 대들 일인가요, 따질 일인가요, 싸울 일인가요?

○**증인 김종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좀더 겸손하십시오.

○**증인 김종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예.

○**증인 김종훈** 저의 사임 이야기도 해 주셨고요, 또 여기가 미국 국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지금 속기록을 위원장님 관찮으시면 금방 좀 보셔 가지고요, 저는 분명히 아침부터 계속 광우병의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광우병 부분은 “OIE에서 우리가 아직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신청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것은 아직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재윤 위원님께서 그게 구제역이었다고 물었는데 제가 잘못 듣고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지금 김재윤 위원의 질의와 또 김종훈 본부장의 답변 내용에서 그 문제는 속기록을 좀 확인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특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질의자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그 질의에 맞는, 상응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러한 질의·답변은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국익을 위한 애국심을 가진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치열해야 되겠지만 발언은 상호 품위 있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권영길 위원님 해주십시오.

○**권영길 위원** 김종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2005년 10월 미국의 강화된 사료 사용금지조치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축산업계의 반발로 철회됐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예, 미국이 상당 정도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철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다?

○**증인 김종훈**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철회했다 이거지요?

○**증인 김종훈** 기본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철회했는지,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외교통상부장관님,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이해한 강화된 사료 사용금지조치가 2005년 10월 미국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이 맞느냐 했는데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

○**권영길 위원**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이것

은 좋습니다.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규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 장관께서 오늘 계속 강조를 하신 점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통상영역으로 볼 때 MOU(양해각서)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영역으로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합의……

○권영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질의이기도 하고 또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양해각서는 합의문보다 더 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

○권영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미국 수잔 슈워브 대표가 한국 총리가, 한국 정부에서 요구한 것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구두로 됐는데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신사협정으로 봐서 지켜질 것으로,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공개적 발언이지만 이것이 그 다음 정부로 이어진다는지 부시 정부 끝나고 어느 정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려면 가장 확실한 것은 합의해야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권영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5월 15일 날 우리 농림부 고시가 되게 돼 있는데 3일 남았거든요. 이것은 고시가 되면 바로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개를 끄덕임)

○권영길 **위원**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 총리가 이야기한 것 받아들인다고 그러고 이거에는 일치했다, 그리고 미국 국회도 2개월 내에 안전성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 합의문으로 만들자,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 측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농림수산장관은 아니시지만 5월 15일 날 고시되는 것, 이것

시급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서는 그 고시를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늘 청문회 내용을 가지고 주무부서인 농수산식품부장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해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우리 정부 측에 질의를 했었는데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보면 기망 말고 착오도 다시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005년, 8년 것 가지고는 차이가 났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착오거든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재협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력을 발생하려면 재협상해서 실제적으로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해영** 일단 우리 쪽에서 요청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물론 현재 체계상으로는 ‘미국이 무조건 여기에 응해야 된다’ 그런 의무조항은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에, 특히 오늘 슈워브 USTR 대표가 한 발언도 있고 그 부분도 또 성문화하는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만큼 차제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재협상에 나서게 현명하다고 봐야지요.

○권영길 **위원** 국민들께서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확실하게는 양국 간에 해 가지고 공식적인 협상을 하고 합의문을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증인 **이해영**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할 대목이 비록 미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민간업자들이 향후에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거기에 나와 있는 투자자·정부 소송제라든지 나아가서 설사 우리가 수입금지조치를 향후 광우병 발병 시에 하더라도 그 경우에 WTO 상의 비위반 제소라든지 이런 수많은 함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STR 대사의 이번 발언이 민간업자, 특히 미국의 수출업자들까지 규율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사실 그렇게 개연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질문 하나만, 우석균 증인에게 묻

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다, 완화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잘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증인 우석균** 미국이 2005년 9월부터 지금까지 김종훈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파기, 철회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는 철회한 바가 없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입법예고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보다 이번에 관보에 게재된 내용이 완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OIE 과학위원회에서 미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은 사료에서 SRM 전체 제거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그러니까 나머지 5개 부위 전체를…… 그러니까 회장원위부라든가 또는 편도라든가 이런 부위가 SRM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료에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OIE의 권고사항보다 완화된 조치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우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너무 일찍 서둘러서 체결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미 FTA,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미리 써 버리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다른 국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오늘 여러 증인들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제기가 되었는데 오늘 오전에 MBC 뉴스에 나온 걸 보면 지난해까지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그레이슬리 의원이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FTA 비준절차가 민주당의 제지로 중단된 만큼 한미 FTA 연내 비준은 어렵게 됐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쇠고기협상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서둘러서 불과 열흘도 안 된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놓고 그렇게 성급하게 마무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교부장관과 김종훈 증인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재협상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는 재협상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고 15일자 고시는 한미 간에 협상한 내용대로 고시하겠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아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상문 5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리한 지위변동이 OIE에서 내려지기 전에는 수입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고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고 주장하고 버시바우가 그런 한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겠다고 버시바우 대사가 이야기하고 오늘 미국의 수잔 슈워브 미국 USTR 대표가 한국이 그러한 수입 중단을 해도 그것은 GATT와 WTO의 위생검역협정상 보장된 각국의 검역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쇠고기협상에서 그 5조는 적어도 잘못된 협상이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잘못된 협정, 우리 정부도 그것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그런 협정문을 고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림수산부장관의 고시를, 그것도 하나의 법규명령인데 그 고시의 법적효력이 그렇게 고시하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내일 물어야 할 일인데 우선 외교통상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좀 이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이고 해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은 초점이 재협상을 해야 옳느냐 안 해야 되냐 하는 정책판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오신 증인들 중에서 이해영 증인이나 박석운 증인이나 또 정태인 증인이나 이 문제, 재협상에 관한 오늘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서 왜 재협상이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본인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유명환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 쇠고기협상이 타결

된 타이밍에 대해서 김진표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위생조건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그냥 소홀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는 협상을 한 우리 담당자들이, 이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미측하고 쪽 협상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을 양보했다는 그런 전제조건 논리는 저로서는 수긍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재협상의 필요성을 많이 주장하셨는데 신뢰의 문제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오늘 이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주무부서인 농수산식품부하고 수잔 슈워브가 얘기한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좀더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속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 제가 한 가지 연결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표 위원** 쇠고기 협상은 쇠고기 협상대로 그 기술적인 논리에 따라서 OIE의 바뀐 검역기준에 따라서 협상을 했을 뿐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쇠고기 협상이 빨리 타결되도록 압박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금 장관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우리 농림부의 협상대표단은 협상에 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 포지션상에 나와 있는 것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그것도 SRM을 제외하고 수입한다는 그 포지션을 계속 주장했는데 갑자기 열흘 만에 전혀 정반대로 바뀌면서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부는 피담 수준의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국민들이 화가 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관해서 분명하게 국무위원으로서 입장표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우리 전문기술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양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김종훈**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원웅** 나중에, 지금 질의하신 김진표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에는 본질문을 아직 못하신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전라북도 전주시 출신 민주당 소속 장영달 위원입니다.

배종하 증인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계셨습니까?

○**증인 배종하** 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오늘 FTA 문제 때문에만 나왔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네요?

○**증인 배종하** 저는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영달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증인 배종하** 예.

○**장영달 위원** 그러면 FTA 문제에 답변하러 나오셨지 쇠고기 문제에 답변하러 나오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아까 미국 쇠고기는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 배종하** 예.

○**장영달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의 80%가 이번 쇠고기 협상은 잘못됐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여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배 증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안전한 쇠고기를 두고 왜 촛불을 들고 국민 80% 이상이 승복할 수 없다, 재협상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배종하** 협상 과정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배후 조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 알고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것이다 그렇게 보나요?

○**증인 배종하** 배후 조종은 제가 알지 못하고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장관께 제가 묻지요.

지금 정부가 오늘 보도를 보면 미국의 관보에 검역기준을 완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협상 때, 그것을 우리 정부 쪽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강화인 것으로 잘못 알고 협상한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의 오역이었고 실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훈 본부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김종훈 증인 답변을 보면 강화된 부분도 있고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강화된 부분이 더 많다고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런데 미국 관보를 확인하고 농림부나 협상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역이었고 해석을 잘못했다, 실수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김종훈 미국의 입법예고 된 관보와 이번에 합의한 것 2개만 비교를 하면 강화된 것이 있고 완화된 것이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좋습니다.

○증인 김종훈 그런데 첫 번째 이 입법예고라는 것은 법령화되지 않은 예고입니다. 그게 2005년에 됐다가 미 축산업계의 저항을 받아 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쥐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 오늘 여야 위원들 또 일부 증인들 말씀은 적어도 그렇게 오인됐거나 미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아, 그건 우리 신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재협상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증인 김종훈 예.

○장영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어도 우리 국민의 80% 정도가 ‘이 쇠고기 협상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재협상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 그리고 관보에 대한 몰이해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해야 되지 않는가요?

○증인 김종훈 글썽요, 그게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재협상을 제기를 하고 또 관철이 될 가능성이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화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추동물에서 반추로 가는 것을, 반추동물 아닌 간접경로도 차단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전에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 보십시오.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이 아마 의식불명으로 입원하고 계세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으로 계실 때에 이 쇠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지요. 그때 아실 겁니다.

살코기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없는 살코기들이 수입되고 있던 말이에요.

○증인 김종훈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지금은 검역 중단돼 가지고 보관돼 있지만 들어왔었지요?

○증인 김종훈 예.

○장영달 위원 박홍수 장관 때 그 살코기에 뱀조각이 좀 섞여 있다고 그래서 반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압력이 강화됐어요. 그것을 막아내느라고 박홍수 장관이 아마 무진 애를 썼어요.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할 때 미국 국방성에 가서 폴 윌포비치라거나 국방 관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국의식이라거나 또 미국이 한국을 보는 입장은 겉으로는 우리와 웃고 얘기하는 적이 많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대단해요. 정말 보통 배짱 가지고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겁날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 장관님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대국주의자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국에 일곱 번째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있는 나라 아닌가, 그러면 우리만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아쉬운 게 아니고 미국 당신네들도 우리가 아쉬운 상대 아니냐, 이러한 의지와 배짱을 갖지 않으면 미국하고 협상하기 어

려울 겁니다.

박홍수 장관이 최근에 통합민주당의 쇄고기문제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많은 과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고충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본부장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캠프 데이비드 협상, 4월 19일 날 양국 정상회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일 날 서둘러서 협상을 끝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청와대도 인정하고 정부도 인정하는 것이 '캠프 데이비드 협상 4월 19일 이전에 쇄고기 협상은 재량권을 가지고 끝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자들이 재량권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지시를 한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일단 국민에게 알려지고 또 청와대에서도 인정한 걸로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19일 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있으니 질척거리는 부분은 농림부 담당자들이 재량권을 갖고 끝내라' 이렇게 지시해서 본인들이 재량권을 갖고 끝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영 증인, 제 말이 맞습니까?

○**증인 이해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달 위원** 그렇게 보도가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민들도 '아하, 이것은 따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박홍수 장관 얘기했습니다마는 살코기에 뺏조각 하나 들었다고 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반쯤을, 미국으로까지 다시 신고 가거라 이런 조치까지 하면서 지켜 온 부분인데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바빠서 하루 전에, 한국 시간으로는 이틀 전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하루 전까지 마쳐라 그러니까 실무자들로서는 대충대충 끝낸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영어 못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단어 해석을 잘못 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알고도 넘어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국민들은 못 견디겠는 거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것은 승복 못 한다, 바로잡아 달라 이런 요청

을 정부에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배후 조종을 해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는 지금 정권 초기인데 국가적으로 대재앙이 우려되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아주 안정되게 흘러가야 될 국면이에요. 이게 무슨 4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걸 여야 정치인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집권 초기에, 우리가 22년 됐습니다마는 박종철 이한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때 희생됐습니까? 정부가 자기네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것은 하지 않고 강권으로 짓누르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나고, 그러면서 엄청난 국민적 저항 운동이 확산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시작된 지가 석달도 안 됐고 남아 있는 기간은 많은데 그 세월을 어떻게 이러한 국면을 견딜 것인가,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저항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함께 논의하셔서 적어도 미국 정부와 이걸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양국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진중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작은 문제 같지만 국민의 불신이 너무 일찍 가슴 뼈 속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대단한 국란으로 갈 위기가 있는 겁니다. 장관께서 이러한 저의 인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장영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주무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위원장님, 아까 전염병 관련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발언권을 주시면 하고……

○**위원장 김원웅** 예, 말씀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이 법령에는 전염병이라고 돼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전염병이라는 개념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조류독감(AI) 같이 옆에 있는 닭이나 뭐가 걸렸다고 그래서 옆으로 전염되는 게 아니고 사료를 잘못 먹은 광우병 그 소에 개별 개별 걸리는 것이지 옆의 소가 광우병이 있다고 옆의 소에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



서 제가 전염병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웃으시는데 전염병이, 옆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고 옆에서 걸리는 걸로……

○**김종률 위원** 전염 방법의 문제이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내가 피담이라고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몇 가지를 저희들이 종합을 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 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600가지 제품을 사용해도 광우병에 전염된다…… 이것이 애들의 핸드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 믿고 계십니까? 그것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광우병 소고기를 다룬 칼과 도마에 의해 수돗물까지도 오염이 된다…… 그것 믿으십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소고기를 먹는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증인들끼리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재천 위원** 10문 10답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뭘……

○**김종률 위원** 청문회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원웅** 유명환 장관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증인들끼리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원웅** 마무리를 해 주시고……

유 장관님, 다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더 많습시다만 위원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아까도 말씀……

○**김종률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진영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순서…… 아까 보충질을 했었기 때문에, 하다가 장영달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본질의로 됐습니다.

○**김종률 위원** 아니, 원래 그 순서대로라면 저예요.

○**진영 위원**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률 위원** 김덕룡 위원님 대신 하신 거예요?

○**진영 위원** 아니, 보충질의는 항상 왔다 갔다 교대로 했어요.

○**김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순서에 의하면……

○**위원장 김원웅** 김종률 위원, 진행은 내가 하니까 됐습니다.

○**진영 위원** 진영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FTA 협정에 대한 협상 결과 내용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신 이 증인들은 FTA 내용, 협상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러 나오셨지 사실은 쇠고기 협상에 관한 것이라면 증인은 아니지요.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증인들을 상대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내일이야 뭐 나올 수도 또 농해수위에서 정확하게 해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이 내용을 얘기할 증인들이 출석한 자리에서 계속 쇠고기에 관한 질의를 하면 정확한 사실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우리 국회가 오늘 죽 진행되는 것을 봐도, 우리 김원기 의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도 좀 변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회도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변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국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위원들도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신 증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하러 나오신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고 또 국회의 절차를 도와주러 나오신 분들이지 다른 뭘 가지고 나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마워하는 마음에서 질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명환 장관님 나가셨네……

아까 그 전염병 부분을 정확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석운 증인께서 말씀하신 전염병에 관한 것과 우리 유명환 증인이 말씀하신 전염병에 관한 게 서로 좀 착오가 있어서 이것이 전염병이다

아니다 이런 것 같은데, 아까 광우병이 전염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하시지요.

우리 유명환 장관님 오시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증인 박석운** 현재 실정법에 명시가 돼 있는 법정전염병이거든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염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설명 근거 대는데요, 이미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뭐니까, 이거?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그것 갖고 자꾸 얘기하면 수준 차이가 납니다. 실정법입니다.

○**진영 위원** 예,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전염이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우리 유명환 장관은 전염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증인 박석운** 그러니까 뭘 잘 모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정전염병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진영 위원** 소가 한 마리가 전염이 됐다고 그래서 다른 게 전염이 된다는지……

○**증인 우석균** 바로 그런 뜻에서 전염병이거든요.

○**증인 박석운** 다 전염됩니다.

○**진영 위원** 그냥도 전염이 되나요?

○**증인 우석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지요.

○**증인 박석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자꾸만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진영 위원** 그러니까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전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염병인데 우리 유명환 장관님 말씀하신 전염병이 아니라는 얘기는 소가 여러 마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으면 이 소에 의해서 직접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 아니다 이겁니다.

AI는 그런 바이러스로 옮기는데 광우병은 이게 접촉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변형 프리온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사료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다 이것이지요.

○**진영 위원**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공기로 전염된다는지……

○**증인 우석균** 그래도 같이 옆에 있는 소는 다 죽어야 돼요, 전염되기 때문에.

○**진영 위원** 접촉으로 전염된다는지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강창일 위원** 한국어 공부 좀 하세요, 한국어 공부! 한국어도 전염병이라는 말뜻도 모르고 어떻게 장관을 합니까?

○**위원장 김원웅** 지금 진영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우리 유명환 장관께서 사용하신 ‘전염병이 아니다’는 그렇게 해서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마리가 전염이 돼 있다 그러더라도 직접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신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전염병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30개월 이상은 미국 사람은 안 먹는데 한국 사람만 먹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를 별도로 도축해 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축은 다 같이 해서 패킹이 되는 단계에서는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미국 사람 국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나 한국에 수출하는 거나 구별 없이 똑같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미국은 국내에서 안 먹는 것을 특히 한국에 많이 보낼 것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위원** 그것은 도축과정에서 그것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국내용과 수출용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우리 유명환 장관께서 지금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전염병이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은 좀 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염병인데 또 법정 전염병인데 전염의 방법이 조류독감 같은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전염병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전염병’ 그러면 대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기는 걸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 유 장관님, 법정전염병이잖아요!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염병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답답하시네.

○**위원장 김원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제도적으로 이게 법정전염병으로 명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법률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법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상식에 의해서……

○**위원장 김원웅** 그러니까 전염병은 전염병인데 전염의 방법이 조류독감과 다르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개념을 수정해 주시는 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유명환 장관님 동의하시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기나 무슨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석운**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바이러스로 옮긴다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증인 우석균** 의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의사가.

○**증인 박석운** 프리온에 의해서 옮기는 병이네요!

○**위원장 김원웅** 증인들 상호간에 토론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김종률 위원이 발언하는 동안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돼지나 닭 같은 동물성 사료를 소에다 먹여서 그 결과 광우병이 전염이 되면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의 방법의 문제를, 뭐 수인성 전염병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뭐 논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미국에서 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는 구두 합의를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담화 내용을 인정한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한 만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이번 쇠고기 협상 고시에 반영하는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지금 미국도 바로 정권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이와 같이 현 정부에서 구두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 중인 한미 FTA상에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바로 이 부분이 전형적인 ISD 소송감입니다. 실제로 지금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가지고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니까 바로 이런 투자자-국가 소송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소가, 손해배상소송에 지금 미·캐나다 정부가 휘말려 있는데 우리 정부가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번 쇠고기 협상 고시 제5조 때문에 쇠고기 수입업자나 투자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한국 정부가 차별 금지했다, 그 바람에 이렇게 한미 간에 합의해 놓고도 차별 금지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 아마 봇물 터지듯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 정부가 그 사태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구두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어떤 면에서는 재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일 모레로 다가온 고시 강행을 하지 말고 만약에 고시를 강행한다면 저는 통상 전쟁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고시를 늦추고 이러한,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또 대통령과 총리도 즉각 나서서 사실상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검역주권을 보완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저 위반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논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즉각적으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더 큰 통상전쟁을 막을 기회고 또 그게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그 기조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김종률 위원님도 법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 문제 지금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내국인 수입업자나 외국인을 공평하게 다룬다고 할 경우에는……

**○김종률 위원** 잠깐만요, 이 청문회 끝나고 재협상하고 고시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이 청문회 결과를 종합해 갖고 부처 간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보고를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자,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ISD 관련 제가 답변을 줘……

**○김종률 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니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김종훈 본부장님, 증인이시죠? 아까 미국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강화된 것은 강화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직접 협상한 수석대표는 뭐라고 그러는지, 생각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 정책관이 2005년 입법예고안을 머리에 두고 있었다, 2005년 그게 실제로 시행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정작 직접 협상을 한 수석대표는 따로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동물성사료 조치를 강화시킬지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는 안 했지만…… 그건 큰 실책이지요, 그렇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2005년 입법예고안을 머리에 두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당초 강화됐다고 기대했던 것이 그것보다는 완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그 두 개만 비교를 하면……

**○김종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증인 김종훈** 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직접 협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서 어떤 내용으로,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를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미국이 우리 측 협상단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를 게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아까 김 증인에게서 말씀하신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 협상 대표도 아닌 분의 입장에서는 그건 주관적인 자기 기준에 의해서 강화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통상본부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증인 김종훈** 예.

**○김종률 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국익에도 중요하고 통상 현안인데 부처 간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손발도 안 맞고 말이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아셨습니까, 미리 아셨다고 그랬는데?

**○증인 김종훈** 2005년에 입법예고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안 지가 한 1년이 넘습니다.

**○김종률 위원** 2005년?

**○증인 김종훈** 2005년 10월에 그러한 입법……

**○김종률 위원** 이미 아신 거지요?

**○증인 김종훈** 입법예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안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게 아니라 그때 것보다 이번 에, 미국 정부가 4월 25일 날 관보에 게재한 동물성 강화, 예를 들어서 동물성사료 조치가 2005년보다 이번에 게재된 것이 완화됐다라는 것을 아신 시점이 언제냐고요?

**○증인 김종훈** 이번 연휴 중에 알았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럼 아까 알았다고 하신 것도 잘못 말씀하신……

**○증인 김종훈** 아까 알았다는 것은 2005년 10월 입법예고는 오래 전에 알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았다는 것이 그 내용보다 후퇴했다는 것을 안 것은 최근에 아신 거네요?

**○증인 김종훈** 그런데 자꾸 ‘후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종률 위원** 제가 후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 직접 쇠고기 협상을 담당했던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김종훈** 그 수석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는 워드 말고는 모르는데요……

○**김종률 위원** 이미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 김종훈** 그런데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김종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보면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수석대표하고도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증인 김종훈** 그런데 김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종률 위원** 아니,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그 협상 대표의 말과 오늘 증인의 말을 비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김종훈** 이게 검역의 문제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김종률 위원** 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5조에 보면 바로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ISD 승인하에 한국 정부가 소고기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검역, 위생검역 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통상 무역거래에 관련돼 있습니다.

○**증인 김종훈** 예, 일정 부분 그런 법이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형식논리적으로만 답변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아니요.

○**김종률 위원** 그리고 막상 국제적으로 볼 때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마찰이 생기면 통상분쟁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마찰이 생길 수 있고요.

○**김종률 위원** 위생·검역 사항이면서도 동시에 경제통상 관련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증인 김종훈** 그런데 그 본질이 따질, 논리를……

○**김종률 위원** 차라리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좀 정직하고 용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미 FTA를 위해서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총대 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직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소신 있고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장관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하게 돼 있지요? 자기 소신에 안 맞으면 그 부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표 내면 되는 것이지만…… 장관들 답변이 진실에도 맞지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참 정직하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영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대 선결과제하고 FTA 묶어 버린 게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늘 평가하고 비판해 왔는데, 저는 미국이 이제 FTA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얻을 것 다 얻었어요. 자기들이 가장 강점 있는 분야가 스크린쿼터하고, 그게 이제 지적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약가 적정화 방안, 쇠고기……

그래서 굳이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해영**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올해, 비준동의란 상대방이 있는 것인 만큼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의회가.

그런데 올 연말 연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따라서 미국에 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의회, 그다음에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의회, 그다음에 공화당 대통령 공화당 의회, 그다음에 공화당 대통령 민주당 의회, 지금과 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야말로 로또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압박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추상적인 기대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실제로 4대 선결과제를 이미 미국에 다 내준 부분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천 위원** 예.

그다음에 정태인 교수님,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 교수님이 써 놓은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가 한미 FTA를 하는 목적이 단순한 통상이 아니라 미국식 법과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충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증인 정태인** 예, 외부쇼크에 의한 내부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그 같은 이야기를 2005년 가을경 부시 대통령이 경주 오셨을 때 그때 정상회담에서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외교 관계상 선례가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러거든요. 혹시 그때 그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증인 정태인** 그때 FTA 얘기를 꺼냈는데 별로 호응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들은……

○**최재천 위원** 그래서 점심 때 특별히 김현중 본부장이 배석을 했죠?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것은 기억하시지요?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래서 그때 한미 간의 FTA가 사실상 ‘시작하자’ 동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상의 과정은 모르십니까, 이야기는?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다음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송기호 변호사나 여러 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5월 25일 공개본은 육지나 해양·상공은 ‘주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러니까 대륙붕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행사하는’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6월 30일 수정본에는 육지·해양·상공에 대해서는 ‘행사하는’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대륙붕 지역에 대해서는 ‘행사해도 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증인 정태인** 예.

○**최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는 전부 다 ‘행사하는’, ‘행사되는’ 해 가지고 그냥 엑서사이즈(exercise)로 돼 있어요. 왜 대륙붕 조항에 대해서만 한미 FTA가 굳이 ‘행사해도 되는’ 이런 식의 영문을 사용했는지……

다만 정부가 딱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최경림 국장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북한 땅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둔 것이다.”

그러면 제 생각은 북한 육지에 대해서는 이미 ‘행사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 대륙붕에 대해서만 ‘행사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인지, ‘메이(may)’가 들어간 이유, 왜 행사해도 되는……

그러면 행사해도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는지, 우리 대륙붕 지역 중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태인** 이 부분은 송기호 변호사의 경우에는 ‘메이’가 들어간 것이 독도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 뚜렷하게 다른 이유로, 아까 최경림 교섭관인가요? 남북통일이나 북한 문제 때문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는지, 미국의 속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것은 아마 외교부에서, 분명히 미국이 요구한 이유가 있었고 넣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원래 의도에 대해서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넣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외교부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천 위원** 예, 그래요.

김종훈 증인, 5월 25일 공개본은 분명히 ‘엑서사이즈(exercise)’로 되어 있는데 6월 30일은 ‘행사해도 되는’으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과연 미국이 먼저 요구했는지, 어떻게 수정하게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혹시 미국에 대해서 일본 측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종훈** 우선 뒤의 세 가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은 늘상 이런 말을 쓰니까 같이 쓰자고 미국이 먼저 제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측 판단은 ‘메이 엑서사이즈(may exercise)’ 이러면, 영어로 ‘메이, 메이’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may go or not. 나는 가도 좋고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메이에는 저 자신의 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붕에다 EEZ를,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메이 엑서사이즈' 하면 우리의 어떤 한계로서, 우리가 정하면 그것이 우리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최재천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파나마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는 용법을 쓰기로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 엑서사이즈를 쓰는데 파나마는 그냥 엑서사이즈를 써요. 우리는 왜 그렇게 주장을 안 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런데 엑서사이즈만 쓰면요 국제적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 엑서사이즈가 남이 인정을 해 주어야 행사되는 거지요. 그런데 메이가 들어가면 남이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겠다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요.

**○최재천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증인 김종훈** 우리는 그렇게 보고 미국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서로 그렇게 쓰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나 양해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회의록.

**○증인 김종훈** 저는 분명히 우리 대표단들에게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제가 여기서 지어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면 왜 5월 25일에는 그냥 '메이'가 빠져 있다가 6월 30일 그때 비로소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텐데? 초기 조문인데, 이것은?

**○증인 김종훈**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고쳐진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판단해 모여서 논의해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 측의 재량을……

**○위원장 김원웅** 최재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종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재천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김종훈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미국의 관보에 실린 새로운 내용을 알았느냐?'니까 '관보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네요. 김종훈 본부장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더니 과도하게 흥분을 하시면서 '오히려 검역이 강화되었는데 국회의원들 공부나 좀 제대로 해라.'는 식으로 반론을 펴시더니 조금 전에 '언제 알았느냐?'고 하니까 '연휴기간에 알았다.'…… 아니, 지금 이미 사태가 나서…… 미국의 언론보도 잘못이라는 것이, 5월 10일이면 연휴 전인데 언론에서 나 있을 때도 아닌 그 이후에, 5월 10일에서 12일 연휴 때 아신 것을 가지고 관보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예요, 오전에?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더 강화되었다는 논리를 한 번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다가 오늘 와서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질의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주 민망스러운 정도로 '무슨 자료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데 이것을 연휴에서야 확인하신 거예요?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관보에 나온 동물성 사료에 대한 이 내용을 연휴 때 아신 것이예요? 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으셨다고 답변하신 것이었어요, 증인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까도 답변드렸는데요, 2005년 10월에 입법예고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고요. 또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말썽이 났다 뭐 보도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말썽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한 것은 연휴 중에 알았습니다.

**○최성 위원** 아니,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김종훈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 정말 자료를 좀 봐야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했구나' 했더니 기껏 연휴 때 모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고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 해서 모든

언론 내용에 나왔네요? ‘김종훈 증인은 사전에 알고 있어서 농림부나 다른 부처하고는 협의도 안 됐구나. 오히려 검역이 강화됐었구나’ 이것이 됩니까? 이것도 속기록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증인 김종훈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성 위원 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증인 김종훈 아까 구제역 부분도요, 지금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최성 위원 자, 자, 구제역 부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은 지금 관건적인 내용 아닙니까? 온 국민이 관심이 돼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말이에요 5월 12일 연휴 때, 우리 김종훈 증인께서 부랴부랴 관보를 통해서 확인한 때가 언제냐 하면 청와대하고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치명적인 번역 실수에 대한 경위 조사를 한 날이 바로 연휴 때입니다.

○증인 김종훈 맞습니다.

○최성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종훈 예.

○최성 위원 아니, 세상에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들이 이 난리를 치면서 촛불시위를 하고 관보의 보도자료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 안 하다가 이제사 확인했다는 말입니까? 이것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증인 김종훈 예, 입법예고가 됐던 것은 2년 전이고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것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도 잘은 모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예요.

그런데 하여튼 반추에서 반추로 가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가는 것을 규제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법예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자, 김종훈 증인. 여전히 사과를 안 하시고……

오늘 인터넷까지 해서 다 생중계됐는데, 언론의 보도도 다 그렇게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위원들, 증인들이 아는데 그러면 김종훈 증인만 2년 전의 관보 내용으로 말했던 것이지 실제 이번에 새로운 미국 정부의 관보 내용은 아니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하시고 속기록을 확인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 김종훈 저는 분명히 아까 저한테 질문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할 때 그 내용이 ‘입

법예고를 알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성 위원 하여튼 내일 다시 한번 이 속기록을 확인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큰일납니다.

○증인 김종훈 뭐 제가 기만하고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성 위원 그다음에 네 분 증인 중에요, 정태인, 이해영, 박석운, 우석균 증인 중에 한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 김종훈 증인께서 새로운 관보 내용이 청와대까지, 한나라당까지 치명적 번역 실수라고 해서 검역이 완화됐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유독 김종훈 증인만 온 국민을 향해서 ‘검역이 강화됐다, 알고 물으라’ 이 내용이 사실 맞습니까?

어디, 전문가 어느 분이 이 부분에 제일 잘 아세요?

○증인 우석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 설명한 내용보다 실제 미국의 관보 내용이 검역이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성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태인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 FTA에서도 이런 광우병 우려 수입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여지들이 있는데, 이를 테면 한미 FTA 농업생명공학양해서에 보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미국이 하게 돼서 우리가 시비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오늘 정태인 증인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쇠고기 협상을 통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가 얼마만큼 국민 생명과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동의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유보적 견해를 가졌던 것이고 이번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아, 정말 FTA 비준동의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한미 FTA



농업생명공학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미국이 전적으로 맡게 돼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지금 제가 질문한 것과 관련돼서 못 하신 말씀을 좀 하십시오.

○**증인 정태인** 예, 미국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쪽에서의 평가를 보면 우리 정부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생명과 관련돼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준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LMO에 관한 것입니다. LMO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김원웅 위원장, 이화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만일에 광우병이 지금 촛불시위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처럼 LMO라든가 다른 또 지금 의약 약값 결정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값 결정을 ‘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정했구나’라는 정도만 알지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기로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광우병을 다루듯이 약값 결정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협상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약값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해영** 하나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8장이 위생검역조항입니다. 8장에, 8-3조에 3항에 ‘다’를 보면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이게 뭐냐 하면 한미 FTA 합의 결과 위생검역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 위생검역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검역 사안을 협의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향후에, 한미 FTA 발효된 다음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는 한미 FTA 협정상 위생검역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김종훈 증인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전에 ‘관보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라는 부분은 청문회에 참석한 우리 통합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그렇게 들어 가지고 저희가 점심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서 가지고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김종훈** 그 입장은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위원장대리 이화영** 그것은 지금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내일 혹시 있으실 경우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확인…… 속기록도 확인해보시고 워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김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다음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 국가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자꾸 확률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억 분의 1이라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이예요.

우선 현 정부 구성원은 맞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실용정부 구성원이지요? 그렇죠?

○**증인 김종훈** 저요?

○**강창일 위원** 예, 한미 FTA 통과시키고 싶지요?

○**증인 김종훈** 지금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강창일 위원** 뭐 아무라도 답변하세요.

장관님 답변하세요, 장관님. 통과시키고 싶지요, 꼭? 그렇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그 선결조건인 쇠고기 협상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에 또 실용정부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원하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혼란, 저희들 야당도 원치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되기를 국가와 국민으로서 좋은 것이 돼서 그래요.

자, 논리적으로 보세요. 선결과제도 좋고 조건도 좋은데 거기에서 지금 걸려 버렸어요. FTA

통과시키고 싶지요? 걸려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걸려 있는 부분에서. 진짜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풀어 나가야지요. 잘못된 것 고쳐야지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만일에 끝까지 고집하고 재협상 불가하다 얘기하신다면 이명박 쪽 망하게 하려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고요.

아까 또 말씀 중에…… 우리 장관님이 과거 지난번 참여정부 때는 안 그러던데 말이 좀 자꾸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전염병 문제도 그래요. 의학사건이나 국어사건 갖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상식적 선에서 보면, 아니 사전 이상의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호도 됩니까?

두 번째, 또 국가 간 신뢰 문제 때문에 재협상 할 수 없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 신뢰 문제는 어찌하려고 그래요? 국가가 미국은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요. 한미 FTA 진짜 통과시키고 싶으면 잘못된 전제조건 푸시라고요. 너무 자기 강변하고 막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재협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좀 목욕재계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좀 고민해 보세요. 무엇이 이명박 정부를 위하는 것인지, 한미 FTA 통과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장관님, 저의 충심을 아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예, 됐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또 지금 강화된 사료의 금지조치 때문에…… 지금 또 충분히 국제법적으로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협상 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아, 목적 달성에 문제없다’ 이렇게 자꾸 말이 말을 만드는 그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 보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 봐야죠.

지금 국제변호사들은 충분히 또 여기 앉아 있는 다른 증인분들은 재협상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왜 그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재협상 문제 충

분히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요. 여지를 남겨놓고 얘기해야지. 이것 자꾸…… 지금 많은 국민들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고요.

우리 네 증인분, 정태인 증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장관님하고 김종훈 본부장님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한마디만 간단하게들 좀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할 얘기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씩 해 주세요.

○증인 정태인 한미 관계에서의 비대칭성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구제역 얘기했을 때 광우병과의 비대칭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김종훈 본부장께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재협상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이전의 한미 FTA는 타결 상태였기 때문에 재협상이 됐지만 우리 쇠고기건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재협상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인한 다음에 재협상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이 한 경우도 많고. 지금 사인했는데 최병일 교수는 자동차 재협상 요구할까 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사인이 재협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재협상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미국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인 이해영 그 사인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클린턴이 교토의정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언사인(unsign)을 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은 무효로 하겠다, 언사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사인 여부는, 사실상 의지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사인 여부는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 박석운 그리고 저는 재협상해야 되는 사유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는 문제는 사전예방 우선원칙에 의해서 중요한데 이 광우병 위험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해서 사전예방 우선원칙을 최소한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재협상해서 뭘 할 것이냐, 뭘 요구할 것이냐 하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 2006년 1월 달에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했던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굳이 갈비를 꼭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일본 정도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로 정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전예방 우선원칙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 주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관철시키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 우석균** 아주 짧게만 몇 말씀만 더 붙이면요.

최근의 연구는 30개월 미만의 소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냥 먹어서, 소에게 먹었을 때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은 SRM 다 수입해도 된다 이것은 연구 결과가 틀리고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서는 소의 말초신경에서, 즉 근육이나 살코기에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30개월 이하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0.01%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축소가 한 해에 4000만 마리인데 4만 마리만 검사를 하고 있고요. 즉 0.01%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이 실제로 발생을 해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 연방정부가 이것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즉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광우병 발생 여부에 따른 수입 금지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사실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지적되지 않은 내용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유럽에서는 회장 끝 부위, 즉 소장의 일부만을 SRM이라고 규정하는 미국의 규정은 너무나 불확실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장 끝 부위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사실상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장 전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 하면 미국에서는 곱창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소장 끝 부위만 자르고 한국에 곱창으로 갖다 팔겠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미국에서 안 먹는 부위를, 버려야 되는 부위를 한국에다 갖다 팔겠다라는 것이 회장 끝 부위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럽에서는 위험하다고 해서 전체를 다 금지한 부위인데 미국이 굳이 이렇게 회장 끝 부위만을 SRM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에 곱창을 팔기 위한 것이고 소 한 마리당 3달러~4달러의 이득이 더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한국에 곱창을 갖다 팔면 미국 축산업체가 소 한 마리당 3달러, 3000원~4000원의 이득이 더 있다, 한국에 곱창을 팔 때, 미국에서 안 먹는 곱창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에서 안 먹는 부위를 실제로 한국에서 들여와서 먹는 것이, 미국에서 버리는 부위를 한국에 실제로 들여와서 먹는 부위라는 게 이 곱창 하나만 봐도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김종훈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 합의, 보통 이렇게 광우병 쇠고기를 둘러싼 한미 간에 협정을 할 때 과거의 참여정부 같았으면 몇 개 부처 간에 함께 의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통상본부 그리고 외교통상부 4개 부처, 통상본부가 부처는 아니었습니다만 4개 기관이 함께 의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마이크를 좀 켜 주시지요.

**○증인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번에는 아까 질의에 답변하면서 부처 간 회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김종훈** 11월경에 한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작년이지요.

**○윤호중 위원** 10월 협상을 마치고 나서 한 번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증인 김종훈** 예.

**○윤호중 위원** 그 당시에 결정되었던 결정사항이 4월 14일 협의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지요?

**○증인 김종훈** 제가 협상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장이……

○**윤호중 위원** 4월 14일까지는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증인 김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영 간사, 김원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호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부처 간 협의된 것이요?

○**증인 김종훈** 제가 마침,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고 또 정부가 바뀐 뒤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10월에 1차 협상을 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OIE에서 통제국가를 받으면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화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합리적 기간이라는 데서 미국이 굉장히 독촉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윤호중 위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시기 위해서.

○**증인 김종훈** 3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든 4월 14일까지는 서로 이견이 발생해서 협정이 타결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종훈** 예.

○**윤호중 위원** 그런데 그 이견이 4월 18일 해소가 된 것이지요?

○**증인 김종훈** 예.

○**윤호중 위원** 그렇지요? 부처 간의 협의가 11월 이후 4월 18일 타결 때까지 전혀 없었다고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다면 과연 협상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증인 김종훈**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말을……

○**윤호중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협상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김종훈** 농림부가……

○**윤호중 위원** 결정사항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의 보고나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확인을……

○**윤호중 위원** 그러나 농식품부를 넘어선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통상본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종훈** 언제 이야기입니까?

○**윤호중 위원** 4월 14일부터 18일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윤호중 위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종훈** 예.

○**윤호중 위원** 우리가 전염병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렇지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은 짐승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병이고 또 서로 전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우병 소고기 문제는 농식품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함께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특히 이번에 고시된 고시안을 보면 과거에는 쇠고기 검역에 대한 고시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고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이 포함된다고 어느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 협상단 담당을 했던 분이 증언한 사실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렇게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특히 의약품까지 포함한 협상을 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한마디 협의가 없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다면 통상교섭본부장 입장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거나 정부 전체 의견을 조율해서 그 조율된 의견에 따라서 협상을 하라고 권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김종훈** 예, 있다고 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권고를 하지 않으셨지요?  
 ○**증인 김종훈** 설명을 드릴까요?  
 ○**윤호중 위원** 예.  
 ○**증인 김종훈** 중간에 시간을 제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이 됐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정부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입장 정리가 지난 참여정부하에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고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공통인식입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고요.

둘째,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이야기하는 ‘올 컷츠 올 에이지(all cuts all age)’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 이것은 안 된다, 거기에서 빼야 될 것은 반드시 빼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단계로 가야 하겠다, 한꺼번에 들어오면 국민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계를 어떻게 나누느냐, 30개월 미만의 뼈를 놓자, 그것은 지난번에 뼈 쪼가리도 안 된다 해 가지고 크게 소란이 났던 그러한 경험이고 그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30개월 미만 가고, 30개월 이상은 어떻게 갈 것이냐, 거기에 조건을 달자, 저쪽에 우리가 합당하게 요구를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봤더니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데까지는 참여정부에서 대체로 관련되는 장관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는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넘어오면서 조금 협상에서 밀고 당기면서 바뀌었지 않았느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가 이행이 될 때에 우리가 30개월 이상을 받아 주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미국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1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행할 때 30개월 이상을 받아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은 우리가 어렵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다가 결국 해결이 안 되고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협상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죽 진행되어 오던 그런 상황이 경위가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상대편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경위의, 신뢰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호중 위원** 김종훈 증인께서…… 지금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종훈 증인의 답변에 의하면 4월 14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정부의 조율된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 엄청난데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본인도 아니다, 외교통상부장관도 아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이 알아서 했다, 농식품부장관한테 물어 보면 자기는 협상은 전혀 모른다, 협상단이 알아서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부를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관련되어 있는 장관들이 장관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청문회에서 더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김원웅**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갑원 위원** 전남 순천의 서갑원입니다.

유명환 장관님, 지난 정권에서 남북총리회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서갑원 위원** 그 남북총리회담에서 협정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은 국제법상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어떤 지위를 가질까요? 짧게 그냥 답만 이렇게 해 주세요.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썄, 그것은……

- 서갑원 위원** 조약 이상의 성격을 갖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 서갑원 위원** 지위를 갖습니까?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갑원 위원** 그러면 어떠한……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반적인……

- 서갑원 위원** 그냥 우리 남북 간에만 얘기할

게 아니고 국제법상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썬요, 신사협정이라고 할까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법 논리는 생각을 많이 안 해 봤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러시면 지금 왜냐하면 재협상 문제를 국제사회의 신뢰의 문제라고 자꾸 유 장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런데 남북 간의 총리가 합의해서 그 합의문을 국회에서 비준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 함은 조약으로 우리가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썬요, 그것은 여야간에 의견이……

○서갑원 **위원** 그런데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 남북총리회담의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그다음에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쇠고기협상은 또 명백하게 재협상 요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USTR의 슈워브 발언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에서 재협상을…… 중단하도록 했다, 국민들에게 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서갑원 **위원** 어떻습니까? 그 발언이, 슈워브의 그 발언이 정치적이거나 외교적 레토릭(rhetoric)은 될 수 있지만 통상법상에 위반돼서 나중에 결국은 소가 걸리지 않을까요? 이해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해영** 글썬, 일단 구두 선언이기 때문에 그게 성문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서갑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슈워브 대표의 이 발언을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중단을 인정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법의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증인 **이해영** 특히 미국이 현재 정권교체, 정권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으로 만일 정권이 변경될 경우에 아마 이 구두 약속은 거의 휴지가 되지 않

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서갑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아마 후보 시절인지 인수위 시절인지 정확하게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주석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대통령이 되면…… 그때 후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정확치는 않은데. 남북관계가 다시 정립되어야 된다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에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건데, 정권이 교체되든지 다른 대통령이 들어설 건데 슈워브 대표의 이 발언을 듣고 한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이 발언과 지난 후보 시절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해야 된다면 이런 유의 발언, 같은 법의식 속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증인 **이해영** 글썬요,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서갑원 **위원** 혹시 유 장관님,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까 ISD 문제에 대해서……

○서갑원 **위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장관께서 전가의 보도처럼 국제사회의 신뢰라고 자꾸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오늘 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남북관계를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갑원 **위원**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 아닙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간에 한 회담 또 총리 간에 한 회담을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조약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받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또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국민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 또 슈워브 대표가 발언했듯이 이것은 결국은 중대한 하자가 생겼고 부분적인 변경 사유가 생겼다고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또 미국 행정부 슈워브 대표도 인정했거든요. 이

러면 중대한 하자가 생겼고 부분적인 변경 사유가 생겨서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재협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또 총리회담은 승인해 주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은 우리 장관님 인식에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선……

○서갑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

○서갑원 위원 아니요, 유 장관님께 내가 묻고 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갑원 위원 왜 별개라고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남북 정상회담을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국내문제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지금……

○서갑원 위원 장관님, 지금 외교부장관이시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남북한을 별개의 100%……

○서갑원 위원 내가 아까 여쭙잖아요. 남북한의,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국제사회의 신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외교부장관께서 지금 통일부장관이 아니시잖아요? 외교부장관께서 외교적 관례, 국제사회의 관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통일부장관처럼 얘기를 하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유명환이 아니시잖아요? 외교부장관이시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겁니다.

물론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별개의 국가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특수한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꼭 미국하고 맺은 이런 것하고 남북한하고 관계를 동일시해 가지고 국제신뢰라는 차원에

서 이것 뭔가…… 왜 남북정상합의를 국회에서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여야간의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 장관님! 미국은 큰 나라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큰 나라 작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요.

○서갑원 위원 그러면 북한은 됩니까?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북한은 어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정치적으로 여야간에 합의해서 필요하면 국회에서 기준을 하면 되는 거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장관께서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행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비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갑원 위원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알겠습니다.

서갑원 위원님, 나중에 또 보충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지금 서갑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남북 총리 합의서 비준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미 간의 북핵문제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 수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재협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국제간의 신뢰를 얘기하면서 남북 간에 국회…… 지금 정부에서 법제처리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이걸 비준동의안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준의 비준동의안이라고 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히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간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갑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국에는 눈치 보면서 작은 것도 재협상 못 한다고 얘기하고 남북 간에는 아주 중요

한 문제까지도, 비준동의안까지 정부가 제출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제출한 것까지도 지금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건 국제간의 신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유명환 장관께서 이것은 통일부장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할 입장이 아닌 건 압니다마는 우리 서갑원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유명환 장관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귀담아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국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보다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국회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가 그런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제주도민들의 고통을 대변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7대 국회에서 가장 분노스러운 발언과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또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FTA가 비준이 되면 감귤산업을 포함해서 농업, 어업, 축산업,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농협 등 농업금융의 인수합병,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비책들 꼼꼼히 세웠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는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동의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5년 동안 약값이 1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조 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합니다. 이런 피해, 또한 한미 FTA에서 투자자 국제제소권, 이것은 평

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ISD…… 국가가 이렇게 정책에 실패했을 경우에 외국 기업이, 외국 투자자가 제소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회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유명환 장관님, 통상절차법 처리에 동의를 하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국회에서 그 논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그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재윤 위원 아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투명하게 점검하고 이런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법으로서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정부와 국회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정말 국민의 눈물을 계속 빼는 소리만 하시는 겁니까.

김종훈 본부장님,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죠?

○증인 김종훈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니까?

○증인 김종훈 설명을 하자면 좀 장황할 수 있겠는데요.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통상 문제가 늘 주요한 정치 일정과 이렇게 엮여 들어가면 참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느꼈고요. 우리는 그런데 작년에 대선, 올 4월에 총선이 지나갔고요. 미국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여건이 저쪽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



다.

○**김재윤 위원** 외교부가 제시한 자료에 보면 우리 국회가 먼저 처리하면 미 의회의 조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근거가 뭐니까?

○**증인 김종훈**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어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 국회의원들이 하는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말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종훈** 그것은 아마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들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미국, 콜롬비아 간의 FTA 처리 문제를 두고 행정부와 의회가 굉장히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같이 손 잡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우가 범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합의가 서로 있다면 그때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나머지는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정의용 위원입니다.

오늘 유명환 장관 그리고 증인 여덟 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한미 FTA는 매우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협상이 진행됐고 또 결과도, 물론 분야별로는 혜택을 받는 분야도 있고 또 피해를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을 이룬 잘된 협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야당 지도자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미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협상을 개시하자마자 바로 그 직후 국회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많은 논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위한 진실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한미 FTA 문제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한미 FTA 비준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FTA 협상 과정에서는 이 두 개가 별개의 사안으로, 별개의 트랙으로 협상이 됐습니다만, 비준 과정에서는 직접 연계된 것이 사실입니다. 미 의회가 연계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사정도 지금은 국민적 불안, 거의 패닉 상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미 FTA를 비준하기가, 그 비준동의안 처리를 정당화하기가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쇠고기 재개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타결 시점 또 미국의 입법예고상의 내용과 공표한 내용 간의 차이 또 2단계 개방시점이 이행시점이나 공표시점이나 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유명환 장관이나 김종훈 본부장, 특히 한미 FTA 협상 때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이 발언하시는 태도나 이런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쇠고기 협상 결과를, 다시 미국과 협상하라고 정치권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구하려면 합리적인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유 장관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의 신뢰도 있는 것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유 장관이나 김종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실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한 가지 5월 8일 우리 국무총리의 담화문

내용이라든지 5월 12일자 USTR의 담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을 발표한 것 입니다만, 이것이 국민들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단순한 신사협정 이상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방부에서 지난 5월 9일자인가요, 관계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통해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8월 2일부터 급식에 한우만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국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WTO의 소위 대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여론 때문에 밀려서 재협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여론에 밀려서 WTO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는 조치들을 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훈 본부장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종훈** 국방부가 정확히 날짜를 정해서 군 급식에 외국산 소를 쓰지 않겠다고 전면적으로 정책을 확정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질문하신 포인트가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한 정책이 합리화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내외국산 차별이 되고 이러한 차별을 할 수 있되 하려면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군 급식을 제한을 할 때 국산이 안전하고 외국산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서는 그렇게 제시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충분치 못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서 실제로 현실화되면 상당히 국제 분쟁을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웅** 정 위원님 끝나셨지요?

**○정의용 위원** 예.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는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장관님, 오늘 김종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4월 25일에 나온 관보에 실린 이 내용은 장관님은 언제 아셨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언론에 보도되고 알았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 문제가……

**○최성 위원** 언론의 보도를 보고 ‘미국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잘못된 논평이 나왔던 게 5월 10일이니까 그때쯤 아신 거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보고는 받고, 관보에 2005년에 게재되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된 건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성 위원** 오늘 장관께서 저는 증인으로 당연히 수락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의 책임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에 있다, 이번에는 통상 문제로 협상을 한 것인데 외교부가 져야 될 잘못을 농식품부가 대신 지적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곡을 찌른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협상은 농수산식품부가 주무부서입니다.

**○최성 위원** 협상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최성 위원** 그러면 외교통상부 ‘통상’은 왜 있는 겁니까? 제가 아는 외교적 관계의 통상의 최

고책임자는 외통부장관 아십니까? 실무적인, 기술적 협의는 각 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실무적·기술적 협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김성이 복지부장관이 무슨 이유로, 국무위원 자격인데 ‘통상 문제로 이번에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통상 쪽에 책임이 있다, 외교부 잘못을 농식품부가 대신 지적 받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근거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질러 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 위원** 김종훈 본부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김종훈** 우선 그런 발언 저도 지금 금지초문인데요, 어떤……

○**최성 위원** 당연히 금지초문이겠지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청문회 하는 동안에 이분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고, 실제 오늘 논의 중에서도 핵심이 한미 정상회담과 대단히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 쇠고기 협상이다, 그리고 그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논의가 되어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골프 카트도 타고 운전도 하고 최대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라고 난리를 치다가, 이게 너무 기쁘고 난리 치는 바람에 미 정부에서 나온 관보조차 오역을 했는지 아니면…… 저는 오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청와대와 한나라당까지 치명적 번역 실수를 하고 있어요. 치명적 번역 실수.

저는 김종훈 증인께서 오전에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서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논의해야 될 텐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며칠 전에 오히려 우리 청문 위원들보다 더 늦게 안 상황이고, 장관께서도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알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적 의제이고 한미 FTA 조기 비준, 졸속 비준 동의의 관건인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의 도입과 관련된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관련된 장관이 외통부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외통부장관은 ‘퇴장하겠다’, ‘통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검역일 뿐이지’라고 하고, 두 분 장관과

본부장께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 제가 이 사안에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퇴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나 또는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겠다 해서 드린 겁니다.

장관과 본부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 ‘퇴장’ 얘기는 제가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쇠고기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무 장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오해를 초래했다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 김종훈** 사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퇴를 해야 할 만한 책임이 증명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복지부장관님 발언은 우선 제가 진위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성 위원** 통상본부장님, 사퇴를 할 만한 증거가 나오면 사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미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와 쇠고기 통상 협상의 대단히 중요한 오역 논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청문회를 앞둔, 그리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실제적인 치명적 실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은 사퇴를 하실 만한 충분한 정황 아십니까?

○**증인 김종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2005년도 10월에 입법예고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번에 발표된 것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도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캔슬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실수가 있었다, 오역이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문제가 되고서야 구체적으로 알았고요. 그러면 뭐냐 하고 들여다봤더니 일정 부분 30개월 미만의 사례에 빠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봐도 사실로서 읽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오역 부분도 오역될 그 순간에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물으신다면

정부 간에 협조적인 체제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협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통상 측면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이 룬이, 그렇게 여지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틀은 참여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가자’, ‘30개월로 넘어갈 때 어떤 조건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큰 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큰 틀이 정해진 이상 그 안에서 얼마나 자주 조사를 하고, 위반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기술적인 협의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다른 분 발언하기 전에……

아무튼 저는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까지 책임 논란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까지 이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청와대하고 한나라당에서 대충대충 하는 조사가 아니라 국정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서 그 책임을 묻고 국민 생명과 관련된 안전 주권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위원 증인 여러분이 나오셔서 오늘 10시부터, 지금 7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질문은 해야 되고 또 얼마든지 생산성이 있는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성이 장관이 한 발언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돌출 발언이고 비보도를 전제로 한 농담 비슷한 발언인데, 방금 전에 인터넷에 뜬 사항까지 10시에 온 증인이 지금 뭘 알겠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비보도를 전제한 농담 같은 어떤…… ‘돌출 발언 화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여기서 질문을 하면 오늘 밤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FTA 내용에 대한 청문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든 안 되든 쇠고기든 뭐든 다하면 오늘 밤새도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다음에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이해영 증인에게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증인과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재협상을 하자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재협상을 꼭 해야 될, 재협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 상쇄하고서도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증인 이해영 구체적 조문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경필 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이것은 하여튼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증인 이해영 일단은 30개월 이상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30개월 이상 부분이요?

○증인 이해영 예.

○남경필 위원 그거 왜 문제가 되죠?

○증인 이해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할 경우에 30개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개월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역시 또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문제, 예를 들어 광우병 발병 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축장 승인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른바 인헨스트 피드 밴(enhanced feed ba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사실은 그 합의문에 명시가 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뽑아본 바로는 한 여덟 가지 정도 뽑은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런저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필요하면 제가 문건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위원 검역주권 논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고시에서 뺀다든지 재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해영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굳이,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GATT 20조를 원용해서 즉 예외조치를 원용해서 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WTO의 판례에 따르면, 97년 EU하고 미국 소고기 호르몬 소송 판례에 따르면 각국의 검역주권은 자주적 권리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GATT 20조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하면서, 특히 국제적인 통상마찰까지 감수하면서 재협상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남경필 위원** 동물사료 강화조치와 관련해서, 고시는 4월 25일날 됐고 내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데 관련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경우에 동물사료 강화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수입하자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증인 이해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30개월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그것도 여기 농림부에서 지난 9월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문가 회의 자료입니다. 28개월령 소에서도 병 원인체가, 그러니까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내에 충분히 공론화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남경필 위원** 30개월 이상은 이제 앞으로 계속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증인 이해영**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남경필 위원** 박석운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빼 있는 고기의 경우에 일본 정도의 20개월 정도라면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박석운** 예.

**○남경필 위원** 만약에 일본이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도의 협상이 타결되면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증인 박석운** 아마 일본이 그렇게 유사하게 타결하지 않을 겁니다.

**○남경필 위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 이번 협상과 비슷한 정도의 내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증인 박석운** 대만은 아마 우리나라가 민폐를 끼쳐서 혹시 한국에 강요한 방식으로 대만도 강

요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요. 일본은 아마 그 정도는 막아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워낙 우리나라가 잘못해 가지고 나쁜 선례를 국제적으로, 아마 민폐를 끼치는 이런 수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진짜 엄청난 국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훈 본부장 증인께 질문할 텐데요.

만약에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과학적 증거를 일본이나 대만이 새로이 제시하지 못하면 그쪽에서도 우리 합의문과 똑같지는 않겠습니까라는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분석하는 것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증인 김중훈**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미측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미국-캐나다 간의 쇠고기 교역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캐나다가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 내규를 고쳐서 완전히 OIE 기준에 적합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후에 미국에서 관련 법령을 고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필 위원** 그리고 참여정부도 2007년 5월의 OIE 판정 이후에는 계속해서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서 협상하겠다고 밝혀 왔고요. 결국 가정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더라도 협상의 내용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라는 지금쯤 쇠고기 협상을 해서 타결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걸 미룰 수 있었습니까?

**○증인 김중훈** 아까 다른 질문의 답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이것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문제다 하는 공감대는 내각 안에서 아주 강하게 공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인데요. 그 조건도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단계로 가자, 그 단계의 조건을 이렇게 하자는 것까지는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때 내용과 지금의 협상 내용이 아주 동떨어집니까?

**○증인 김중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료 강화조치를 요구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이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대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받으면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시행될 때 할 거냐 공표할 때 할 거냐는 것인데 시행될 때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6개월~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한 사료 강화조치 자체가 OIE에서 이것도 좀더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것이지 그것을 조건으로 통제국가의 지위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조건 없이도 OIE에서 통제국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인식은 이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다, 한국의 요구가 없었으면 이것은 시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추가로 보충질문할 분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배종하 실장님, 이 정도 되면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고시를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배종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협상에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유명환 장관님, 국무위원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가 고시를 연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결과를 주무 부처인 농수산물식품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이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쇠고기 협상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렇게 연계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한미 FTA하고 쇠고기 문제는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한미 FTA하고 쇠고기 협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실상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된 것이 불행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재윤 위원 제가 우리 장관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에 16일에 교민간담회 끝난 이후에 17일 자정 무렵에 공식 수행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항상 옆에 부르면……

○김재윤 위원 공식 수행원들하고 긴급 회의 소집한 것은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긴급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시로 그냥 만나서 협의하고……

○김재윤 위원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 관계 수석들하고 장관들……

○김재윤 위원 김종훈 본부장도 참석하셨나요?

○증인 김종훈 예, 저도 매번 참석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참석할 때 그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가 논의가 됐지요?

○증인 김종훈 예,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김재윤 위원 파악을 하고 대통령하고 의견도 조율하시고 그리고 장관께서도 또 같이 의견을 조율하셔서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마지막 마무리라는 것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마지막 마무리라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서 조율을 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죽 받고 있었습니다.

○김재윤 위원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연출은 청와대가 대부분은 외교통상부가 출연은 농림식품부가 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 소 수입하세’ 영화 찍은 것입니다.

결국 이 책임은, 제가 배종하 실장이 이순신 장군 시를 읊으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버티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그저 청와대의 출연하라는 지시에 따라 출연한 것이고 청와대가 지시하는 연출에 따라서 잘 연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과 각색은 저는 외교통상부가

잘 작성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관님, 그 모임에서 쇠고기 연령 제한 철폐라든가 검역 문제가 논의가 되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보고를 받았다고는 말씀할…… 제가 논의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 당시에 협상 실무자가, 그것을 보고한 분이 민동석 정책관이었지요?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직접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 당시 대통령하고 회의했을 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민동석 차관이 저한테 직접 보고할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재윤 위원 김종훈 본부장님, 그 당시 회동에서 민동석 본부장이 보고를 했지요, 대통령께?

○증인 **김종훈** 그렇지 않고요.

○김재윤 위원 누가 보고했습니까?

○증인 **김종훈** 저한테 주로 전화가 오고 또 전화가 없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 협상장 안에는 우리 직원이 한 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김재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일에 대통령하고 회동에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사람이 누구지요, 대통령께 보고한 사람?

○증인 **김종훈** 협상 결과는 타결되고 난 다음에 협상팀 현장에서 저희 현장으로 돌아왔지요.

○김재윤 위원 청와대 대통령에게 바로……

○증인 **김종훈** 그리고 이런 협상이 굉장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양측이 주고 받은 이야기를 모르고서는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님, 이르고서도 쇠고기 협상을 검역의 문제로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검역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국민들이 서글퍼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갑원 위원님 하십시오.

○서갑원 위원 아까 보충질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남았습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통상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증인 **김종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서갑원 위원 많이 들으셨지요?

○증인 **김종훈**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서갑원 위원 한미 FTA 체결 시에 우리 측 수석 대표였지요.

한미 FTA 체결 때 그 협정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어야 FTA가 가능하다.’ 이런 문구 들어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협정문에 없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런 것 들어 있지 않지요?

○증인 **김종훈** 예.

○서갑원 위원 국회에 동의해 달라고 보낸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외에 미국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이면합의문 혹시 있습니까?

○증인 **김종훈** 없습니다.

○서갑원 위원 없지요?

○증인 **김종훈** 예.

○서갑원 위원 증인께서는 지난 7일 쇠고기 청문회에서 “FTA 협상 당시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FTA 타결을 못 하겠다는 등의 미국 측 주장은 없었다” 이런 발언 하신 것 기억납니까?

○증인 **김종훈** 예, 결국 타결은 됐습니다.

○서갑원 위원 어쨌든 그런 발언 하신 것 기억납니까?

○증인 **김종훈** 예.

○서갑원 위원 결국 한미 FTA와 수입 쇠고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는 별개라 이 말씀 맞지요?

○증인 **김종훈** 그렇습니다. 별개로 따로 해결을 하자……

○서갑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개의 문제인데, 수입 쇠고기와 FTA 이 문제가 별개인데, 이 둘 간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왜 미국에서 상공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의 걸림돌이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라고 좋아하시면서 박수까지 치셨을까요?

○증인 **김종훈** 타결의 걸림돌이 아니고요……

○서갑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증인 **김종훈** 타결이 아닐 겁니다. 한미 FTA가 비준 동의를 받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그

런 의미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서갑원 위원** 아니,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그냥 해석해 주지 마시고……

○**증인 김종훈** 아니요, 타결은 오래 전에 타결이 된……

○**서갑원 위원** 보도…… “걸림돌이 되었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증인 김종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그것 아니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서갑원 위원** 왜 그러셨을까요?

○**증인 김종훈** 미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검토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그런 것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대통령께서 한미 FTA에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라는 이 인식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 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증인 김종훈** 비준 동의…… 미 측 비준 동의에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 의회의 중요한 키 멤버(key member)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갑원 위원** 아니, 우리 쇠고기 수입 협상을, 이렇게 굴욕적이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치고 생명권과 건강권 그다음에 검역권까지, 이 주권까지 다 포기해 버린, 조공 협상이라고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대통령의 이 인식이 이런 협상을 하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말씀이지요, 본부장님께서.

○**증인 김종훈** 누차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협정의 현장에서 나서서 상대방하고 조율을 통해가지고 이 결과가 도출되어야지 거기에 어떤 다른 고려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무리하게 했다, 그런 것은 적절한 배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갑원 위원** 이해영 증인께서는 어떻게…… 지금 방금 제가 김종훈 본부장께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증인 이해영** 질의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갑원 위원**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줄속 협

상을 하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증인 이해영** 일단 이명박 정부로서는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한미 FTA의 어떤 효과에 과도하게 집착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로 쇠고기를 이미 지목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치우면 이제 한미 FTA의 비준이 가능한 걸로 판단했을 걸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갑원 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를 실무자간의 합의 사항이라고, 기술적인 문제고 과학적인 문제라고 해서 관계 장관 회의 한 번도 대통령께서 주재하지 않으신 것도 문제고, 또 국무총리나……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아닙니다, 재경부총리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부 내부의 어떤 시스템을 그렇게 분야별로 마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계 장관 회의 한 번도 하지 않았……

정태인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정태인** 제가 청와대에서 일했을 때 본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영성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영성하게 일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만할 때, 굉장히 빨리 된가를 처리했어야 할 때 이렇게 영성하게 처리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강력한 힘이 ‘너 이거 확실하게 빨리 처리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처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성한 처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갑원 위원** 유명환 장관님!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우리 외교통상부나 통상 파트에서 일하시는 관계 장관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관계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다 해야 한다고 해서 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 하는 것은 아니



란 말이지요. 미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걸림돌이 되는 수입 쇠고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상 압박을 지금 가해서 우리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결국 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임했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잠깐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썄요, 저희들로서는 국회 외통위원님들한테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FTA특위에서 28번이나 이것을 다루었고 또 외통위에서도 18번이나 다루었고 청문회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데 이것이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해 왔고, 제가 얼마 전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락을 드리고 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서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서갑원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 보아도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 실용 정부인 이명박 정권에서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저는 충분히 묻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전 정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이 국회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역권까지 포기한 이 주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에서 17대 국회에서 FTA 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게 결국 현 정부에서 전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 전략 없는 외교 협상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실용 정부인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 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갑원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부시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비준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서갑원 위원** 만약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불리한 개방, 예컨대 자동차 문제를 또다시 요구해 온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김종훈 본부장님?

**○증인 김종훈** 우리 정부는 그런 데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미국 행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는 말을 제가 알기로 한 서너 차례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갑원 위원** 힐러리 후보, 또 오바마 후보까지 다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또 아시다시피 상원, 민주당이 지금 다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다 쇠고기를 축산업이……

**○위원장 김원웅** 서갑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서갑원 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축산업이 중요한 의원들은 지금 쇠고기문제를 중시하게 생각하지만은 자동차문제라든지 노동자 문제라든지 생각하는 의원들은 자동차문제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 형국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이 협상카드,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조건들까지 우리가 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또 100번을 양보해서 이 카드로 쇠고기문제를 쓸 수도, 정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니까. 이 카드를 결국은 줄속으로 하고 또 빨리 해 버림으로써……

**○위원장 김원웅** 우리 서갑원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서갑원 위원** 놓쳐 버린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원웅** 제가 지금, 정리해 달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서갑원 위원** 다 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명박정부의 대외통상팀들,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 이 국민적 분노들을 너무 이렇게 사무적으로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좀더, 다 심사숙고하셔서, 또 요인도 생겼지 않습니까,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진영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원웅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위원 사·보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만약에 17대가 처리를 못하면 18대 가서 이보다 훨씬 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열린우리당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 보고서 작년 7월 26일 한 내용을 보면 여기 사·보임 되신 위원님들이 다 평가위원으로 계시지요. 다 많이 아신 걸로 알고, 강창일 위원님도 계시고 서갑원 위원님도 계시고 김재윤 위원님도 계시고 윤호중 위원님도 계시고 김종률 위원님도 계십니다, 여기 다. 명단에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 참여위원 명단이.

총 삼십이 분인데 이 한미 FTA 평가위원회 개최되어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걸 보면 다 FTA 잘됐다고 써 있어요, 결론 부분에서. 잘된다고 써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FTA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했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지로 그런 질의 처음부터 다 다시 하면 17대에서 또 한 번 해야 되고, 이게 17대에 처리 안 되면 정말 18대 가면 새로운 위원들 많이 오실 텐데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참 어려운 절차가 남겨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대에서 반드시 저는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시면 되는 거지요, 뭐.

충분하게 논의가 됐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FTA를 파악하고 17대에 꼭 처리되기를 이렇게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지요? 우리 윤호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윤호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청문회 첫째 날을 마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는 4월 18일 있었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매우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오역문제로 사료조치가 강화됐느냐 완화됐느냐 이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를 2005년 사료조치 예고안으로 알고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5일 고시된 미국의 사료조치, 강화냐, 완화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4월 25일 수정안이라고 합시다. 그 수정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그런 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때문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매우 졸속으로 타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또 검역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또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청문회는 쇠고기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객관적인 근거를 다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18일, 4·18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한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문안은 따로 제출된 것을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오늘 이 외교통상위원회 3차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상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윤호중 위원님, 재협상 결의안

제출은 국회의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느냐의 여부 문제는 저희들 위원회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양당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은 양당 간사와 협의하는,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그렇게 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알겠습니다. 제가 양당……

○**윤호중 위원** 왜냐하면 내일모레 벌써 고시가……

○**위원장 김원웅** 알겠습니다. 그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김재윤 위원님……

○**김재윤 위원**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조속하게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위원** 윤호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제가 즉답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내일이라도 간사회의에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지금 더 이상……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그래요,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길 위원** 윤호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발의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재협상 촉구결의안 처리를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위원회 논의로써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 합의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윤호중 위원께서 이왕에 이렇게 발의를 하시면 요건을 갖추면 우리 위원회는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화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웅** 이화영 위원님!

○**이화영 위원** 일단 내일 아침에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서, 의안상정에 관한 문제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의견으로 회부할 것인가는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미 FTA 협상결과 관련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증인들께 오늘 청문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국민에게 꼭 전달할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3분 이내에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석균 증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우석균**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이 자리의 김종훈 증인께서 2005년 10월에 비해서 이번 고시문이 강화된 부분도 있고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BSE 양성을 다 폐기한다라는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광우병 양성이 나왔는데 그것을 사료로 주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므로 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미국에서 이전에 광우병 양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사료로 주었다라면 그것은 당장 수입을 중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광우병이 확인됐는데 그것을 동물의 사료로 주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강화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밖에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에 관한 협정은 30개월 미만에서의 광우병 위험 부위를 사실상 전면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마지막으로 30개월 월령 표시를 수입산 쇠고기에서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 즉 EU나 일본이나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주요 국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이렇게 개방한 나라가 없다라는 점에서, 즉 미국산

쇠고기는 일단 위험하다라는 전제하에서 EU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 금지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위험 부위나 연령, 부위를 아주 엄격히 제한하면서 수입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만 유독 이렇게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 한국 정부가 줄속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미국 정부의 사료조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도축장 승인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미국의 학교 급식 조건에서 인정하지 않는 AMR 부위를 한국에서 들여온다거나 또는 곱창을 전면적으로 수입 허용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미국에서 먹지 않는, 미국 아이들이 먹지 않는 것을 한국 아이들은 먹어야 되고 미국에서 사료로밖에 쓰지 않는 부분을 한국에서 사람들이 곱창으로 먹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이런 수입조건들은 전면 재개정되어야 하며 당연히 재협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홍식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홍식 먼저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만 다만 한미 FTA 비준이 이렇게 임박한 상태에서 이 소고기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말미암아서 한미 FTA 비준에 차질이 생긴 데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 한미 FTA와 소고기가 연계된 부분이, 즉 이렇게 오전부터 들으면서 분명히 어떤 형태든 이 소고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미 FTA 비준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아무튼 어떻게 소고기 문제를 해결하든 하지 않든 왜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되어야만 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좀 고민해 주시고 좀 넓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환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 7%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했는데 이러한 7% 이상 성장을 유지하다가 외환 위기 이후에 지금 현재 4%대에도 가까스로 도달하는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는 요소 투입형, 즉 다시 말하면 투

자의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자본 축적에 의한 투자의 형태 또 다른 성장의 요인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 진보인데 이 기술 진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기술 진보가 아니고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그러한 기술 진보에 의존해서 우리가 고성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효율성 문제라든지 제도의 선진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외환 위기 이전의 요소 투입형, 즉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성장이 담보되는 또 기술 모방형 성장 전략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바뀐 경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즉 효율적인 기업, 바꾸어 말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서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한미 FTA가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존의 아일랜드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 패턴을 밟고 있는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글로벌 생산요소의 이용, 즉 바꾸어 말하면 외국 생산요소의 아웃소싱을 비롯해서 외국 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라든지 다양한 능동적인 해외시장의 접근,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네덜란드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곳이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한미 FTA를 반드시 비준해야 될 텐데 이러한 한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FTA 비준에 임박해서 쇠고기 문제를 정치권에서라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석운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석운 너무나 명백한 진실을 괴담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피해를 줄이

는 길이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강변하면 더욱더 깊은 늪으로, 아마 국민의 분노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명백히 제가 밝힙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이명박 정부는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일단 먼저 고시를 했다가 나중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이것은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을 뺀히 부도날 것을 명백히 예측하면서 약속어음을 받겠다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고시하기 전에 지금 재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나중에 한참 진행되다가 그때 가서 문제를 다시 삼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엄청난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미 FTA 이야기를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한미 FTA에 대해서 공개토론과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타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타결되었습니다. 4월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검증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해서 출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대하는 전문가들과 또는 반대하는 국민들과 허심탄회한 그런 공개검증이 한번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 순간도 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공개토론을 통한 검증을 거치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거치지 않게 되면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오류가, 역사적 오류로 아마 기록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병일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증인 최병일 한미 FTA를 평가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협상이 그러하듯이 협상과정과 협상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또 최종 결정을 하는 국회와 의견수렴이 잘 됐느냐, 그런 부분은 초반에 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한 어떤 협상에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과 국회와의 의견 조율, 그것은 통외통위나 특위의 수차례 보고회랄지 청문 절차,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협상 과정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상 결과를 놓고 본다면 협상 결과 역시 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장 개방을 조기에 확보를 하면서 이 부분은 공산품의 관세를 100% 철폐하고 또 3년 이내에 철폐가 94%라는 점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서로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섬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 시간을 확보를 하면서 확대된 이익의 균형을 취했다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평가만이 아니고 제가 회장으로 있는 협상학회나 FTA 교수연구회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는 협상 타결이 된 4월 2일 또 협정문이 공개된 6월 30일 이후에도 그 평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 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된 협상이라는 평가가 학계의 전반적인 논의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내놓고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또 한국이 명색이 통상으로서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더 선진화되고 우리 제도를 개혁하려면 생산성이 더 증대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제도들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EU하고도 대등한 상대로 협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협상을 통해서 이른바 한국을 핵심으로 해 가지고 FTA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한국의 미

래를 이끌어 나갈 전략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한미 FTA에 대한 수많은 논란과 논쟁과 토론이 있었고 17대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는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정이라는 것은 양국이 동시에 비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국이 한국 의회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면 결국 우리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 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영 교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해영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쇠고기 문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의 문제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정의 평가는 첫째, 원래 처음에 상정했던 협상의 목표를 기준으로 협정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협정의 객관적인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으로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미 FTA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히 수많은 독소조항과 불평등하고 또 동시에 위험적인 그런 조항마저도 안고 있는 가장 문제투성이의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 정부에서 처음에 설정했던 협상 목표도 거의 대부분 미달한 협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2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논쟁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라든지, 특히 오늘 같은 자리에도 한미 FTA 경제효과로 GDP 6%라고 하는 황당한 수치가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 전문가가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그 경제효과를 추정한 결과 0.2~0.2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쪽은 GDP 6%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0.2%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경제효과에 있어서 약 30배의 차이가 나고 있

습니다.

물론 진실은 어느, 그 양 지점 가운데 진실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다름 아닌 이런 자리, 이런 공개적인 토론 그다음에 오늘과 같은 열정과 열의와 성의로 토론을 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여러 증인들이 또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그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는 네 가지 종류의 통상절차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17대 국회를 넘어가면 언제 통상절차법이 다시 논의될지 아마 기약이 없는 그런 신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기대컨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일 제대로 된 통상절차법이 있었다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갈등은 아마 회피 내지 적어도 축소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정말 부탁하건대 제대로 된 통상절차법을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 지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종하 실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배종하 사실 오늘 저는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쇠고기 협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다루어졌고 그래서 아마 제가 증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되돌아보면 제가 맡은 것은 농업 분과였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에서도 또 결과를 두고 보면, 결과를 협상을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 협상 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잊어 본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쇠고기 협상을 한 사람들도 어느 한 순간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조치를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

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이 논의가 됐는데 또 새로운 이런 논의들이 우리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고, 다만 정부의 말을 국민들이 잘 납득을 하지 않는다, 잘 믿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훈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종훈 오늘 FTA 관계로 이렇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결국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보다 명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거의 쇠고기 문제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FTA와 쇠고기를 별개로 해서 이제는 FTA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몇 분 증인들과는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몰랐던 분들인데 결국 공개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은 열 손가락으로 모자랄 정도로 횡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통외통위나 아니면 특위와 같은 제도화된 토론의 장 말고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를 보다 전파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쇠고기와 관련하여 EU, 또 이런 나라들…… EU에는 광우병이 10만 건 이상 발생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아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지금 OIE 기준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검역은 결국 위생 기준이고요. 또 국제통상에서 보면 이런 기준이나 표준이 흔히 적절한 과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채로 위장된 어떤 교역의 장벽으로 쓰인다는 그런 기록들을 WTO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많이 인용이 된 SPS 협정의 제일 근간의 정신은 국제기준을 지켜 달라,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할 때는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해 달라, 이것이 SPS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협상팀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리라

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예외적인 조치를 원용해서 발동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마찰이 되지 않느냐, 마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찰의 정도가 지금 양국 간에 합의한 과학적인 근거가 국제기준으로 확립된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지 않겠다,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생길 수 있는 마찰과 어느 것이 진짜 마찰을 일으키는 것인지 그것은 냉철하게 돌이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GATT 20조를 동원해서 예외적인 조치로 했을 때의 마찰은 그러한 사례도 있고, 또 흔히 분쟁으로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당장 재협상을 하자든지 하는 것은 큰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인 증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태인 일반적인 경제 효과나 이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고도의 과학기술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쇠고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고도의 과학기술은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모든 분야에 기술장벽이라는 게 있고, 또 표준에 관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의 걱정은 ‘야, 이런 게 나오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 왜냐면 제가 경제학자로 FTA를 접근한다고 해도 그런 분야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 모르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는 특히 모든 분야의 기술장벽 부분, 표준 부분을 좀 철저히 봐야 되겠다, 특히 기술표준이 환경과 건강에 관계되어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진행될 때는 예방 우선의 원칙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 모르면 예방 우선 한다라는 건데 오늘 방금 김종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증명 우선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새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나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

국의 주 대표들이 제발 그거 도입하지 마라, 왜냐면 수입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하게 해 놔거든요. 제도가 정말로 필요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는데 이것과 사전 예방의 원칙은 완벽하게 대립합니다.

환경과 건강에 관한 것들, 특히 광우병이 국민 건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예방우선의 원칙이 훨씬 앞서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기술 때문에 관여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민동석 교섭관은 외교부 출신입니다. 의전 전공의 외교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과학기술 전공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농림수산부 공무원들이 이런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경험하기에 지나쳐요. 농업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친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도 굉장히 고려를 했을 텐데, 그 국민 건강을 이용해서 농업 보호를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반대로 나갔을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뭔가 다른 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유명환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발언할 시간을 주신데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쇠국이나 개국이나 하는 논쟁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갈 길은 개방이고, 또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서 FTA가 남은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 쪽이 한 쪽을 임포우즈(impose)하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촛불집회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젊은 학생들의 핸드폰에 떠오르는 것을 대표적으로 열 가지를 봤습니다. 전부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3개까지 열거했을 때 여러 위원들이 제지를 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해서 할 것이지 이렇게 이상한 괴담 같은 것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사

회적으로 건전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신문 중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윤호중 위원, 서갑원 위원, 김재운 위원, 최재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저녁 8시 반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증인들 전부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신문도 하고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저는 씩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증인들께서는 원래 오늘 FTA 청문회라고 하니까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것 같은데 증인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을 제대로 못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무리 발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셋길로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허탈하기도 한데 내일 하루는 국가 경제구조 개편과 국내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FTA 보완 대책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그런 충분한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명환 장관께서는 증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14일 10시에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강창일	고홍길	권영길	권영세
김광원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김원웅	김재운	김종률	김진표
남경필	박진	박희태	서갑원
윤호중	이해봉	이화영	장영달
정몽준	정의용	진영	최성
최재천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    회    권  
전    문    위    원                지    성    배

## ○출석 증인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배중하(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실장)  
최병일(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이흥식(인하대학교 교수)  
정태인(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이해영(한신대학교 교수)  
박석운(한미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우석균(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 【보고사항】

##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원기	강창일	통합민주당	2008. 5. 9
이강래	최재천	통합민주당	2008. 5. 9
임종석	윤호중	통합민주당	2008. 5. 9
배기선	김재윤	통합민주당	2008. 5. 13